

2023-2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 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2023-2학기 수상 작품 소개

- 대상 /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위한 방법 .....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신\*은 / 001
- 금상 /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저작권 ..... 건축학부 심\*윤 / 008
- 금상 / '인터넷 밈' 이대로 괜찮은가? ..... 금융수학과 최\*현 / 017
- 은상 / 혐오표현과 차별 ..... 건축학부 김\*람 / 023
- 은상 / 육아휴직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법학과 김\*호 / 028
- 은상 /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의료경영학과 문\*진 / 034
- 은상 / 두려움 없는 도전을 위해 나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법 알아보기 ..... 간호학과 유\*연 / 040
- 은상 / 교권 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유\*하 / 045
- 은상 / 영상 속 그들도 웃고 있을까요? :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 지적과 시청자 역할 .....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윤\*영 / 052
- 동상 / 자기 치유 방침 마련을 위한 스트레스 요인 파악 ..... 간호학과 김\*람 / 062
- 동상 / 청년 자살률 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 ..... 미술·디자인학부(디자인) 김\*희 / 069
- 동상 / 나의 소통 방식 탐색하기 ..... 간호학과 김\*서 / 075
- 동상 / 학습 데이터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 ..... AI-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김\*현 / 081
- 동상 / 변화하는 우리말 ..... 바이오나노학과 김\*희 / 086
- 동상 / 세대 간 갈등 문제에 관하여 - MZ세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 스마트시티융합학과 박\*민 / 091
- 동상 / AI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 것 인가 ..... AI-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박\*호 / 096
- 동상 / 나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고찰 ..... 간호학과 박\*원 / 104
- 동상 / 정부의 공기업 개입, 과연 정당한가? ..... 전기공학과 오\*현 / 110
- 동상 /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인가, 자연적인 것인가? ..... 의공학과 이\*민 / 115
- 동상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올바른 추모의 방식 .....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민 / 123
- 동상 / 탄소나노튜브 코팅 헬렌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 연구 개발 ..... 화공생명공학과 한\*민 / 126

## 2023년-2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심사평

심사위원장 이현승 교수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지원 원고들을 심사하면서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지원의 규모를 전달받았다. 지원자들 스스로가 글쓰기를 통해서 모종의 자기 발견과 자기실현을 이루었다는 점은 아직 심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의 취지가 잘 녹아들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아도 되리라 생각되었다. 양적으로 지원자가 많아진 것뿐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자기와 자신의 사회, 더 나아가 현재의 문명이나, 지구 단위의 환경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과 적극적인 고민을 제기하는 등 심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었다. 이런 점들에 비해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지원 영역 간의 비대칭이 그것이었다. 이번 성과대회는 소논문과 칼럼, 그리고 자기서사나 기획서 등 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을 받았다. 소논문은 지원자가 7편뿐이었고, 칼럼이 46편, 자기서사와 기타 부문이 41편이었다. 그런데 이런 지원 결과는 언뜻 유형별로 적절한 결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칼럼에 지원한 칼럼이나 자기서사 등의 세 번째 영역에 지원된 글들 중에는 소논문에 가까운 논설적 글쓰기가 상당히 많았다. 게다가 스스로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유스러움 때문인지 소논문에 투고된 글들보다 참고 문헌이나 논의의 깊이가 더 정치하게 이루어진 글들이 많았다. 글쓰기 강의와 연계된 성과 발표 대회인 만큼 향후 지원 영역에 학생들이 지원 영역에 걸맞게 구별해서 응모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으로 선정한 신채은 학생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위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려 동물 가족과 함께 이미 대두된 문제인 ‘펫로스’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심각성을 논한 후에, 거창하지 않은 제안이지만 그 극복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상당히 충실한 글이다. 우선 글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을 새롭게 인식한 참신한 안목이 돋보이고, 반려 동물을 잃은 상실감이 인간 가족 구성원의 상실과 못지않은 문제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잘 개진하였다. 어찌 보면 글의 주제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글의 결론이 극복 방법이라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웬지 ‘극복’이라는 말에는 다시 동물과 인간의 위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금상을 수상한 심채윤의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저작권」은 AI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인공지능의 위상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공학적 목표와 인간 특이점의 위협이라는 인문 사회적인 관점을 ‘저작권’이라는 개념 위에서 만나게 하고, 인공 지능을 통한 창작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글이다. 역시나 결론에서의 주장은 다소 낙관적으로 갈무리된 약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관련된 풍부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논의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고 힘이 있어 좋았다. 최서현의 「‘인터넷 밈’ 이대로 괜찮은가?」 역시도 글의 소재를 바로 자신의 생활에서 찾아서 이를 해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참신하게 다가왔다. ‘저기’에 있는 ‘그들’의 언어가 아닌 ‘지금/여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들이 힘이 있다.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일들 속에서 사실은 어떤 식의 논의가 꿈틀거리는지, 재미를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 자칫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

는지를 충실하게 짚고 있다. 원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잘 안 보이는 법이지만, 일정한 성과 이상의 결과를 만든 학생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충실함과 참신성을 가지고 있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밖에도 사회적 요청에 입각한 여러 주제들을 다룬 글들이 눈에 띄었다. 육아휴직이나 스톱킹, 혐오 표현처럼 젠더나 소수자와 연관된 사회적 의제들, 지구온난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여러 글들, MZ세대를 둘러싼 세대론, 청년 자살의 문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방법, 정부의 공기업 경영 개입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객관적 방법들을 동원한 자기 탐색의 글들 등 글쓰기 수업과 연계된 다양하고 참신한 시의적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모두 수업 안에서의 일정한 피드백을 통해 글의 기술 방향과 주제화의 방법들이 섬세하게 다듬어진 글들이었다. 다만 앞에서 지원 영역과 관련된 아쉬움을 이야기한 만큼 지원된 글을 작성하는 지점에서도 글의 주제를 정하면서 성격을 규정하고 접근과 기술의 방법을 조금 더 첨예화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쓰기 수업과 연계된 글들이니 만큼 여전히 인용하는 방법의 일관성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들의 진심어린 글을 읽는 것은 흐뭇하고 즐거운 과정이었다. 충실하게 글쓰기에 임한 지원자, 그리고 담당 교수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위한 방법

### I. 서론

당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은 올해로 몇 살이 되었는가? 아직 한 계절을 채 보지 못했을 만큼 어릴 수도 있고, 이제는 볼 수 있는 계절을 한 손에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쌓은 추억들을 한 번 떠올려보자. 어릴 때부터 돌봐왔다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작은 생물이 어느새 우울해하는 나를 달래줄 만큼 성장한 모습에 새삼 놀랄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거나 큰 사고를 쳐서 화가 났을 때도 있을 것이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당신과 반려동물이 함께한 시간은 다양한 감정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룬 유대감은 그 어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 못지않게 끈끈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당신은 올해로 몇 살이 되었나?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라면 당신의 인생의 많은 첫 경험에 반려동물이 함께했을 것이다. 당신보다 연약하고 어리며 당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 어쩌면 촉촉한 첫 입맞춤의 기억도 당신의 반려동물과 함께였을지 모른다. 당신이 성인이라면 비록 지금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이 당신의 첫 반려동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한 추억은 어린아이들에 비해 줄었을 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처음인 반려동물을 위해 아이일 적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나이는 높은 확률로 당신의 반려동물보다는 많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은 높은 확률로 먼저 당신의 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특히 반려동물이 어릴수록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는 반려인은 드물다. 당연한 수순으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당신의 인생에 남길 큰 후유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반려동물이 어리거나 건강할수록, 그들과의 이별이 갑작스러울 수록 이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남길 후유증은 커진다는 사실을 많은 반려인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반려동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익숙한 세대가 공존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는 일에 대한 과도한 슬픔, 즉 펫로스 증후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크다. 즉, 반려동물을 잃은 뒤 가장 힘들 순간에 주변인들이 반려인을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펫로스 증후군은 분명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증후군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반려인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해당 논설문에서는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을 반려인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계 및 근거를 들어 기술하고자 한다.

## II. 펫로스 증후군의 정의

### 1. 펫로스 증후군의 정의와 발생원인

모든 인간은 사별 이후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정신적 고통은 흔히 비애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실에 대한 부인, 대상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자책과 분노, 내면적인 슬픔과 같은 무수히 다양한 감정이 연속적으로 변화되며 나타난다(모효정, 2015, 92쪽).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사별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애착에 따른 펫로스 증후군 경향성』에서 정한아(2020, 13쪽)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충족을 느끼고, 가장 절친한 친구로 여기며, 가족이나 자녀로 생각” 한다. 이는 사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반려동물일 때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가족의 한 부분으로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이 사라지거나 사망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상실과 고통, 슬픔,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용어로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 사용된다.(모효정, 2015, 92쪽).

인간과 반려동물이 나누는 정서적 교류는 때로는 가까운 지인과의 교류보다도 돈독하고 깊은 유대감을 지닌다. 미국의 군인가족을 조사 대상으로 한 1985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70%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고 난 뒤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존재하고,<sup>1)</sup> 반려동물의 사망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자녀를 상실하는 것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sup>2)</sup>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대중매체에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해당 단어를 생소히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반려동물을 잃은 것이 친밀하게 지내던 지인, 가족 등을 잃는 것과 비견되는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려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기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반려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반려동물을 상실하는 고통은 가족을 상실하는 고통에 비견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펫로스 증후군 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다른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될 반려인이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

### 2. 펫로스 증후군의 진행 및 진단

---

1) Ann O. Cain, “Pets as Family Members,” *Marriage and Family Review* 8(1985): 5-10. 재인용 :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99쪽.

2) 우균정, 『반려동물과의 관계 속에 투영된 내적자아의 표현연구-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재인용 :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99쪽.

이처럼 가족만큼이나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뒤에 겪는 고통이나 슬픔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받아들여진다.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는 그의 저서 『상실 수업』에서 상실의 과정을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의 5단계로 나누었는데,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도 이러한 상실의 과정이 그대로 발생한다. 부정의 단계에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다가왔음을 부정하고, 분노의 단계에서 반려동물의 사망 원인을 수의사와 같은 타인에게 떠넘긴다. 이후 타협, 절망, 수용의 과정을 거쳐 상실을 본인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슬픔이 경감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해당 증상을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복합 비애는 심각하며 지속적인 증세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sup>3)</sup> 복합 비애로 인한 고강도의 스트레스 등의 감정적 고통은 우울증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반려동물의 상실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전신적인 피로를 느끼며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무기력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외상의 증상이 동반된다.<sup>4)</sup>

또한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학범(2021, 21쪽)은 "공식 정신의학적 진단의 기준이 되는 DSM-V에는 '지속성 복합 사별 장애'라는 것"이 존재하며, "일상을 침입하는 슬픔이 1년을 넘어가면 이는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병적 문제가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상실의 의미가 다르"는 말을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 병적 문제로 진단할 수 있지만, 상실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기준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들은 스스로가 현재 어떤 감정에 처해있는지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서울 펫로스 심리상담센터 '안녕' 조지훈 원장이 제 공한 펫로스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보자.<sup>5)</sup>

1. 극심한 우울감, 죄책감, 불안감을 경험한다.
2.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중간에 깨어난다.
3. 쉽게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느낀다.
4. 일상생활이나 직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식욕이나 체중에 큰 변화(1개월 동안 5% 이상)가 생겼다.
6. 죽음이나 자살을 자주 생각한다.
7. 사별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자주 떠올라 힘들다.

3) 장현아,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의 개념과 진단」,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9): 304-305. 재인용 :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103쪽.

4) Moria A. Allen, "Helping Children Cope," 2007. 재인용 :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105~106쪽.

5) 이학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 포르체, 2021, 20쪽.

8.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
9.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생겼다.
10. 사별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소, 사람, 대화를 피한다.

이 중 5개 이상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였다면 펫로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Ⅲ.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

#### 1. 펫로스 증후군의 증상

펫로스 증후군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주로 그 증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펫로스 증후군에 동반되는 ‘우울’이라는 감정은 평범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이란 일반적인 감정으로써의 우울을 지칭할 뿐 아니라 병적인 수준의 감정까지를 포괄하여 “침울함, 근심, 무가치감, 무력감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한다.”<sup>6)</sup>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이라는 저서의 이학범(2021, 17쪽)에 의하면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울음, 우울감, 죄책감, 외로움, 분노, 수면장애, 사회 활동 감소, 목에 응어리진 느낌, 식욕부진, 혼자 있고 싶음, 후회, 무기력, 삶에 대한 회의, 반려동물 생각에 사로잡힘” 과 같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 중 93%가 수면장애에 시달렸으며, 약 70%는 외출하는 시간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존재하며,<sup>7)</sup> 위통, 구역질, 호흡곤란, 환청 및 환각, 대인 기피, 사회 부적응과 같은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sup>8)</sup> 펫로스 증후군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결코 일반적인 ‘우울’ 이 아니며 쉬이 간과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 펫로스 증후군의 사회적 인식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대비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반려인 스스로가 해야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인식에도 이유가 있다. 펫로스라는 말이 한국 사회와 대중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sup>9)</sup> 이다. 지금까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관련 연구도 전무한 상태였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증가한 시점은 그보다 더 뒤인 2009년이다. 펫로스로 인한 자살 기도 및 자살로 죽음에 이른 사건이 기사에 게재된 것은 각각 2010년, 2012년의 일이다.(모효정, 2015, 108쪽).

6) 정한아, 「반려동물과의 애착에 따른 펫로스 증후군 경향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20, 10쪽.

7) 이학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 포르체, 2021, 17쪽.

8)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106쪽.

9) 강성보, 「[여적] 애완견」, 『경향신문』 2003년 9월 2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201&artid=20030929182205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201&artid=200309291822051)(검색일: 2014.07.30.) 재인용: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108쪽.



몇몇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잃은 뒤 주변인들의 이해가 당연히 따르리라 생각하지만,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이라는 저서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변인이 반려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 “개가 죽었다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들은 사례도 존재한다.<sup>10)</sup> 반려인들 스스로가 펫로스 증후군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주변인들의 말 한 마디에도 자책을 하게 되고, 이는 펫로스 증후군을 악화시킨다.

#### IV. 펫로스 증후군의 극복 방법

미국에서 펫로스 지원 그룹을 운영하는 멜바 엠킨슨(MelbavAtkinson)에 의하면, 슬픔을 회피하는 것은 언젠가 처음보다 더 복잡한 슬픔을 마주하게 된다면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1)</sup> 사회나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별을 경험한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한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 과정에 도움이 되며, 지인들이나 혹은 펫로스 모임에 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나, 반려동물이 사용했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는 것 역시 과도한 슬픔이나 비애를 상기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편지 쓰기, 사진첩 만들기, 자기 전에 사진 보기, 기념품 간직하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은 사회의 시선과는 다르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V. 결론

앞서 말했듯이,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듯이 가족의 한 부분으로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이 사라지거나 사망했을 때, 이로 인해 감정적인 상실과 고통, 슬픔,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펫로스 증후군의 증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아직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미비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반려동물의 연령이나 건강에 관계없이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언젠가 이별하게 될 반려동물과 본인을 위해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반려인의 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하여금 이별로 인해 너무 오래, 깊이 괴로워하는 반려인들이 줄어들기를 소망한다.

---

10) 이학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 포르체, 2021, 91쪽.

11) 위의 책, 154쪽.

<참고 문헌>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호, 2015.

이학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펫로스, 남겨진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 포르체,  
2021.

정한아, 「반려동물과의 애착에 따른 펫로스 증후군 경향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20.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대상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신\*은

안녕하세요. 저는 2023-2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위한 방법>을 주제로 논설문을 작성한 컴퓨터공학전공 신\*은입니다. 저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7년 가까이 키운 반려인입니다. 논설문을 작성하기 전 우연히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반려인에게 있어 가족과의 이별 못지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따라서 저는 저와 같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과학기술글쓰기’ 교과에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위한 방법>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여 많은 분들께 읽히게 되니 더욱 뜻깊습니다.

평소 글을 작성하는 시간보다 글의 구조를 다듬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과학기술글쓰기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대상을 명확히 할 것, 진심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을 쓸 것을 강조하셨었는데, 명료한 전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니 구조가 훨씬 매끄럽게 작성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글을 공개 첨삭해 주셔서 다양한 글을 읽어볼 수 있었던 만큼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글쓰기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수업이었고,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정우진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은 무지개다리 끝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별로 인해 너무 오래, 깊이 괴로워하는 반려인들이 줄어들기를 소망하며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작자의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저작권

### 목차

- I. 서론
- II. 발전하는 인공지능(AI)
  - 1. 인공지능(AI)과 학습
  - 2. 다양한 인공지능(AI)과 그 이용
- III.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
  - 1.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저작권 침해와 AI 악용
  - 2. 자신의 저작권 주장에 대한 어려움
- IV. 관심을 통한 변화
- V. 결론

## I. 서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던 인공지능(AI)이 마치 사람이 쓴 듯한 코딩·에세이·소설·시를 창작하는 것에 이어, 그림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 분야에서까지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AI보다 인간이 앞선 능력인 환대, 관리, 창의성<sup>1)</sup> 중에서 창의성의 분야가 침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이런 기술력을 지닌 데다가 사용 방법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창작물의 작성에 사용할 때 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다. ‘바로 인공지능의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 유무’이다. 창작자만의 특징이 뚜렷한 창작물에 있어, 해당 창작물의 특징을 그대로 학습하여 다른 제작물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창작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창작자의 저작물을, 저작권을 빼앗게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창작물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미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여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바라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낼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창작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대학교 1~2학년에게 ‘인공지능 제작물의 저작권 유무’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원작자의 저작물이 침해당하거나, AI 악용이 벌어지는 문제가 일어남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고, 결국 저작권을 뺏기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인공지능 제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면,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한 변화와 ‘스테이블 디퓨전’의 업데이트 변화, 일본 불매운동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작자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설문은 제Ⅱ장에서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현재 제작물을 만드는 인공지능(AI)에 관해 탐구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유무가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문과 뉴스를 통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법 변화와 ‘스테이블 디퓨전’ 업데이트 변화, 일본 불매운동의 성과에 대해 논문과 뉴스를 통해 알아본다.

## II. 발전하는 인공지능(AI)

### 1. 인공지능(AI)과 학습

‘인공지능(AI)’이란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학습하여 인간의 판단 및 추론과 유사한 형태의 논리 구조를 구현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약한 인공지능’은 창작자가 AI를 단순히 기술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 구조의 심층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스스로 지적 진화를 할 수 있다.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초월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말하며, 지능의 무한화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강한

1) 이재구 객원기자, 세계경제포럼, “이것이 AI도 대체 불가한 6가지 기술”, AI 타임스, 2020. 10. 2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12>>, 2023. 11. 01.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중간 단계인 '인공 일반 지능'이 있다. 예시로는 딥러닝 AI가 있다.<sup>2)</sup> 이러한 AI의 성능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에 의해 결정된다.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sup>3)</sup>

인공지능의 단계별 구성은 '학습 단계', 학습된 모델의 '작성 단계', 학습된 모델 AI의 '이용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에서는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딥러닝)을 위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작성하게 된다.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TDM 과정에서 입력 단계를 풀어 쓰면, 데이터에 접근하는 단계(1단계), 데이터를 추출 및 복제하는 단계(2단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및 지식 발견(3단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와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CNN, RNN, GAN, 자연어 처리 언어모델 등이 있다.<sup>4)</sup>

'작성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딥러닝)을 통해 데이터나 데이터 세트를 분석 및 해석하고, 일정한 규칙을 도출해내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학습된 AI 모델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용단계'는 이용자가 이러한 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을 양도나 이용 허락계약 등을 통해 사용하는 과정이다. 이용자는 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에 새로운 데이터와 지시, 명령을 입력하고, 학습된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AI 생성물 또는 창작물을 출력하게 된다. 즉 학습용 모델 AI가 완성되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sup>5)</sup>

## 2. 다양한 인공지능(AI)과 그 이용

2016년 소니가 제작한 인공지능 플로우 머신즈는 작곡한 팝송 2곡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2017년에는 플로우 머신즈가 작곡한 음악으로 음반을 제작,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다.<sup>6)</sup>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 개발한 AI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을 그렸는데, 유화의 질감까지 똑같이 재현되었다. 또한 2015년 구글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 드림'은 추상화 29점을 팔아 9만 7,0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천오백만 원을 벌었다.

일본에서 연극배우로 등장한 인공지능 로봇인 '제미노이드 F'이라는 로봇은 '사요나라'라는 연극에서 주연을 맡아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 소설 창작에 도전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일본 문학상 중 하나인 '호시 신이치 상'의 1차 예심을 통과하여 일본을 놀라게 한 바 있다.<sup>7)</sup>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은 6년간 30만 곡 작곡, 그중 3만 곡을 판매해 6억 원의 매출이 발

2) 문상혁 외 1명, 「심층학습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23, 95쪽.

3) 한형상 외 1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 『PD ISSUE REPORT』 FEBRUARY 2017 VOL 1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 30~31쪽.

4) 전응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263~266쪽.

5) 차상욱,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50~51쪽.

6) 이해원,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한국법학원, 2017, 134쪽.

7)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71~272쪽.

생하였다. 인공지능 소설가 ‘비람풍’이 집필을 담당한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출간되기도 하였으며, 대학로예술극장에서 배우들은 1만 2,000여 편의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 시인 ‘시아(SIA)’의 시들을 바탕으로 시극 ‘파포스’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LG의 AI 기반 아티스트인 틸다가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답리얼 인공지능 기반의 ‘제인’은 웹드라마 ‘안녕하췌어’에 출연하여 연기하기도 하였다.

### Ⅲ.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

#### 1.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저작권 침해와 AI 악용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 내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과정의 경우,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의 복제가 일어난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은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 전부 내지 대다수를 학습데이터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이 없다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sup>8)</sup>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통한 제작물 형성을 위해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전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결국 발전을 위한 무단 이용으로 이어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한 프랑스 트위터 이용자는 “故 김정기 작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만들었다.”라며 김정기 작가의 그림체를 무단 학습시킨 AI 모델과 이 모델이 그린 작품인 <그림 2>를 공개했다. 당시 트위터 이용자들은 “(AI가 그린 그림은 김정기의 작품(예시 : <그림 1>)을 바탕으로 한) 무의미한 편집에 가깝다. 어떻게 이걸 ‘경의’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



<그림 1> 실제 故 김정기 작가의 그림



<그림 2> AI가 학습하여 그린 그림<sup>9)</sup>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AI는 충분히 한 작품, 그에 더 나아가자면 한 작가를 대체시켜 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례에서 확장되면 결국, 원작자들은 대체 당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힘은 악용을 통해 원작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작가가 그리던 그림을 무단 탈취해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기를 먼저 완성한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원작자가 인공지능의 그림을 참조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아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A 작가는 지난 12일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그 화면을 온라인 방송 중계 플랫폼 '트위치'로 생중계했다. 생중계가 시작된 지 6시간17분가량 지난 시점에, 채팅창에 올라온 트위터 링크에는 작가가 작업 중인 그림과 유사한 이미지와 함께 ‘노벨 AI 확산’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있었다. 해당 트위터 이용자는 A 작가에게 “당신(A 작가)은 나보다 5~6시간 늦

8) 전응준, 앞의 논문, 266쪽.

9) 이진수, 망한 ‘대가’의 그림체를 AI에 교육... “고인 모독” 비난, 매일안전신문, 2022. 10. 10., <[https://m.idsn.co.kr/news/view/1065595899824595#\\_PA](https://m.idsn.co.kr/news/view/1065595899824595#_PA)>, 2023. 11. 07.

게 그림을 게시했다."라며 "당신은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를 참고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는 작업 중인 작가의 그림을 가져가 인공지능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AI 작가가 먼저 완성한 인공지능 이미지를 참고했다고 주장한 것이다.<sup>10)</sup>

그림이라는 창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앱을 이용하여 아이유의 얼굴을 입혀 중국의 차이유라고 불리던 영상(<그림 3>)이 워변조로 드러나 화제가 된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아이유의 공연 영상을 해외 국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에 붙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데,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 원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경하게 되고 이는 저작자의 원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 아이유의 원본 영상과 딥페이크 영상<sup>11)</sup>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많은 악용이 실제로도 행해지고 있다.

## 2. 자신의 저작권 주장에 대한 어려움

저작권 침해는 인공지능만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물을 만든 후, 해당 제작물과 저작물 간의 유사성 입증에 대한 논쟁에 대한 문제 발생으로 확산한다. 이러한 문제는 AI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것이 AI 창작물인 점을 은닉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창작한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존재한다. 이른바 ‘참칭 콘텐츠’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뺏기는 상황이다.

이들을 해결하는 동안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작자에게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상당할 것이다. AI가 생성하는 작품이 점차 인간의 작품과 유사한 수준의 심미적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따라, AI에 의한 창작물인지를 외관상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sup>12)</sup>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판별할 기준이 될 인공지능인 만큼 발전이 필수적이어서, 기계학습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적 및 공공 이익의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계학습 기술은 많은 작품이 필요함에도, 저작물 획득 및 이용의 은밀성, 서비스 프로토콜의 불공정성, 협상력의 불평등 등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할 수 있고, 창작물의 수를 줄이며 사회적이나 공익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다.<sup>13)</sup>

10) 김주훈, ‘AI가 작품 갈취? 작가가 그리던 그림 인공지능이 무단 탈취해 먼저 완성해, AI라이프경제, 2022. 10. 15., <<http://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5>>, 2023. 11. 07.

11) 차상욱, 앞의 논문, 67~68쪽.

12)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74쪽.



#### IV. 관심을 통한 변화

인공지능 제작물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법을 고쳐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11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a)(1)에서 “새로운 복제본 혹은 번안물이 기계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가결한 단계로서 작성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제작물과 관련된 고소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8월, 미국 연방 법원이 인간의 손길 없이 AI로만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베리 하웰 연방 판사는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는 게 기반이 되는 요구 사항”이라고 뜻을 박으며 저작권 정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sup>15)</sup>

이처럼 저작권에 대해 인간 중심으로, 원작자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꾸준한 관심을 주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은 객관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특히 대중/시민들이 바라는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 2.0 업데이트 버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 예술가의 그림체와 성인용 콘텐츠 제작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sup>16)</sup> 이에 확장되어 ‘스테이블 디퓨전 3.0’에서는 아티스트가 데이터 세트에 있는 자기 작품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는 외부 예술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sup>17)</sup>,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AI의 알고리즘을 바꿔버린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각자의 의견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7월 2일부터 행해졌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였다. 이러한 확산은 국민 절반 이상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소'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sup>18)</sup>

이러한 힘이 모여, 일본 스포츠용품에 대한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 일본 불매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다. <표 1> 분석 결과 불매운동 전에 비해 불매운동 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랜드 이미지는 불매운동 전에 비해 불매운동 후에서 1.62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브랜드 태도에서도 1.86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불매운동 전·후 소비자의 구매 의도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감소는 해당 스포츠 브랜드의 신뢰도가 불매운동 이전에 컸던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일어났다.

13) 이훈항 외 1명,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점 -중국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5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204쪽.

14) 손영화,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법과 정책연구』 23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3, 374쪽.

15) 권택경, 美 법원 “인간 개입 없는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못 받아”, 동아일보, 2023. 08. 21,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821/120797668/1>>, 2023. 11. 09.

16) 남혁우, 스테이블 디퓨전 2.0, 저작권 침해 및 성인용 콘텐츠 막는다, ZDNET Korea, 2022. 11. 09., <<https://zdnet.co.kr/view/?no=20221129103713>>, 2023. 11. 09.

17) 김미정,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 3.0', 저작권자에 삭제권한 준다, ZDNET Korea, 2022. 12. 16, <<https://zdnet.co.kr/view/?no=20221216104015>>, 2023. 11. 09.

18) 홍성환, SNS가 이끄는 일본 불매운동...바코드로 일본제품 확인하는 법도 공유, 아주경제, 2019. 07. 20.,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9173912876>>, 2023. 11. 09.

구분	불매운동 전		t(p)
	M(SD)	M(SD)	
브랜드이미지 (n=366)	3.79(.95)	2.17(1.05)	24.965***(.000)
브랜드태도 (n=366)	3.86(.98)	2.00(.99)	28.472***(.000)
구매의도 (n=366)	3.80(1.02)	1.68(.88)	32.566***(.000)

\*\*\* p<.001

<표 1> 불매운동 전·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의 변화<sup>19)</sup>

이러한 감소는 브랜드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일본 불매운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상황들을 토대로, 사람들 각자의 관심과 의견이 서로 모여 커뮤니티에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공지능 제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V. 결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제작물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작동된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제작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원작자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악용하여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원작자의 원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악용 사례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원작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기 힘들뿐더러 만약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는 원작자 자체가 대체되거나, 원작자의 저작권을 뺏기는 상황 발생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 각자의 관심과 의견이 서로 모여 커뮤니티에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지금과 앞으로의 창작자들을 위해 인공지능 제작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들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모여, 저작권 문제를 원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에 관한 관심은 원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저작권을 인공지능에 뺏기지 않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작자에 대한 배려를 일으키며 훗날 AI가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막을 것이다. 이는 다시 지금 혹은 앞으로 나올 다양한 방식의 창의성을 담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를 기본 자료로 하여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 것에 도움을 받으며 다시금 인간의 창의성 발전,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인간이 창작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일이고, 인공지능이 수많은 정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그런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용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이해를 통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19) 김민철 외 3명, 소비자 불매운동에 따른 브랜드신뢰의 완충효과 검증 : 일본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7권 4호, 2022, 70~73쪽.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김민철 외 3명, 소비자 불매운동에 따른 브랜드신뢰의 완충효과 검증 : 일본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7권 4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2.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문상혁 외 1명, 「심층학습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23.

손영화,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법과 정책연구』 23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3.

이해원,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한국법학원.

이훈항 외 1명,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점 -중국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5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전응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차상욱,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한형상 외 1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 『PD ISSUE REPORT』 FEBRUARY 2017 V OL 1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 기타

권택경, 「美 법원 "인간 개입 없는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못 받아"」, 동아일보, 2023. 08. 21., <<https://www.donga.com/news/lt/article/all/20230821/120797668/1>>, 2023. 11. 09.

김미정,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디퓨전 3.0', 저작권자에 삭제권한 준다, ZDNET Korea, 2022. 12. 16., <<https://zdnet.co.kr/view/?no=20221216104015>>, 2023. 11. 09.

김주훈, 'AI가 작품 갈취?' 작가가 그리던 그림 인공지능이 무단탈취해 먼저 완성해, AI라이프경제, 2022. 10. 15., <<http://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5>>, 2023. 11. 07.

남혁우, 스테이블 디퓨전 2.0, 저작권 침해 및 성인용 콘텐츠 막는다, ZDNET Korea, 2022. 11. 09., <<https://zdnet.co.kr/view/?no=20221129103713>>, 2023. 11. 09.

이재구 객원기자, 「세계경제포럼, “이것이 AI도 대체 불가한 6가지 기술”」, AI타임스, 2020. 10. 2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12>>, 2023. 11. 01.

이진수, 망한 '대가'의 그림체를 AI에 교육... “고인 모독” 비난, 매일안전신문, 2022. 10. 10., <[https://m.idsn.co.kr/news/view/1065595899824595#\\_PA](https://m.idsn.co.kr/news/view/1065595899824595#_PA)>, 2023. 11. 07.

홍성환, SNS가 이끄는 일본 불매운동...바로크로 일본제품 확인하는 법도 공유, 아주경제, 2019. 07. 20.,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9173912876>>, 2023. 11. 09.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건축학부 심\*윤

과학 기술 글쓰기 수업은 교수님마다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제는 주제를 직접 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서론, 본론, 결론 모두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실습 시간에 자신의 글을 작성하거나, 교수님께 첨삭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소통 센터에 첨삭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첨삭 과정에서 예상 독자 선정과 같은 고려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피드백 받아, 그것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글의 질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글이나 목차 구성 등, 다양한 분야를 첨삭 받거나 질문함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근거가 추가되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 등 보다 발전될 수 있는 피드백을 얻게 된 것 역시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과제 제출 마감 이후 학생들이 썼던 모든 글을 익명으로 전환하여 교수님의 피드백을 듣는 전체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제와 주장을 위한 목차 구성,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통해 주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체 피드백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나 중요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수정 작업을 반복하며 나아지는 글의 구성을 보며, 향상된 글쓰기 실력이 느껴져 뿌듯하였습니다. 이러한 향상은 후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인터넷 밈' 이대로 괜찮은가?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인터넷 밈
  - 2. 밈의 긍정적인 면
    - 1) 밈 마케팅
    - 2) 선한 영향력
  - 3. 밈의 부정적인 면
    - 1) 명예훼손
    - 2) 2차 가해
    - 3) 저작권 문제
- III. 결론
- IV. 참고문헌 목록

## I. 서론

특정 시기의 트렌드를 읽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행어’를 찾아보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인 요즘은 ‘유행어’ 대신 ‘밈1)’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슬릭백을 추는 밈이 유행하였다. 한 외국인 틱톡커를 시작으로 유행한 챌린지로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걷는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남중생이 틱톡에 올린 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다. MBC 뉴스에선 MZ들의 걷는 법이라며 슬릭백 챌린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중이 직접 생산해 유행시킨 밈이 역으로 공중파 예능이나 광고, 뉴스에 사용되면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밈은 대중들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과 흥미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형성된다.

하지만 인터넷 밈 현상을 그저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순 없다. 밈의 과도한 사용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미로만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나 누군가를 희화화하는 표현을 무심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밈은 대부분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을 재가공하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원작자의 저작권과 밈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초상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

## II. 본론

### 1. 인터넷 밈

‘밈’이라는 용어는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1976)에서 유래했다. 도킨스의 개념은 모방을 뜻하는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를 뜻하는 ‘진(Gene)’의 합성어로, 모방되어 전달되는 문화적 유전자를 의미한다.<sup>2)</sup> 즉, 밈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을 통해 재생산되는 모든 문화적 현상을 총칭한다.

그러나 고전 사회학 용어로 쓰였던 밈은 2010년대에 이르러 온라인상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로 부활했다. 요즘 사용되는 밈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자면 ‘재미와 보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느슨한 연대를 즐기는 세대와 기술의 발달이 만나 형성된 일종의 놀이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단순 모방과 흉내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재가공을 거듭해 전파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2. 밈의 긍정적인 면

#### 1) 밈 마케팅

밈의 문화적 파급력을 활용한 홍보 기법이 ‘밈 마케팅’이다. 밈이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기관과 기업들은 시시각각 쏟아지는 새로운 밈들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콘텐츠의 재미 요소를 활용해 알리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인지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밈을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의 경우 ‘관짜 밈’을 응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기도 했고,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밈을 활용한 소위 ‘B급 감성’의 영상 제작으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채널은 지자체 유튜브 채널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경직돼 있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공공기관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과 정책 홍보와 이미지 변화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밈 활용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 밈(meme) :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 문화요소를 모방 혹은 재가공한 콘텐츠

2) 장경현, 「인터넷 밈의 형성과 특성 연구」, 『국어문학』, 제 82호, 국어문학회, 2023, 23~49쪽

충주시 유튜브 채널처럼 다양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즐기는 밈이라는 문화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2) 선한 영향력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2014년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참여 방법은 지명을 받은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ALS<sup>3)</sup>에 100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임무를 수행한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이 ALS 협회에 의해 루게릭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쓰인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이유는 찬 얼음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근육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체험을 통해 근육이 위축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느껴보자는 의미이다. 즉 루게릭병 환자들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자는, 고통의 공감과 연대 의식의 표출이다. 초반엔 스타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으나 챌린지에 담긴 좋은 뜻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었다.

밈의 특징 중 하나인 '자발적 확산'이 단순한 놀이문화나 특정 세대만 향유하는 놀이문화에서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 3. 밈의 부정적인 면

### 1) 명예훼손

'올리버쌤 성대모사' 밈은 올리버쌤의 한국어 말투 "~보소"를 성대모사하여 녹음한 영상에서 파생되었다. 그 내용에는 "와 xㅈㅇ보소"라는 형식으로 성적 발언이 담겼으며, 이에 대한 2차 창작물 형태로 감탄사 대용으로 쓰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sup>4)</sup> 실제 당사자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대사를 올리버쌤이 직접 말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다.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로 올리버쌤을 성희롱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밈에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사이버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이다. 비교적 용이하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sup>5)</sup> 따라서 밈의 유래를 모르는 아이들이 해당 밈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2) 2차 가해

밈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조롱'으로 시작한 밈이 많다. 예시로 전청조 밈을 들 수 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보낸 문자메시지 속에 담긴 표현이 밈으로 전파되고 있다. '뉴욕 출생'으로 한국어 구사가 서툰고 영어에 익숙한 척하던 그는 "I am 신뢰예요"라는 표현을 썼다. 전청조는 부적절한 어법을 통해 '나는 영어 잘하는 척하고 싶은 한국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런 전청조를 향한 대중의 조롱은 각종 밈으로 발현됐다. 일반 대중의 대화를 넘어, 기업 광고나 방송가에도 등장했다. 최근 몇몇 증권사들은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I am 신

3) ALS : 운동 근육·신경 질환 협회

4) 임우섭, 「올리버쌤, “와 XXX 보소” 밈에 결국 입 열었다..“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2023.10.27.

5)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제 21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6, 215-234쪽.

리에요’, ‘2개 분기 연속 흑자 I am 기대해요’ 등의 제목을 달았다. 기업들도 분위기에 편승했다. 롯데온은 “I am 더블할인이에요”, 위메프는 “I am 특가예요…Next time은 없어요”, 카카오페이도 “I am 알뜰해요”라는 문구를 썼다. 이런 광고 문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전청조 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청조가 사기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고,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즉 ‘I am 신뢰예요’는 범법자인 전청조가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기 위해 쓴 화법이다. 그래서 전청조 밈’을 가볍게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청조 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단순한 도덕률로 치부할 순 없다. 전청조에 대한 희화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명백하게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으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라는 인물을 가볍게 소비하며 그의 말투를 따르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sup>6)</sup>

### 3) 저작권 문제

밈의 기본 속성이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와 더불어 저작권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일러스트로 재가공을 했다고는 하나 2차 가공물인 만큼 원 제작자, 밈의 주인공에 대한 초상권과 저작권에 유의하여 마케팅에 활용해야 한다.

드라마 ‘순풍 산부인과’에서 코미디언 박미선이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라고 말하는 대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밈은 엄청난 인기를 얻어 다양하게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박미선은 자신의 얼굴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 III. 결론

현대의 대중들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에도 관여하는 적극적 주체다. 그렇기에 ‘인기를 얻거나 흥미를 끈다면’ 무엇이든 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대중 스스로 인지하고 콘텐츠의 수용과 공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와 다른 이를 타자화 시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던 건 아닌지, 어떤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히려 했었던 건 아닌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 역시 제품과 브랜드에 맞는 밈, 혹은 적당한 밈의 활용을 권장한다. 밈은 빠르게 전파되는 만큼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다. 이미 유행 시기가 지나버린 밈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또한 밈을 통한 마케팅은 기업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여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밈’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진정한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 유희와 풍자의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재미를 찾되 반드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지키는 성숙한 누리꾼들의 의식도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웃음으로 승화되기엔 당사자가 입을 상처의 크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 놀이문화를 넘어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재생산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

6) 김소리, 「2차 가해 우려도…“I am 신뢰” 전청조 밈의 두 얼굴」, 『일요신문』, [제 1644호] 2023.11.09.



#### IV. 참고문헌

##### <논문>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제 21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6, 215-234쪽.

장경현, 「인터넷 밈의 형성과 특성 연구」, 『국어문학』, 제 82호, 국어학회, 2023, 23~49쪽.

##### <신문>

임우섭, 「올리버쌤, “와 XXX 보소” 밈에 결국 입 열었다..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2023.10.27.

김소리, 「2차 가해 우려도…“I am 신뢰” 전청조 밈의 두 얼굴」, 『일요신문』, [제 1644호] 2023.11.09.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금융수학과 최\*현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은 학생의 전공, 특성, 수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맞춤형 강좌로 글쓰기 이론 강의와 글쓰기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각주, 인용법 등을 익혀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칼럼 쓰기에 앞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소 관심이 있던 것들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SNS, K-POP 흥행, 인터넷 사용, MZ세대 유행어'와 같은 키워드를 생각했고, 이는 'میم'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로 간추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였기에 '출처 미표기', '희화화하는 표현 사용'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میم'이 올바른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반에 글을 작성할 때 본론에서 'میم의 개념, 집합행동으로서의 밈, 사이버공간과 인터넷 밈의 전파, 밈의 특성, 익명성과 다양성'과 같이 밈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나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자세하고 많은 개념 설명 때문에 주제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밈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였고, 글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 부정적인 면과 관련된 내용과 사례를 추가하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밈의 긍정적인 내용과 사례를 추가하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피드백은 동기들과 했던 조별 상호 피드백에서 '주장과 대비된 내용 덕분에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장점은 교수님과 일대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칼럼을 처음 작성해 보았는데 이러한 수업 방식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칼럼을 작성해 본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셨던 최정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혐오표현과 차별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우리는 손쉽게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떠나보낸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를 읽고, SNS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끝도 없이 올라온다. 또한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삼아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의견을 어떤 제약도 없이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속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 종교, 성, 성적지향들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혐오를 고취시키려는 의도와 효과를 갖는, 심지어 인격말살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혐오표현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은 없지만 인종, 종교, 피부색, 혈통, 민족 등 다름을 이유로 하는 범죄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sup>1)</sup> 더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 어린이의 미숙함을 빗댄~린이, 흑인들의 피부색을 강조한 흑형, 중국인을 무시하는 단어인 짱개,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내포한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녀, 단어 뒤에 벌레 충(蟲) 자를 붙여 함부로 부르는 ~충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의 특징은 특정한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나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표현들이다. 다수가 쓰는 표현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혐오표현의 확산은 곧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만연해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혐오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표출되던 이주민, 여성 등에 대한 혐오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발간된 ‘혐오 표현(Hate Speech) 리포트’에서 정의한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다.<sup>2)</sup>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른바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여성, 특정 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등장하였고,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들은 점증하여 특정 직업,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구성원 등에 대한 혐오표현들도 본격적

1)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권, 3호, 2019, 47쪽.

1)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 16권, 3호, 2015, 140쪽.

2) 김송현, 배윤정, 「‘혐오’의 본격 표출, ‘혐오 표현’을 말하다」, 2021.09.13 실태, <http://www.gnu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5>

으로 등장했다.<sup>3)</sup>

혐오표현은 왜 하필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답은 온라인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표출할 수 없는 표현들을 쏟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이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그 커뮤니티는 '그래도 되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의견은 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견은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가 되는 의견을 가지고도 다수가 '옳다'고 믿는 집단 속에서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한쪽의 편을 드는 의견이 많아지면 그 의견을 다수의 입장으로 여기고, 자신의 입장마저 뒤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집단에서 주장하는 의견만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마주하였을 때에는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미영(2011)은 인터넷 익명 상황에서는 집단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특정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사이버 훌리건과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sup>4)</sup>

이렇게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을 향한 규제가 필요할까? 필자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혐오표현은 곧 특정 집단, 주로 소수자를 향한 혐오이다.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청중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침을 부정할 수 없다. 혐오표현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혐오표현 자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도 역시 늘어나며, 이는 즉 우리 삶에서 혐오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뜻과 같다. 너무도 당연해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혐오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에서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해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혐오표현이 법적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단순한 불쾌감이나 무례함 이상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sup>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이다.<sup>6)</sup>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처벌 대상인 혐오표현의 범주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규제하여 처벌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혐오표현의 개념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를 혐오표현으로 볼 것인지 명확

3) 박승호, 위의 글, 48쪽.

4)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제 15권 2호, 2015, 281쪽.

5) 박승호, 위의 글, 65쪽.

6)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302쪽.

한 기준이 없으며, 혐오표현의 해악의 표현의 자유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어렵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는 혐오표현 행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혐오표현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혐오표현 대상자에게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려 노력한다는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sup>8)</sup>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개입은 꼭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보호받는다는 감각은 중요하다. 특정 집단, 즉 피해 받기 쉬운 소수자가 받은 피해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를 해결하려고 고안하는 것 자체가 보호의 시작이다.

이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혐오표현에 관한 대책은 여전히 “더 많은 표현(more speech)”,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sup>9)</sup> 이 말인즉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이유는 결국 혐오가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든 행위는 문제점을 인지함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혐오표현과 관련된 논제를 던지는 것 자체로 누군가는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무의식적으로 쓰던 혐오표현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은 칼과 같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한 말이 나도 모르게 특정인물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혐오에 기반한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쓰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혐오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뭐든 당연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

7) 박해영, 위의 글, 141쪽.

8) 박승호, 위의 글, 66쪽.

9) 홍성수, 위의 글, 308쪽.

<참고 자료>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권, 3호, 2019, 45-88.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 16권, 3호, 2015, 137-169.

김송현, 배운정. 「‘혐오’의 본격 표출, ‘혐오 표현’을 말하다」2021.09.13실태,  
<http://www.gnu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5>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제 15권 2호, 2015, 279-317.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건축학부 김\*람

지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다. 지원한 이후에도 다른 일들로 바빠 잠시 잊고 살았는데, 수상자 대상 안내 문자가 왔을 때 어안이 병병했다. 이렇게 수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뽑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내가 들은 수업은 최정윤 교수님의 '과학 기술 글쓰기'였고,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칼럼을 작성했다. 칼럼을 작성할 때 현재 상황, 원인 파악, 해결책을 제시하는 3단 구성 글쓰기를 강조하셨다.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 현상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원인을 분석한 후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칼럼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어떻게 잡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배웠다. 덕분에 칼럼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지만 글쓰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 배웠기에, 실제로 시도하기까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다. 초고를 쓴 후에는 동기들과 돌려보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후 교수님께 개인 피드백을 받는다. 감사하게도 큰 수정 없이 이대로 최종본으로 제출해도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글쓰기는 일단 뭐라도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초고가 있어야 수정본이 있고, 수정본이 있어야 최종본이 나온다. 비록 처음 써낸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마주하고 점점 고쳐나가야 실력이 느는 분야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다양한 사람에게 내 글을 보여주기를 꺼리지 않고, 그로 인한 다양한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칼럼을 완성하고, 수상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 육아휴직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정책개발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을 고찰하고 제시한다.

개요

도입부

-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현상의 소개 및 정책개발자의 시각과 접근 방법 변화의 필요성 재고

본론 : 육아휴직 분석 및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접근 방법 제시

1. 육아휴직의 역사와 현재
2. 현재 육아휴직의 장단점 분석
  - 2.1. 긍정적 평가
  - 2.2. 부정적 평가
3.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 3.1. 해외의 사례
  - 3.2. 문제 상황 접근 방법의 고찰

마무리

- 육아휴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 및 정책연구자들과 공무원의 새로운 시각 및 태도, 협동의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17년까지 1점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8년부터 0점대에 진입하더니 2022년에 와서는 0.78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sup>1)</sup>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MBC에서 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 '100분 토론'에서 저출산 현상을 주제로 토론을 한 영상이 있다. 이 토론 영상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저출산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론에 등장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다른 나라의 경우 가족 지원 예산을 2% 넘게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은 1% 조금 넘게 사용한다고 말하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같은 자리에 나와 있던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가족 지원 같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개발자들과 공직자들이 이 문제 현상에 대해 새롭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여러 요인 중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육아휴직은 육아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육아휴직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정책은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처음 도입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sup>2)</sup> 하지만 초기에는 제도가 도입만 됐을 뿐 실질적인 활용에 필요한 지원이 없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렀으며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2001년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됐다.<sup>3)</sup>

이후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제8차 일부 개정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남녀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sup>4)</sup> 2011년 이후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정액제로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인 정률제로 변경했고, 2014년 만 8세 이하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해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지급하는 것을 시행했다.<sup>5)</sup> 2018년 개정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후 90일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1) 출처: 국가지표체계

2) 홍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1142~1143쪽.

3) 정성미, 「육아휴직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통해 본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50쪽.

4) 유미경 안윤정,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본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139쪽.

5) 정성미, op. cit., p.50.

다.6) 육아휴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대로 발전해 왔고 남자도 육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회사는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회사를 나갈 수 있기에 처음부터 여성을 고용하기를 꺼린다. 여성도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으며, 육아 비용까지 걱정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검토해 본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육아휴직의 발전과 함께 육아휴직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급여 인상이 지속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2005년 육아휴직자는 약 1만 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해 2019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해서 11만 명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의 발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전후의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 관련한 정책들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서 육아휴직 정책도 여성에 한정된 복지로서 취급되었고 처음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여성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었고,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 기피 대상으로서 인식 받게 하는 불이익을 부여하였다.8)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도 육아에 분담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육아와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걸 육아휴직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느 한 실험에서는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이후 여성들은 후속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직장 내에서의 갈등, 경력 단절의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후의 출산 행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9)

또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이후에도 역시 여성들은 후속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기업문화나 조직문화 속에서 남편이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하게 될 때,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후의 출산 행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0) 위의 사례를 볼 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에서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육아휴직의 한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6) 유미경 안윤정, op. cit., p.139.

7) 정성미, op. cit., p.51.

8) 홍정화, op. cit., p.1146.

9) 정의룡, 「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제 4권 제4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150쪽.

10) Ibid., p.151.

이 외에도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유형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주로 있었는데 민간 근로자, 민간 부문의 계약직 근로자, 민간 부문 대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결과가 나왔다.<sup>11)</sup> 이런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육아휴직이 한계에 부딪혀 정책의 당사자들이 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일단 육아휴직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들의 휴가는 일정 기간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을 시 어머니가 대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휴가권이 사라지는 제도인 ‘아버지 할당(daddy quota)’를 사용한다.<sup>12)</sup> 노르웨이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권리적인 것보다 의무를 강조했다는 것이다.<sup>13)</sup> 위와 같은 제도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리일 수 있고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현상에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사람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지 민간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과 태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직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의 보편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의 기업문화 및 직장문화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빠지면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돌아온 직장인에게 어니 직군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게 된다.

우리 한국의 육아휴직은 이처럼 부모가 된 직장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기업 입장을 소홀히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 계속해서 직장인에 대한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과 같이 사내 복지를 제대로 챙겨 주기 힘든 회사들에는 더욱 그렇다. 기업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에 육아휴직자의 안정적인 복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복지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안정적인 복지를 이행하면 국가가 그 기업의 세금을 감면시켜 주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1) 유상미,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 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247~248쪽.

12) 최숙희,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제18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6, 45쪽.

13) Ibid., pp.47~48.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재정 사용은 막아야 한다. 정책개발자들 및 공직자들, 나아가서 정치권들 모두가 협동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의견을 듣고 대안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유미경 안윤정,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본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2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135~179쪽.

유상미,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 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231~264쪽.

정성미, 「육아휴직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통해 본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50~52쪽.

정의룡, 「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제4권 제4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145~154쪽.

최숙희,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제18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6, 37~62쪽.

홍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1141~1175쪽.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법학과 김\*호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강의는 다양한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과 내용을 익혀 보다 심화된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강의다. 제시된 글에서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글의 진술 방식, 인용, 주석을 다는 방법 등을 배운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자신만의 글의 주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초고를 쓰며 교수님과 피드백을 통해 글을 완성하는 활동을 한다. 이번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강의에서는 학술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학술 에세이 작성 활동은 먼저 개요 작성부터 시작한다. 과제로 개요를 작성하고 수업 시간에 자신의 개요와 글쓰기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고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받는 활동을 한다. 개요 작성이 끝나면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익히고 참고할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렀다. 특히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인용과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인용과 각주를 다는 방법,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이전에도 배운 경험은 있지만 글을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아 스스로 잊어버리곤 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인용과 출처를 표기하는 법을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술 에세이 작성 활동을 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점도 찾을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초반에는 글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글의 주제와 어긋나는 혹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글의 흐름이 어색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앞으로 글을 계속 써 나가면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초고를 완성한 후 수업에서 피드백 시간을 가졌을 때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다. 교수님께서도 잘 써진 초고를 보여주며 수업 내용을 진행하고 피드백하였는데 그걸 보면서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글을 쓰는 활동을 자주 가지고 스스로 더 발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1. 국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성과 현황 및 문제의 제기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국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Stalking)을 공식적 범죄로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해당 범죄의 인지도를 높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설법 시행 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각각 2,767건, 5,468건, 4,515건을 기록하다가 법이 최초 시행된 2021년에 1만 4,509건, 2022년에 2만 9,565건으로 급증하였다<sup>1)</sup>. 특히 올해에는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1만 8,973건으로, 이미 2021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로는 올해 신고 건수가 3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sup>2)</sup>. 이는 관련법의 신설이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신고 행위의 증가로 이어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의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증대가 처벌 수위의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금 조치 신청의 승인에 대하여 법원은 그 수치상의 절반을 기각하고 있다. 또 구금 조치가 승인되어도 피의자가 실제로 구금되는 경우는 드물어 전체 신고 건의 약 5.5%에 그친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구속수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3.3%, 2023년(8월까지 집계)에는 3.1%에 불과하다. 구속과 구금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스토킹 피의자 중 구속되거나 구금되는 비율은 100명 중 8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sup>3)</sup>.

증가하는 신고율에 대비되는 저조한 구속률은 현존하는 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2021년 최초 시행 이후로 상세한 보안을 위하여 개정을 거칠 만큼 뚜렷한 목적을 가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성과는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에, 해당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문제 요소가 존재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요소를 규정하여 다음 개정 과정에 반영하여야만 처벌법 시행의 바람직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의하려고 한다.

### 2.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관련법과의 비교분석

#### 2.1.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분석

- 1) 박경훈, “끊이지 않는 '스토킹' ... 작년 경찰 신변보호조치 하루 20건”, 『서울경제』, 2023.9.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N4MWQIL>, 2023.11.22.
- 2) 유광준, “스토킹범죄 2배 늘었는데 가해자 구속률 되레 감소”, 『매일신문』, 2023.9.14.,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91418093959286>, 2023.11.22.
- 3) 박용필,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9.14.,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41040001#c2b>, 2023.11.22.

지난 2023년 6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있어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국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토킹 처벌법은 여전히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법률에 범죄를 정의한 내용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현재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할 때 객관적 판단의 적용이 불가능한 다소 모호한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 사항은 아래의 비교분석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둘째로 법률이 가해자의 보복 조치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해자 측의 뒤뜰린 감정과 연관된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측의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접근금지는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는 1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측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이 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스토킹 처벌법의 본래 시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범죄의 입증 난도를 낮추어 가해자의 구속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의 사용은 법적 판단 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게 하여, 범죄 입증의 난도를 높인다. 가해자의 구속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피해자를 후속 조치로써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충분히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 가해자를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는 식의 가벼운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 2.2. 독일 관련법과의 비교분석

독일은 26년 전인 2007년부터 형법 제238조에 ‘스토킹(Nachstellung)’ 죄를 신설한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법률에서는 해당 범죄를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양하기에, 법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곤란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현행 독일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는 총 5개의 각호를 두어 장소의 근접성, 가해자의 접촉 시도, 피해자의 생활영역에의 개입 여부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회 정도의 연속적인 행위(fortgesetzt fünf Handlungen bzw. Handlungsbündel)’라는 정확한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판결 과정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줄이고 범죄 입증의 모호성을 낮추고 있다(김성룡, 2007, p. 135).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Stalking)는 다소 추상적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셋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독일의 형법에서 5가지 종류의 각호를 통하여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마치 그물망에 걸리듯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은 것과 달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과 공포심’ 등 상당히 불명확한 용어를 통하여 범죄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스토킹으로써 규정해 놓은 행위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근’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의 한계가 달라지는 단어이다. 반면 독일 형법에서는 장소의 근접성에 대한 각호를 별도로 제정해 두었다는 점 또한 범죄 입증의 용이성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다.

### 2.3. 일본 관련법과의 비교분석

일본에서는 1999년 10월 발생한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스토킹 행위를 개인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에 문제가 제기되고 실효성 있는 형벌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논의 되어 왔던 바들의 재검토를 시행하여 다양한 면에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을 감행하였다. 그 예로 ‘Twitter와 LINE 등 SNS에의 메시지 연속 송신이나 개인 블로그에의 집착적인 글쓰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자적 기록 등의 일방적 송부 행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묘사를 통한 범죄 행위의 규정으로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위 독일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각 된다.

한편 일본의 스토킹 처벌법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피해자 중심적인 편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키 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따라다니기죄’로 이름을 붙인 법령을 시행하였다. 이미 이 법령에서부터 행위유형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아, 극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따라다니는 행위’에 ‘불안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때 ‘불안 또는 불쾌감’의 정도는 주관적 요소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였다<sup>4)</sup>. 따로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국내 법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일본의 「스토키 규제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또는 직권으로 그 행위자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의 효력은 1년이며, 또다시 1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금지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접근금지 조치의 최대 기간이 2개월인 국내법과 비교하였을 때, 보복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처벌법에 더욱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국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우려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 유형이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끝없는 두려움을 떠안아야 한다. 최근 스토킹 관련 중범죄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적 정서 또한 이전에 비하여 민감해졌다. 스토킹 범죄 신고의 진위성이 입증된 후에는 곧바로 가해자의 구금이 뒤따르는 모

4) 문희태,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일본의 스토키 규제법의 제정 경위와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20권 4호, 2020, p. 391.



습이 피해자 측은 물론 사회의 보편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정서,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위하는 법이 되려면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최초 시행 이후 성과와 관련 범죄 현황에 의하면 처벌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로써 해당 범죄의 내용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해석하는 방식과 관점에 따라 범죄에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모호한 표현은, 법률의 제정 목적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 과정에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구속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용어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 스토킹 범죄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와 같은 대목에 관하여서는, 피해자가 실행한 거부의 의사 표현의 방식 및 횟수가 범죄 입증 과정에 더 강력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판별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가해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입증된 신고 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피해자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또는 구금 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금지 명령’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 정도 또한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확실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의 위반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일본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강한 수준으로 법적 형벌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스토킹 처벌 법률의 법적 표현 및 규정을 구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의 입증이 수월해질수록 모호한 범죄 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크게 줄고 피해자 측이 떠안을 두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의 특성이 그 처벌법에 반영되는 수준이 밀접하고 강력할수록 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므로,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그 처벌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면 그동안 무수히 발생해 왔던 스토킹 2차 피해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I. 논문

-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 제18권 제4호, 2007, pp. 135-158.
- 문희태,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키 규제법의 제정 경위와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20권 4호, 2020, pp. 383-405.
- 오상지,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스토키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 제점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 2022, pp. 5-40.
- 이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스토키범죄의 강력범죄화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24권 제3호, 2023, pp. 321-352.
- 이승준, 「독일의 스토키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 권 제2호, 2017, pp. 1-28.

## II. 기타

- 박경훈, “끊이지 않는 '스토킹' ... 작년 경찰 신변보호조치 하루 20건”, 『서울경제』, 2023.9.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N4MWQIL>, 2023.11.22.
- 박용필,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09.14.,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41040001#c2b>, 2023.11.22.
- 유광준, “스토킹범죄 2배 늘었는데 가해자 구속률 되레 감소”, 『매일신문』, 2023.9.14.,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91418093959286>, 2023.11.22.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의료경영학과 문\*진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쓰기 방식을 접하게 해주고 이를 효과적으로 익히도록 도와주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글쓰기의 기본 소양부터 시작하여 학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심화 지식을 학습하였다. 배운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한 편의 학술 에세이에 담는 일이 전체 과제의 큰 줄기이자 최종 목표였다. 매 수업은 학생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발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본인의 논리 및 글쓰기 방식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학술 에세이 최종본 제출 전 초고에 대한 피드백 단계가 존재하여, 글쓰기에 능숙하지 못하였던 학생들도 수정 사항을 전달받고 반복적인 퇴고 과정을 거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가 필요한 인용 방법을 배울 때에 여러 수업에 걸친 적용 연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진 점도 좋았다.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해당 수업에서 체득한 내용들이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글쓰기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느꼈다.

## 두려움 없는 도전을 위해 나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법 알아보기

### 1. 서론

자아 탄력성(Ego-resiliency)이란 1960년대 Block에 의해 처음 기술된 것으로 인간의 모든 일상 경험과 도전 및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개인 특성 요인을 말한다. 이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사회학 등에서는 과업 수행이나 성취 혹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의 자아 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면 두려움 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탐구를 통해 내가 다양한 도전에서 어려움을 마주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학술자료를 통해 자아 탄력성과 삶의 질이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탐구를 시작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자아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 자아 탄력성과 그 하부변인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아 탄력성이 높은 군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서혁수, 2012, 72p). 또한, 외상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의미 추구와 의미발견이 이를 매개하고 이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다(김보라, 2010, 112p).

이를 통해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자아 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법을 탐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을 알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탐구했다. 우선, 인생 그래프를 그려 주관적으로 나의 삶에 있었던 역경과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로 한국가이던스에서 제공하는 자아 탄력성 척도 검사를 이용하여 더욱 객관적인 탐구를 진행하였다.

### 2. 본론

#### 2.1 자아 탄력성과 삶의 질의 관계

자아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이용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도전성이 향상된다는 효과를 가진다(김주환, 2017). 또한, 자아 탄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맞서 자아를 적절히 통제하여 수행 기능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자아가 경직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수행 기능에 어려움을 보인다(박은정 외, 2017, 180p). 따라서, 자아 탄력성을 높인다면 다양한 도전에서 어려움을 마주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2.2 인생 그래프를 통한 삶에서의 어려움과 대처법 탐구

우선, 인생 그래프를 그려 그동안 삶에서의 역경과 그 대처법에 관한 주관적인 탐구를 진행했다. 인생 그래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태어나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수평선 위에 삶의 선을 표시하고, 부정적이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면 수평선 아래에 삶의 선을 표시한다. 이후 연령대별로 표시한 삶의 선을 연결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프를 통해 내 삶에서의 큰 역경 중에서 나의 의지로 환경을 바꾸었던 사례와, 이 이후의 긍정적인 경험이 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번 탐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경과 그 대처법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이므로, 과거와 현재까지의 사건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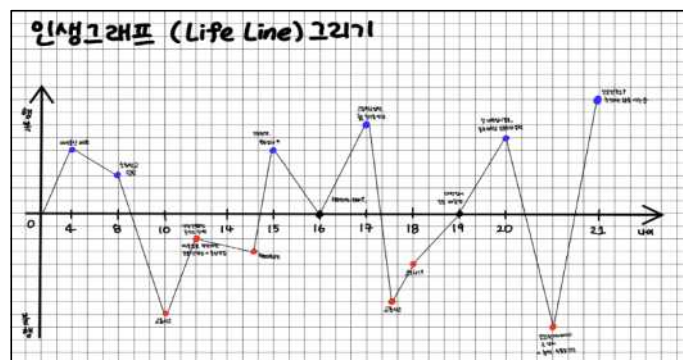


그림1. 인생 그래프

그래프에서 교통사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각각 두 번 이상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나의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었고, 당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상황이지만, 사실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은 나의 자존감, 나 자신이며 이를 치유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이를 달성할 때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건강이라는 행복을 선물 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에 전공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시험 목표 등수를 설정하거나 ‘올해 안에 자격증 취득하기’, ‘바이올린 레슨 다시 받기’ 등의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기 경험과 극복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삶의 어려움에서 나만의 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 또한 도출 해냈다는 점에서 자아 탄력성이 높고,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며, 어떤 조건이 아닌 내면적 조건에 이루어진다(김주환, 2019, 8p). 인생 곡선과 자아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인생곡선의 굴곡 수와 자아 탄력성이 정적 관계를 가진다(유경미, 2014, 179p)는 연구 결과들은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높은 자아 탄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2.3 자아 탄력성 척도를 이용한 탐구와 자아 탄력성의 개발



그림2. 자아 탄력성 척도 검사 과정과 결과

자아 탄력성 척도 검사는 심리검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가이던스에서 제공하는 검사 항목을 이용했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 탄력과 자아 취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자아가 불안정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자아 탄력이 높으나, 자아 취약도 동시에 높아 현재 자아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주변 환경이나 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서 자 탄력성이 높기도 하고, 자아가 취약하기도 하므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좋겠지만 자아가 취약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자아존중감 역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자아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자아 탄력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 강점 개발, 감사 일기 작성하기,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가족의 신뢰와 지지이다. 첫 번째, 긍정적인 확언으로 자신을 격려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장점과 자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 존재하려고 노력하고 현재 느끼는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상황을 재구성해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한 일에 집중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기분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다(김주환, 2019).

### 3. 결론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 위하여 나의 자아 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 탐색했다. 나의 평소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삶의 목표 세우기'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옳은 방향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아 탄력이 높은 동시에 자아 취약 지수가 높게 나와, 자아 탄력을 확실하게 개발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자아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자아 탄력성 검사 문항에서 나왔던 것과 평소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사건을 경험할 때 현재 느끼는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짧게라도 현재 상황, 나의 기분,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대처할 방법에 대해 메모해 놓는 습관을 기르려

고 한다. 이번 탐구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학업 상황에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느껴졌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아 탄력성을 탐구한다면 애착유형이나 방어 기제 유형을 탐구하여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이라는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높은 자아 탄력성과 간호사의 업무능력, 공감 능력에 관해 추후 탐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보라,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2권 제 1호, 한국심리학회, 2010.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9.

박은정 외 2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 12권 제 2호, 한국웰니스학회, 2017.

서혁수, 「간호대학생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사회정신의학』 제 17권 제 2호,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12.

유경미, 조용태, 「예술심리치료에서 대학생의 인생곡선 반응특성과 회복탄력성 관계 예비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14.

(그림1)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그래프 (2023.11.04.)

(그림2) 2023.11.04.에 실시한 한국가이던스에서 제공하는 자아탄력성 척도 검사와 결과 (<https://www.guidance.co.kr/Intgr/freetest/free-screen.html?FCODE=04>)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간호학과 유\*연

제가 수강했던 의료보건 글쓰기는 간호 및 보건대학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을 이해하여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과입니다. '자기 탐색의 보고서'라는 마지막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먼저 글쓰기 윤리를 배우며 인용과 출처 표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의료보건 글쓰기 교과만의 특징을 살린 의료인문학을 배우며 의료인으로서의 자세(공감 능력, 언어 감수성, 소통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성장과 더불어 앞서 배운 의료 보건인의 자세를 가져 환자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공감하고 치유하는 의료인이 되고자 해당 주제로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3주간 개요와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고 같은 조 동료들, 교수님의 피드백을 토대로 글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동료 간 피드백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내용을 진솔하게 담은 글이라 나누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저도 동료들의 글을 보면서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수님께서 인용 표시의 통일, 구체적인 표현 작성, 글을 일반화하여 명제 중심으로 작성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며 글의 구조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금은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저의 진솔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15주간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했던 간호학과 동기들과 따뜻하게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보건 글쓰기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더 성장해 저의 꿈인 '행복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교권 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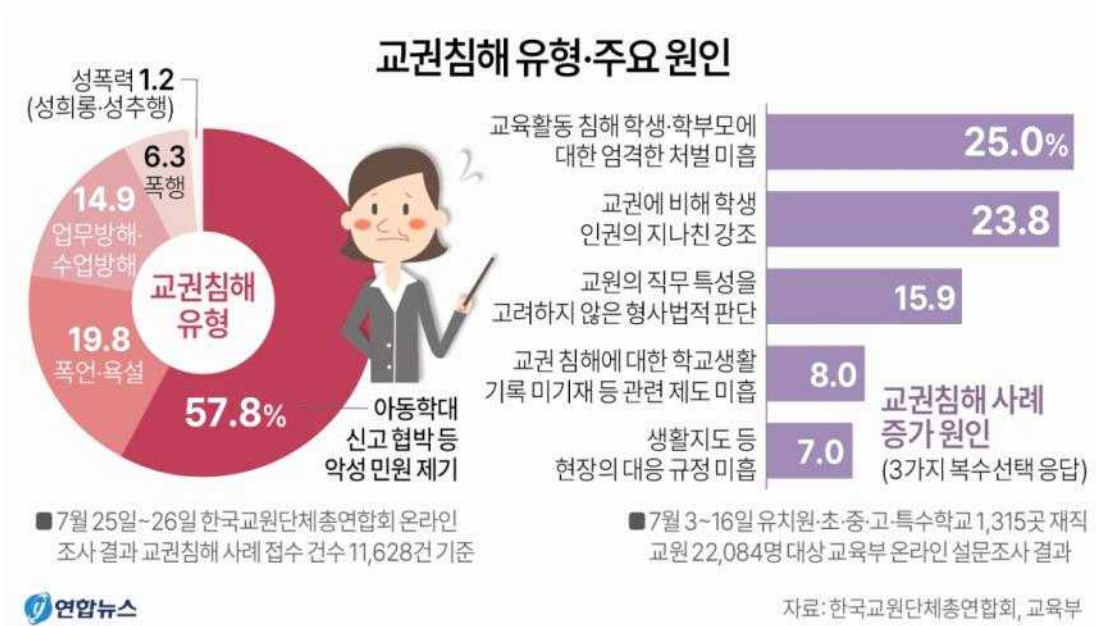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 되었다. 동료 교사들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제를 열었고, 토요일마다 시위를 했다. 일반 시민들은 비극적 선택을 하게 만든 학부모에 대한 공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후 전국의 교사들이 부당한 일들을 표면으로 끄집어 내기 시작하면서 과거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자살한 사건도 재조명됐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이다. (이렇게 교사가 자살을 해야지만 보도가 크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상시에도 뉴스에서 학생이 교사를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제야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조명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 한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작년 5월 유·초·중·고등 교사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8%의 교사가 교직 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권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교사는 7%에 불과했다<sup>1)</sup>. 교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기에 교사들의 인식이 이러할까. 2017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 약 1만 2천 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한국교총에 접수되고 처리된 건수는 약 2,300건이다. 교사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sup> 교총이 시행한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원의 약 60%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일주일에 5번 이상 접한다고 답했다.<sup>3)</sup> 선생님들의 교총을 짐작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권 침해에 맞닥뜨린다. 올해 7월 25~26일 한국교총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경험한 교권 침해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 폭언·욕설, 업무방해·수업 방해, 폭행 등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중 아동학대 관련 악성 민원과 관련된 사건이

- 
- 1) 정소희, 「“교권 존중되고 있다”는 교사 100명 중 7명뿐」, 2022.05.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0>, 2023.11.07.
  - 2) 김동석,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및 과제」, 2022.11.1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103&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36518>, 2023.11.07
  - 3) 충청투데이, 「교권·학습권 침해 설문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 2022.07.26.,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498>, 2023.11.07
  - 4) 이재윤, 「[그래픽] 교권침해 유형·주요 원인」, 2023.08.03., <https://www.yna.co.kr/view/GYH20230803000900044>, 2023.11.07.

약 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에서 사망한 초등학교 A교사는 친구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 부탁했음에도 그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아동 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이 교사의 행위를 '정서학대'로 판단했다.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선생에게 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A교사가 마주한 것은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이었다.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급식실에 누워 버티고 친구를 때리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켜야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sup>5)</sup> 한 유명 웹툰 작가 B는 자신의 자폐 아이를 교사가 학대할까 의심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교사가 했던 말 중 일부 발언을 증거로 본인 아들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그 결과 장애아들을 지도하는 힘든 업무를 하는 특수교육 교사의 직업을 잃게 만들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서야 그 교사는 복직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권 침해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학부모에 의한 신고 협박이다.



6)

다음으로는 폭언, 욕설이 있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익명의 교원 능력 평가를 악용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학부모의 폭언은 거의 일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학력을 거들먹거리며 유치원 교사는 교사도 아니라는 학부모의 전화 통화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도 있다. 임신 중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의자를 던진 학생이 그 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교권을 무시하는 행동도 많다.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본인 핸드폰으로 여교사의 동영상 찍는 학생이 SNS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5) 강수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대전 교사 생전 교권침해 기록 공개」, 2023.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9022600063>, 2023.11.07

6) 4)와 동일한 출처

이처럼 온갖 교권 침해로 교사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까.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교사들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다.<sup>7)</sup> 그러한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다. 또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학교에서 단절되는 자신을 경험했다. 학교 관리자들에게 하소연해봤자 도움은커녕 사건을 축소하라는 부정적인 답변만 듣는 현실이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는 학생, 학부모보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관리자들이 더 힘들 때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이 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술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학생, 학부모의 폭언을 들음으로써 교사들은 본인 스스로 이상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어떠한 교사들은 교직을 내려둘까 고민하기도 한다. 미래 나라의 일꾼이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있는 직업으로 악몽에 빠지는 순간이다.

교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고통 받게 하는 교권 침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생활과 관련한 요인과 사회 배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해 크게 학생과 학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의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로 인한 미숙한 인격적 발달,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접한 폭력성, 가정환경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다.<sup>8)</sup> 시대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찾는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많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환경에서 배운 말과 행동을 학교 현장에서 현실에 실행한다.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욕설을 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교원 능력 평가에 성희롱 성격의 글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매체들에서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초등학교 시절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학교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봉사과 같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인터넷에 재밌고 자극적인 영상들에 비해 시시할 뿐이다. 여기에 부모와의 순탄치 못한 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문제행동은 더 심해진다.

학교의 측면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충남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문에 따르면, 472명 중 약 56%에 달하는 263명이 직접 악성민원을 받아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384명에 달하는 약 80%가 1차적인 학부모 면담이 관리자에 의해 실행되지 않다고 답했다.<sup>9)</sup> 학생들의 교육이 주 업무인 교사가 학부모 민원 창구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학교의 상급자는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역할이건만, 사망한 대전 A교사는 군대에 가 있을 때도 학부모에게 부당한 민원 관련 연락을 받아야만 했다. 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게끔 했다고 한다. A교사는 결국 학부모에게 학생의 치료비를 위해 자기 월급의 일부분을 몇 달 동안 학부모에게 송금했다. 엄연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건만, 학교는 A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의 폐지 여부를 다투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학생

7) 조유경,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외상과 상담을 통한 회복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2020  
8) 김은주,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9) 이일새, 「충남 교사 263명 “악성 민원 직접 받았다”…민원처리시스템 완비 필요성 대두」, 2023.07.30.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484>, 2023. 11.09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권도 존중받지 못 할 것이라는 이유이다.<sup>10)</sup> 한편 교육부가 교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사 4명 가운데 1명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이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sup>11)</sup> 즉, 학생인권조례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를 근거로 교권 침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반면 교권 보호 정책은 미흡하거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조례의 내용은 주로 기본 원칙, 정의, 목적에 관한 원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교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부실했다.<sup>12)</sup>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교육 열풍이 분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 대신 학원을 택했다. 어떤 학생들은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수업시간에는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일타 강사의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 상대적으로 학교 교사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졌다. 사실 대학입시 때문만이 아니다. 몇몇 교사들의 부당한 체벌에 대한 학생의 분노가 쌓이면서 학생 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의 학부모 세대는 과거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을 경험했던 세대였다. 또 학교 내 입시 비리가 학교 불신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교사에 대한 언론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도 한 몫 했다. 사람들은 학생 인권에만 관심을 가졌고, 교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논하자면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정당한 지도행위와 과도한 훈계를 구분해야 한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거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입건만 되어도 직위의 해제가 가능한 조항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동학대법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법 제2조의 4호에서 정의된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재물손괴도 아동학대 범죄로 판단된다. 훈계를 목적으로 한 단순 체벌이 폭행죄가 될 수 있고, 학생의 잘못을 꾸짖는 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할 때 교사가 방어를 위해 행동할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sup>13)</sup> 이와 같은 법조항을 고치고 아동학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교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을 담당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말고도 행정적인 업무를 도맡아 한다. 이 와중에 감정노동의 일종인 학부모 민원까지 상대하면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더 할 것이다. 여러 업무를 맡는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덜기 위해 학교 행정실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따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

10) 이웅, 「[팩트체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2023.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34200518>, 2023.11.09

11) 전동혁, 「교사 25% "교권침해 증가,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원인"」, 2023.08.30.,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580\\_3612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580_36126.html), 2023.11.09

12) 김유나, 「교사 때려도 생기부에 안 남아... 꾸짖으면 학대로 고소 '일쑤'」, 2022.09.07., <https://m.segye.com/view/20220904514941>, 2023.11.20.

13) 정재준, 「교권 추락의 원인과 대책(2)」, 2023.08.21.,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25>, 2023.11.13

발생할 경우 교사가 가해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피해 양상에 따라 형법에 의거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학부모가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권에 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sup>14)</sup>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일 외에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사를 존중하고 학교를 모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비록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교의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생들이 또래와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인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수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가이드이다. 학생들은 이런 교사에 대해 감사함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한다. 학부모 또한 교사를 수업만 하는 강사로 인식해 그들의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대우하여 인격적인 모독이나 명예훼손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바탕에는 사교육보다 학교 교육을 우선시하여 학교와 교사를 필요로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권침해 긴급신고 직통전화 1395번을 내년 1월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상담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공분이 워낙 컸던 만큼 관련 제도가 개선되려는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관심이 한 때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오랜 기간 뿌리 내린 교권 추락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교권침해 문제들을 엄중하게 다루어 교육 현장 분위기를 고쳐나가야만 한다. 학교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존재할 것이며 크고 작은 갈등은 생길 수 있겠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서이초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

14) 조기성·정상우,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 참고문헌

1. 김은주,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2. 조기성·정상우,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3. 조유경,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외상과 상담을 통한 회복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2020.
4. 강수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대전 교사 생전 교권침해 기록 공개」, 2023.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9022600063>, 2023.11.07.
5. 김동석,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및 과제」, 2022.11.16.,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103&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36518>, 2023.11.07.
6. 김유나, 「교사 때려도 생기부에 안 남아... 꾸짖으면 학대로 고소 '일쑤'」, 2022.09.07., <https://m.segye.com/view/20220904514941>, 2023.11.20.
7. 이용, 「[팩트체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2023.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34200518>, 2023.11.09.
8. 이일새, 「충남 교사 263명 “악성 민원 직접 받았다”...민원처리시스템 완비 필요성 대두」, 2023.07.30.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484>, 2023.11.09.
9. 이재윤, 「[그래픽] 교권침해 유형·주요 원인」, 2023.08.03., <https://www.yna.co.kr/view/GYH20230803000900044>, 2023.11.07.
10. 전동혁, 「교사 25% "교권침해 증가,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원인"」, 2023.08.30.,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580\\_3612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580_36126.html), 2023.11.09.
11. 정소희, 「“교권 존중되고 있다”는 교사 100명 중 7명뿐」, 2022.05.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0>, 2023.11.07.
12. 정재준, 「교권 추락의 원인과 대책(2)」, 2023.08.21.,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25>, 2023.11.13
13. 충청투데이, 「교권·학습권 침해 설문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 2022.07.26.,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498>, 2023.11.07.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유\*하

이번 과학기술글쓰기 강의를 통해 칼럼을 쓰고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운 좋게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과학기술글쓰기 강의는 평소에 놓치기 쉬웠던 글쓰기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글을 직접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교수님의 친절한 피드백과 함께 칼럼을 써나아갈 때 글쓰기 실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칼럼을 5페이지 내외로 쓰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내가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나니 글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나의 경우 교권침해를 주제로 선정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뜨거운 화제인만큼 관련 뉴스나 논문이 많아서 글쓰기가 수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칼럼의 초고를 쓰고 나면 조원들과 같이 공유하며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도 거쳤다. 조원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칼럼을 쓸 수 있어 좋았다. 또 다른 조원들의 창의적인 칼럼들도 읽으며 나 또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칼럼 외에 다른 종류의 글쓰기도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권침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쓰면서 나 또한 이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정돈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칼럼을 읽는 누군가도 교권침해에 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과학기술글쓰기라는 과목이 내게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친절한 피드백을 주신 교수님과 조원들에게도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이 수업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글을 쓰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도움이 되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뜻깊었다.

## **영상 속 그들도 웃고 있을까요? :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 지적과 시청자 역할**

### **I. 서론**

### **II. 본론** .....

#### 1.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자 분석 .....

- 1)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 이용 동기 및 효과
- 2) 펫튜브 시청자의 변화 가능성

#### 2.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및 콘텐츠 분석 .....

- 1) 반려동물 유튜브 제작 주체
- 2) 인기 콘텐츠 분석
  - (1) 과도한 상황 설정 : 챌린지 열풍
  - (2)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예상되는 문제 : ‘냥줍’, ‘간택’ 콘텐츠
  - (3) 품종 동물 및 펫숍 분양 동물 노출

#### 3. 펫튜브 속 댓글과 시청자 역할

### **III. 결론** .....



## I. 서론

지난 3년간 COVID19로 인해 대면접촉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나타났다. <한국미디어패널 조사>를 활용한 연구(오윤석, 2023)<sup>1)</sup>에서 2022년 OTT 이용률이 85.5%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OTT 플랫폼 중 유튜브가 94.1%의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이용자층이 확보된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 유형 중 꾸준히 높은 수요를 보이는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인 ‘펫튜브(pet+youtube)’를 주목해 보았다.

반려동물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확산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근대화와 도시화로 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소유물이 아닌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변화에 기인한다.<sup>2)</sup> ‘뷰니멀(view+animal)족’의 등장 또한 펫튜브 확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뷰니멀족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펫(pet)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들이다.<sup>3)</sup> 이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콘텐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간접 체험을 즐기며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다.

펫튜브는 뷰니멀족의 대리 양육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전문 훈련사와 수의사의 유입으로 훈련법 및 응급상황 대처법 등 현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나 잠재적 양육 가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 유튜브버들의 유기견 임시 보호, 입양 등의 콘텐츠로 믹스종과 유기동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도 분명하다.

하지만 펫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가 수익성이 있는 플랫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반려동물 유튜브가 동물 상업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펫튜브의 확산 이후 반려동물을 수익 실현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반려동물 도구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일부 반려동물 유튜브 운영자들이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콘텐츠나 과도한 설정으로 부자연스럽고 동물복지에 위배 되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더 큰 문제는 영상 속 반려동물에 직접적 폭행이 가해진 것이 아닌 경우 시청자들은 당황하는 반려동물의 반응을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동물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유기동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알려지는 한편 펫튜브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품종 동물과 펫숍에서 분양된 반려동물이 출연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이 글을 통해 건강한 펫튜브 운영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펫튜브로 대리만족 목적을 이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튜브 촬영이 아니어도 동물이 했을 행동인가를 고민하며 영상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자극적인 영상을 문제의식 없이 소비할 경우 조회 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계속해서 동물 학대를 포함한 콘텐츠가 영상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튜브 속 흥미로운 콘텐츠가 동물의 습성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모방 위험을 차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 제기 댓글을 다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1) 오윤석,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행태 비교」, 『KISDI STAT Report』 23-0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2-3쪽.

2) 양문희,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내용분석: 제작 주체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 31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112쪽.

3) 문선아, 뷰니멀족, 반려동물의 관심 증가인가 인간의 이기심인가?, 시선뉴스, 2017. 07. 10., <<https://www.sis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0>>.

본문에서는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 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펫튜브 시청자를 분석하고 주 시청자층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후 펫튜브 제작 주체를 분석한 논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비중이 낮은 펫튜브 영상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기 콘텐츠 및 시청자 댓글 분석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작자와 무지한 시청자의 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시청자 역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II. 본론

### 1.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자 분석

#### 1)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 이용 동기 및 효과

전반적인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 동기는 최근 연구<sup>4)</sup>를 종합한 결과 정보 습득, 오락, 시간 보내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기가 유튜브 채널 이용과 관계가 있었다. 반려동물 유튜브의 경우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 동기와 작은 차이를 보였다. 조아현(2023)<sup>5)</sup>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 습득과 오락 동기 면에서 기존 유튜브 콘텐츠 이용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리만족’, ‘정서적 치유’와 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유튜브 시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의 효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전종우(2019)<sup>6)</sup>의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이 시청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시청하는 콘텐츠의 반려동물과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높아지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즉,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직접 양육하는 듯한 입장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간접 양육의 경험이 직접 양육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반려동물 유튜브는 정보추구, 오락(즐거움/휴식)이라는 일반적인 미디어와 유튜브 이용 동기뿐 아니라, ‘대리만족’, ‘정서적 치유’와 같은 심리적인 차원의 동기를 포함하며, 실제 시청 효과도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뷰니멀족’의 증가가 펫튜브 확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현재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영상을 봄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2) 펫튜브 시청자의 변화 가능성

위의 연구 결과와 뷰니멀족의 정의를 토대로 반려동물 유튜브의 주 시청자층인 뷰니멀족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뷰니멀족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 식구들의 반대, 동물과 관련된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접한다. 또한, 반려동물 유튜브를 통해 정보 습득보다는 ‘심리적 치유’의 목적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뷰니멀족이 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

4) 이효성, 「유튜브의 이용동기에 대한 탐색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8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77~99쪽.

5) 조아현,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 시청 동기가 채널 구독 결정 및 반려동물 문화예술축제·박람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654~655쪽.

6) 전종우, 「유튜브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정향이 시청에 미치는 영향」, 『옥외광고학연구』 18권 2호, 단국대학교, 2021, 5~13쪽.

과 애정을 바탕으로 영상을 시청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팟튜브 시청자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했다. 주 시청자층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태도 변화의 핵심적 요소로 보았다. 반려동물 유튜브 특성상 시청자는 영상제작자가 아닌 영상 속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기본이다. 이들은 자신이 무심코 접했던 영상, 귀엽다며 ‘좋아요’ 누르고 지나친 영상이 사실 적절하지 않은 정보이며,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과한 설정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제작한 영상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영상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청자가 팟튜브 속 영상의 문제점을 접하게 되는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시청할 때 콘텐츠가 반려동물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팟튜브 시청자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 2.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및 콘텐츠 분석

### 1) 반려동물 유튜브 제작 주체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의 제작 주체는 양문희(2023)<sup>7)</sup>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논문에서는 ‘애완동물/동물’ 카테고리의 상위 100개 채널 중 팟튜브에 적합하지 않은 8개 채널을 제외한 92개 채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팟튜브의 제작 주체를 ‘방송사/매체사’, ‘반려동물 관련업 종사자’, ‘수의사’, ‘개인’ 총 4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92개 채널 중 약 90%에 해당하는 83개 채널이 개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이었으며, 방송사/매체사 채널은 4개, 수의사 채널은 3개, 훈련사/미용사 채널은 2개로 구독자 수 100위권에는 소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반려동물 관련 유튜브 채널의 제작 주체 및 인기 채널이 개인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이 정보 채널로 이용되고 있지만, 신뢰도는 낮다는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개인 유튜버 채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을 보여주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기에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성에 근거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의사나 훈련사 채널은 소수에 불과하고, 개인 유튜버 채널이 팟튜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이 전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정보의 신뢰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제작한다. 신뢰도가 낮은 개인 유튜버의 영상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뷰니멀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은 점점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게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노출되어 잘못된 정보를 얻기 쉽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기 콘텐츠 분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극적 영상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시청자의 모습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모방 위험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인기 콘텐츠 분석

#### (1) 과도한 상황 설정 : 챌린지 열풍

일반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연출은 필수적이다. 시각적으로 신기하고 특이한 영상일수록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팟튜브 또한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이

7) 양문희, 앞의 글, 121~129쪽.

다. 이에 힘입어 나타난 것이 자극적 연출이 가미된 ‘챌린지’ 열풍이다.<sup>8)</sup> 챌린지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두고 반려동물이 도전하도록 하는 콘텐츠이다. 비닐 랩으로 벽을 만들어 일그러진 얼굴로 장애물에 뛰어들게 하는 ‘투명 벽’ 챌린지와 높이 쌓은 휴지를 넘도록 하는 ‘휴지 벽’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동물권 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79개의 유튜브 계정에서 413개 영상의 내용을 분석했다. <카라>는 장애물 피하기, 투명 벽 부딪히기, 인형탈 쓰고 놀라게 하기 등의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계정에서 영상이 올라왔으며 동물이 불편해하는 신호를 보내더라도 촬영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했다<sup>9)</sup>.



휴지벽에 도전하는 강아지 (Toilet Paper wall Challenge)  
속삭이는몽자 · 조회수 450만회 · 3년 전



(ENG) 투명벽 설치 강아지반응ㅋㅋㅋ (invisible wall challenge)  
속삭이는몽자 · 조회수 1190만회 · 4년 전

<자료1> 유튜브 ‘속삭이는몽자’ 채널 휴지벽 챌린지<sup>10)</sup>

<자료2> 유튜브 ‘속삭이는몽자’ 채널 투명벽 챌린지<sup>11)</sup>

위의 <자료1>, <자료2>에서 알 수 있듯이 챌린지 영상은 기본적으로 썸네일과 제목으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짧고 자극적인 챌린지 영상 특성상 연출 없이 반려동물 일상을 촬영한 영상에 비해 조회 수가 높은 편이다. 특히 <자료2>의 ‘투명 벽’ 챌린지 영상 조회 수는 1190만 회로 ‘속삭이는몽자’ 채널의 인기 동영상 1위이다. 같은 채널의 일상 영상 조회 수가 10만 회 안팎인 것을 통해 챌린지 영상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 촬영을 위한 과도한 상황 설정은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 동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서국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귀엽거나 신기해 보이는 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결과를 낳으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sup>12)</sup>라고 경고했다.

(2)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모방 위험 : ‘산책냥’, ‘냥줍’ 콘텐츠 등

펫튜브의 인기 콘텐츠 중에는 동물의 습성에 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책냥’, ‘냥줍’ 콘텐츠가 그 예다. 이러한 콘텐츠는 고양이의 습성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는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동물이다. 야외 산책은 고양이의 영역 개념에 혼란을 주고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 고양이 행동 전문수의사 나응식은 “반려동물과 산책을 원한다면 강아지를 추천한다”<sup>13)</sup>라고 말하며 고양이의 습

8) 이경은, ‘펫튜브’ 열풍 속 미디어 동물 학대 논란, 여성동아, 2022. 11. 09., <<https://woman.donga.com/issue/article/all/12/3738814/1>>.

9) 최수진, ‘펫튜브’ 속 반려동물이 위험하다, 더팩트, 2020. 12. 20., <<https://news.tf.co.kr/read/livingsculture/1832592.htm>>.

10) 속삭이는몽자, 휴지벽에 도전하는 강아지 (Toilet Paper wall Challenge), 유튜브, 2020. 04. 22., <<https://www.youtube.com/watch?v=sXhsePfNcSc>>.

11) 속삭이는몽자, 투명벽 설치 강아지 반응 ㅋㅋㅋ (invisible wall challenge), 유튜브, 2019. 07. 13., <<https://www.youtube.com/watch?v=CCXLfHIp6Uo>>.

12) 이경은, 앞의 글.

성을 무시한 채 굳이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보호자의 욕심을 지적했다. 길고양이 구조 콘텐츠인 ‘냥줍’, ‘간택’ 또한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이다. 고양이는 생후 13주 이내에 사람과 지내지 않으면 사회성 부족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충동적인 입양은 고양이와 보호자의 생활 모두에 어려움이 된다. 낯선 냄새가 묻은 고양이가 다시 원래의 영역에 돌아갈 수 없는 점 또한 고려하면 함부로 집에 데려오는 것이 고양이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더불어 ‘산책냥’, ‘냥줍’ 콘텐츠 등의 유행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은 모방 위험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시청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 ‘산책냥’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고양이에게 야외 산책을 시도하는 보호자와 예비 보호자가 늘고 있다. 이는 <자료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3>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산책냥’을 입력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질문이다.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로 자신의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냥줍’이나 ‘산책냥’ 콘텐츠는 이러한 예민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기대치를 고양이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들은 관련 영상을 시청할 때 고양이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료3> 네이버 카페 ‘산책냥’ 관련 질문<sup>14)</sup>

### (3) 품종 동물 및 펫숍 분양 동물 노출

반려동물이 가진 서사는 펫튜브의 인기 요소이다.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진 구독자들에게 유기동물 입양 콘텐츠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갑수목장’ 채널 운영자가 펫숍에서 분양받은 자신의 고양이와 개에게 유기동물 서사를 입힌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갑수목장’ 채널은 수의대생이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며 구독자가 5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동물 학대로 논란이 된 이후 위 채널 운영자는 수사기관에서 구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펫숍에서 분양받은 동물에 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스토리를 연출했다고 진술했다.<sup>15)</sup> 이렇듯 인기 채널에서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품종 동물과 펫숍에서 분양된 동물에 노출된다.

시청자들이 인기 채널에서 분양 동물에 노출되는 것은 펫숍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이어진다. 유튜브 숏츠에서 5,6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킹받는 김울 일상’ 채널의 운영자는 SNS를 통해 펫숍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특별히 원하는 종이 있고 혈통 있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펫숍에서 분양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13) 사피엔스 스튜디오, 나옹식 수의사 | ‘야옹’은 간택의 신호?! 길고양이 함부로 냥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어쩌다어른D], 유튜브, 2022. 02. 19., <<https://www.youtube.com/watch?v=HOR-jy2PVK4&feature=youtu.be>>.

14) 리제이2, 산책냥????, 네이버 카페, 2023. 06. 16., <[https://cafe.naver.com/6655happyclub/1259391?art=ZXh0ZXJlYXVwY2VydmljZS1uYXZlci1zZWYy2gtY2FmZS1wY2VybCI6IjY2NTVoYXBweWNsdWliLCJhcnRpY2xlSWQwOjE5NTkzOTESlzc3VIZEF0IjoxNzAyMTA0NDIwNzA3fQ.YP1jRw3\\_08V6FdJlFN\\_mtVmplHVtdyKA9yIzYo9Qehs](https://cafe.naver.com/6655happyclub/1259391?art=ZXh0ZXJlYXVwY2VydmljZS1uYXZlci1zZWYy2gtY2FmZS1wY2VybCI6IjY2NTVoYXBweWNsdWliLCJhcnRpY2xlSWQwOjE5NTkzOTESlzc3VIZEF0IjoxNzAyMTA0NDIwNzA3fQ.YP1jRw3_08V6FdJlFN_mtVmplHVtdyKA9yIzYo9Qehs)>.

15) 이진석, [단독]갑수목장, 동물학대·후원금 사기 ‘무혐의’...‘구독자 속였지만’, 서울경제, 2022. 02. 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7AAOCCI>>.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의견이다. 시청자들은 영상 속 반려동물의 외형에 끌려 특정 종을 원하게 되고, 이러한 답변을 통해 원하는 종을 위해 펫숍에서 분양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 3. 펫튜브 속 댓글과 시청자 역할

‘미디어 동물 학대’의 주요 특징으로는 댓글이 있다. 반려동물 영상의 경우 ‘귀엽다’ 혹은 ‘나도 키우고 싶다’라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유튜브에서 동물 관련 인기 계정은 주로 ‘품종’ 동물이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을 ‘귀여움’으로 소비하는 댓글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sup>16)</sup>라고 지적했다. 유행하는 챌린지 영상을 요구하는 등 동물 학대에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댓글이 다음 영상 제작으로 연결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유튜브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조회 수를 높이고, 조회 수가 광고 등으로 영상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하는 영상을 감시함으로써 동물 경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는 시청자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시킨다. 시청자들이 소비하지 않는 영상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펫튜브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 댓글을 달고 후원을 중단하는 등 자발적 행동으로 제작자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자, 특히 ‘랜선집사’라 불리는 뷰니멀족이 펫튜브 콘텐츠를 오락거리로 넘기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본 글은 시청 동기에 따른 펫튜브 시청자의 특징과 인기 채널 및 콘텐츠 분석의 결론으로 시청자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보 습득, 오락의 동기가 두드러지는 전반적인 유튜브 콘텐츠들과 달리 반려동물 유튜브는 대리만족 등 심리적 효과가 주된 동기이다. 심리적 치유의 목적으로 펫튜브를 시청하는 뷰니멀족의 증가는 주 시청자층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청자 특징을 종합하여 시청자들이 펫튜브 속 콘텐츠가 반려동물에 해가 됨을 인지하면 영상에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

반려동물 유튜브는 약 90%의 채널이 일반 유튜버를 통해 운영된다. 전문가 비중이 낮은 펫튜브 특성상 정보 제공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비율이 높다. 조회 수를 위해 제작된 자극적 영상과 무지한 시청자들의 유입으로 펫튜브 속 과도한 상황 설정, 올바르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재미로 넘기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청자들이 각종 콘텐츠를 비판 의식 없이 시청하고 있는 현황으로 일상 영상보다 현저히 높은 조회 수를 보인 ‘휴지 벽’, ‘투명 벽’ 등의 챌린지 영상을 제시했다. 챌린지 영상을 비롯하여 ‘산책냥’, ‘냥줍’과 같은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것은 모방 위험이 따른다.

영상제작자는 수익을 위해 조회 수가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동물을 우스꽝스

16) 동물권행동 카라, [모니터링 결과1] 유튜브 413개 동물 영상 모니터링했습니다!, 2020. 07. 30.,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3310>>.

럽게 표현하는 영상이 인기 동영상으로 소비될 경우 더욱 자극적인 형태로 영상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실제 소비자인 시청자가 문제 제기 댓글을 달고 후원을 중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건강한 펫튜브 운영을 위해서는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도 반려동물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며 반려동물 관련 채널의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이 건전한 반려동물 채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동물 감수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논저

양문희,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내용분석: 제작 주체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3호, 상지대학교, 2023.

오윤석,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행태 비교」, 『KISDI STAT Report』 23-0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이효성, 「유튜브 이용동기에 대한 탐색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8권 3호,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장형우, 「유튜브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정향이 시청에 미치는 영향」, 『옥외광고학연구』 18권 2호, 단국대학교, 2021.

전종우, 「유튜브 이용 동기와 콘텐츠 정향이 시청에 미치는 영향」, 『옥외광고학연구』 18권 2호, 단국대학교, 2021.

조아현,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 시청 동기가 채널 구독 결정 및 반려동물 문화예술축제·박람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 2. 인터넷 자료

김효정, 랜선이모, 랜선맘, 랜선집사... 1인 가구가 부른 랜 가족 시대, 주간조선, 2023. 11. 12.,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7>>

동물권행동 카라, [모니터링 결과1] 유튜브 413개 동물 영상 모니터링했습니다!, 2020. 07. 30.,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3310>>.

리제이2, 산책냥????, 네이버 카페, 2023. 06. 16., <[https://cafe.naver.com/6655happyclub/1259391?art=ZXh0ZXJlYXWwtc2VydmlljZS1uYXZlci1zZWZyY2gtY2FmZS1wcm9u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yYXZlVHlwZSI6IkpBRkVfVGVJMIiwiaWF0Ij0iY2FmZVYybCI6IjY2NTVoYXBweWNsdWliLCJhcncR5Y2xlSWQiOjE5NTkzOTEsImlzc3VlZEF0IjoxNzAyMTA0NDIwNzA3fQ.YP1jRw3\\_08V6FdIJFN\\_mtVmplHVtdyKA9yIzYo9Qehs](https://cafe.naver.com/6655happyclub/1259391?art=ZXh0ZXJlYXWwtc2VydmlljZS1uYXZlci1zZWZyY2gtY2FmZS1wcm9u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yYXZlVHlwZSI6IkpBRkVfVGVJMIiwiaWF0Ij0iY2FmZVYybCI6IjY2NTVoYXBweWNsdWliLCJhcncR5Y2xlSWQiOjE5NTkzOTEsImlzc3VlZEF0IjoxNzAyMTA0NDIwNzA3fQ.YP1jRw3_08V6FdIJFN_mtVmplHVtdyKA9yIzYo9Qehs)>.

문선아, 뷰니멀족, 반려동물의 관심 증가인가 인간의 이기심인가?, 시선뉴스, 2017. 07. 10.,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0>>

사피엔스 스튜디오, 나응식 수의사 | '야옹'은 간택의 신호?! 길고양이 함부로 낚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어쩌다어른D], 유튜브, 2022. 02. 19., <<https://www.youtube.com/watch?v=HOR-jy2PVK4&feature=youtu.be>>.

속삭이는몽자, 휴지벽에 도전하는 강아지 (Toilet Paper wall Challenge), 유튜브, 2020. 04. 22., <<https://www.youtube.com/watch?v=sXhsePfNcSc>>.

속삭이는몽자, 투명벽 설치 강아지 반응 ㅋㅋㅋ (invisible wall challenge), 유튜브, 2019. 07. 13., <<https://www.youtube.com/watch?v=CCXLfHlp6Uo>>.

이경은, '펫튜브' 열풍 속 미디어 동물 학대 논란, 여성동아, 2022. 11. 09., <<https://www.oman.donga.com/issue/article/all/12/3738814/1>>.

이진석, [단독]갑수목장, 동물학대·후원금 사기 '무혐의'... '구독자 속였지만', 서울경제, 2022. 02. 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7AAOCCI>>.

최수진, '펫튜브' 속 반려동물이 위험하다, 더팩트, 2020. 12. 20., <<https://news.tf.co.kr/read/livingculture/1832592.htm>>.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기계·스마트·산업공학부(스마트팩토리전공) 윤\*영

지난 2학기 정우진 교수님의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은 각 글에 따른 이론 설명이 이루어진 후 글쓰기 실습, 집단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요약과 논평, 논설문, 자기소개서 총 3개의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에 제출한 작품은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 속 학대를 소재로 한 논설문입니다.

글쓰기 절차와 표절, 인용, 주석 등을 다룬 글쓰기 윤리를 배운 후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논설문 쓰기 실습은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글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주제를 정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서론을 적지 못해 시간이 부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서론-본론-결론의 키워드만 생각하고 무작정 서론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투박하고 억지로 쓰인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강의 내용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독자는 누구인지, 주제가 독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개요 짜는 일부러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논설문을 쓸 때 가장 큰 노력을 들였던 부분이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론의 목차인데, 강의를 통해 본론에는 예상되는 문제, 문제의 원인, 해결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시청자층 무지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 관련 콘텐츠가 제작됨을 알림으로써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론의 목차를 반려동물 유튜브 시청자 분석을 문제의 원인, 반려동물 유튜브 인기 채널 및 콘텐츠 분석을 예상되는 문제, 팟튜브 속 댓글과 시청자 역할을 해결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은 얻은 것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평소 실험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글을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내 생각을 적어내는 것은 한 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6쪽 이상 분량의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확한 각주를 달고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쓰며 얼마나 많은 표절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 동물 학대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과제로나마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수님의 정성 어린 피드백 덕분에 짜임새 있는 글을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자기 치유 방침 마련을 위한 스트레스 요인 파악

### 목차

#### 1. 서론

#### 2. 본론

- 1) 내가 생각한 나의 스트레스 상황
- 2) 타인이 본 나의 스트레스 상황
- 3) 검사를 통해 탐색한 스트레스 요인
  - 4) 스트레스 요인 해석
  - 5) 자기 치유법 탐색

#### 3. 결론

- 1) 탐색 결과 정리
- 2) 탐색의 의의와 한계

<참고 문헌>

## 1. 서론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회복하거나 축적해간다. 문요한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와 상대와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고 말한다.<sup>1)</sup> 따라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만이 조절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그러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란 비난하는 말, 무시 받는 상황,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 등의 여러 스트레스 상황 중 내 성격에 기반하여 특히나 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기 치유법을 학술 자료와 책을 활용해 탐색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회복 방침을 마련한다. 더 나약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은 각자 다르기에 이 조사와 탐색이 다른 이들의 스트레스 요인 파악과 회복 방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스트레스 요인과 척도를 조사하기 위해 Koss 스트레스 요인 검사와 에니어그램 유형별 스트레스 상황을 탐색한다. 또한 나의 스트레스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고 친구 3명과 부모님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표현했던 상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을 통해 탐색한다. 이후에 나에게 적절한 자기 치유법을 탐색하기 위해 논문과 책을 활용하고 적용할 만한 방안을 선택하여 회복 방침을 마련한다.

## 2. 본론

먼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이전과 현재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생각하거나 탐색해보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 목록화한다. 목록화 한 표를 통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1) 내가 생각한 나의 스트레스 상황



[그림 1] 내가 생각한 나의 스트레스 상황 마인드맵

나	타인	환경
1. 서툰 일 처리	1. 조별 활동 무임승차	1. 수면
2. 낮은 성적	2. 나만의 쉬는 시간 방해	2. 출근길 버스 등교

[표 1] 그림 1의 마인드맵 수치 순 목록화

마인드맵 [그림 1]을 통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적어 보았고, 1부터 10까지의 빨간색 숫자로 스트레스의 크기를 수치화해 보았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황은 조별 활동에서 혼자만 일을 떠맡았을 때와 개인적으로 가지는 쉬는 시간을 방해받은 때였다. 자신에 의한 상황, 타인에 의한 상황, 환경에 의한 상황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상황부터 2개씩 [표 1]에 목록화했다.

1) 문요한,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해냄, 2022, 204쪽.

## 2) 타인이 본 나의 스트레스 상황

친구 3명과 가족들에게 “내가 평소에 화내거나 짜증을 냈던 상황에는 무엇이 있어?”라고 질문하였다. 공통으로 나온 대답은 할 일이 많거나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의 결과물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할 경우 짜증을 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조별 활동에서 조원들이 자신의 몫을 하지 않을 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하게 되는 상황에서 화를 냈다고 답하였고, 그 외에도 나를 무시하는 태도와 하기 싫은 일을 빨리 처리하라고 할 때 등의 대답이 나왔다.

## 3) 검사를 통해 탐색한 스트레스 요인

### (1) Koss 직무 스트레스 검사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탐색하기 어려운 학원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원에서의 나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Koss 직무 스트레스 검사<sup>2)</sup>를 실시했다. 전체적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관계 갈등과 조직 문화의 문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이기에 조직 문화에 관련된 수직적인 분위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업무 관련 고충을 이해해주거나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직무 중에 관계 갈등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에니어그램

#### ① 에니어그램과 스트레스 요인의 연관성

에니어그램은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오현수, 2005)<sup>3)</sup> 또한, 에니어그램은 자신의 성격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성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제한된 체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준다.(Kim YW, 2007)<sup>4)</sup> 따라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에니어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겪고 있던 스트레스와 그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② 에니어그램 테스트 결과 및 스트레스 상황

에니어그램 테스트<sup>5)</sup> 결과 2번 타입이 나왔고, 1번 날개를 가진 2번 유형으로 결론 내렸다.<sup>6)</sup> 에니어그램 2번 유형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몰두하지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들은 남을 추켜세워 주면서 내심으로는 자신도 되돌려 받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때 이들은 끊임없는 험담과 잔소리로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조장하는<sup>7)</sup> 특징이 있다. 에니어그램으로 보았을 때 2번 유형인 나는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2) 정신건강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다인에서 제공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3) 성은옥, 남현아,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별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21권 제 2호,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2018, 14쪽.

4) 강미정, 하양숙, 「간호사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研究』 제 18권 제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0, 8쪽.

5) "에니어그램의 지혜" 책을 집필한 미국 리소-허드슨 연구소의 공식 자격증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에니어그램 연구소인 에니어그램해라 연구소의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6) 에니어그램의 ‘날개’는 개인이 보았을 때 더 맞는 것으로 선택한다. 2번 유형의 날개는 1번과 3번이 있으며 1번의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욕망’, ‘1번 날개 유형보다 진지하다’라는 특성을 근거 삼아 1번 날개를 가진 2번 유형으로 결정하였다.

7) 이중의, 「에니어그램의 심신치유적 적용」,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신과학회, 2013, 84쪽.

그와 반대로 남의 필요에 몰두하면서도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자만심을 가져 스트레스를 받는다.

#### 4) 스트레스 요인 해석

나와 타인이 생각한 공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는 조별 활동에서 피해를 본 상황, 결과물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무시 받는 말과 행동이 있었다.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내가 참여하는 결과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 혹은 만든 결과물에 대해 비난받는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Koss 직무 검사 결과를 통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를 이루었으며, 에니어그램에서는 남을 돕고 그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나는 타인이 주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며, 타인을 위하고 너그럽게 보지만 그에 비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 5) 자기 치유법 탐색

타인이 주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고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한 자기 치유법이 필요하다. 나에게 집중하고 관찰하여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본연의 모습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8)</sup> 또한,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 (1) 마음의 고통 관찰

'마음 챙김과 몸 챙김'은 정신적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난. 호흡과 신체의 감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관찰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길러지면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는 것에 가깝게 되며 생각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sup>9)</sup> 이 방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 변화 관찰을 통해 내 감정이 아닌 상황과 상태를 그대로 지켜보며 상황을 감정에 전이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당시의 상황과 나의 반응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가끔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곤 하는 나에게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치유법이다.

##### (2) 자기 친절의 만트라 만들기

자기 계발 도서를 보면 '나는 나를 좋아해!', '잘하고 있어!'와 같이 자신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강조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는 더 큰 고통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자기 친절에서 비롯된 자기 격려이다. 일상에서 자기에게 건네고 싶은 자기 친절 문구를 만들고, 언제 할지 정해놓은 뒤 따듯한 말투로 천천히 말을 건넨다.<sup>10)</sup> 나는 이 책에서 들어준 예시 중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을 문구로 정하였고 실제로 저녁에 나를 다독이는 몸짓과 함께 천천히 말을 건네니, 조별 과제와 아르바이트 중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자기 비하를 하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8) 주혜주 외 10명, 『성찰을 통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문각, 2022, 30쪽.

9) 문요한, 앞의 책, 181-184쪽. 감각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면 그 감정에 대해 들여다보기보다 부정하고 외면하려 한다. 그렇기에 감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10) 위의 책, 239-245쪽. 문구는 당위형보다 소망형이 좋으며 말을 건넬 때 스킨쉽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말을 한 뒤에 내 감정을 글로 기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 (3) 돌봄의 역설

돌봄에도 역설이 있다. 자기를 돌볼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 무언가를 위해 작은 돌봄을 베풀면 자기를 돌볼 힘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다.<sup>11)</sup> 예를 들면 봉사 활동과 작은 식물을 기르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학업과 봉사 활동을 병행했었는데, 봉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부지런히 살게 되고 더 활기찬 마음가짐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치유 방안 또는 스트레스 예방 방안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 3. 결론

### 1) 탐색 결과 정리

타인에게 무시 받거나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과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치유를 위해 중요한 자신의 상태 관찰과 내면의 소리 경청을 위해 자기 치유 방침을 마련해보았다. 평소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돌봄의 역설'을 생각하여 식물을 키우거나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호흡과 신체의 감각을 관찰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지나가도록' 하고,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문구를 활용하여 매일 자기 전에 자기 친절의 만트라를 활용해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다독이도록 한다.

### 2) 탐색의 의의와 한계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미리 확인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할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뿐만 아니라 자기 치유법에 대해 더 탐색하고 치유 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대처할 수 있다. 자기 치유법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의 전반이 나를 위해 고민하고 위로하는 과정이기에, 이 보고 자체가 자기 치유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기 치유 탐색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치유 방침을 긴 시간 동안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안을 적용해보며 보완이 필요하고,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치유 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 객관적인 검사도 활용하였으나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

---

11) 위의 책, 256-260쪽

## <참고 문헌>

강미정, 하양숙, 「간호사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研究』 제 18권 제 1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10.

문요한,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해냄, 2022.

성은옥, 남현아,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별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 21권 제 2호,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2018.

이종익, 「에니어그램의 심신치유적 적용」,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신과학회, 2013.

주혜주 외 10명, 『성찰을 통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문각, 2020.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간호학과 김\*람

김준희 교수님의 의료보건글쓰기 수업을 수강하고 작성한 자기 탐색 보고서입니다. 학기 초 중반에는 윤리적 글쓰기와 자기 탐색의 방법과 의의에 대해 학습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기 후반에 자기 탐색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작성부터 자료 조사, 본문 작성, 결론 작성, 형식 점검 등의 과정을 한 달(4주치 수업)에 걸쳐 진행하였고, 매주 과제를 해오면 교수님께서 거의 모든 학생의 과제물을 열어 보시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피드백을 꼼꼼하게 주시고 다른 학생들의 글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의 형식을 이렇게 세세하게 배우고 출처를 기록하는 옳은 방법을 배워 직접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평소 글을 쓸 때 번호 매기기와 출처 표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었던 것, '또, 그리고, 매우' 등과 같은 단어를 많이 반복해 쓰고 있던 것 등의 좋지 않은 버릇을 알 수 있었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한 것들을 통해 글을 쓸 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점검하고, 제출 전에 자주 보고 다듬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앞으로의 글쓰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청년 자살률 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

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20~30대 청년 자살률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총 1만 3352명으로, 이 가운데 20~39세 청년이 25.6%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22.6%)과 비교하면 3.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sup>1)</sup>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 판단한 결과, 자살률 증가에 대한 주된 원인을 불안정한 고용 상태, 경쟁 심화로 인한 우울감 등의 '사회적 측면'과 소득수준과 물가로 인한 생활고와 같은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탐구하고, 더하여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 측면부터 살펴보았다. 청년 자살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과적 문제(54.4%)로,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와 제한된 고용시장으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청년들은 학업의 장기화와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 진입이 늦어져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는 김진현의 연구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SNS 교류가 활발한 한국 사회의 특이점에서 비롯된다. SNS 교류와 상향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가치 평가는 자존감 절하를 자아내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의 지위에 따른 기회 불평등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자신의 삶을 계급화하곤 한다. 이러한 '수저 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다. "이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이고, '공공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1) 김정은, 「하루 4.3명꼴 '세상 등지는 20대...' 그중 19%는 '생활고'였다. », 『2023 청년 부채 리포트 <하>』, 서울신문, 2023.08.24.

2) 본 에세이를 작성하며 인용한 주된 자료는 신문기사와 학술 논문이며, 20~39세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글에서 칭하는 청년층은 20~39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녀를 의미하나 참고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경우 추가로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3) 안계한 · 김민희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020, 458쪽.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1년 보고에 의하면 18~34세 청년 10명 중 1명 이상(13.4%)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체적 질병과 더불어 우울감을 자아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는 건강 불평등에서 주로 설명하는 사회구조 내에서의 사회심리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동준의 『사회이론』에 따르면 사회구조 내의 자원의 불공정 상태가 개인에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불건강한 심리상태가 된다고 한다. 망라하자면, 사회적 고립감, 불신의 문제, 그리고 자원의 불공정 상태 등의 종합적인 요인들이 청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년층이 놓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태가 바로 자살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이해보다는 청년층이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놓인 채 느끼는 감정과 인식, 심리정서적 반응이 자살을 부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년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비관과 사회적 고립의 요인들이 중첩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다.

청년층 자살의 원인에 경제생활 문제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5명 중 1명(18.9%)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청년층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 된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크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경제 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15~29세 청년이 25.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이는 청년들의 평균 소득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보며, 그 근거는 통계청이 해마다 내놓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있다.

20대 청년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2018년 3533만 원에서 2022년 3948만 원으로 4년 사이 12%(415만 원)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상 소득 증가율은 전 가구 평균 경상 소득 증가율과 동일한 수치이나, 20대의 부채 증가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2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4년 사이 2591만 원에서 5014만 원으로 94%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가구 부채는 20% 증가했다.

청년 부채 증가에 대해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sup>4)</sup>

청년들이 빚을 낸 이유로 부동산 대박을 꿈꾸며 '영끌'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담보대출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2022년 '거주 주택 마련'이라는 응답이 28.9%로 2018년(37.8%)보다 8.9% 포인트 떨어졌다. 그사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 비중은 38.5%에서 64.5%로 26.0% 포인트나 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0.8%에서 17.1%로 증가했으며,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빌렸다는 응답 역시 40.1%에서 43.8%로 늘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필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상승한 전월세와 보증금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청년취업률은 주요 선진국

4) 민나리, 「전월세 · 고물가에 갇혀… 소득 12% 오를 때 '빚의 속도' 2배 뛰었다」, 『2023 청년 부채 리포트 <하>』, 서울신문, 2023.08.24.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의 25~34세 사이 청년에 대한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고용률은 75.2%로, 독일이나 일본 등에 밀리는 31위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에 달하는데,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곧 청년들의 자살사고로 이어진다는 추론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살의 관계에서의 미래 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이중 매개효과' 연구 모형을 통해 성립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Step 1의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beta=.090, p<.05$ )과 경제활동 상태에서 '직업 없음( $\beta=.120, p<.05$ )', 개인소득( $\beta=.130,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직업 있는 사람보다 직업 없는 사람이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위험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Sep 3에서의 통제변수에서는 부채 여부( $\beta=-.094, P<.05$ )와 경제활동 상태에서 '직업 없음( $\beta=.151, P<.01$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채가 있을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자살 위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청년 자살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우리는 청년층의 삶과 고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무엇이 이들을 삶의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자살률 증가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기본법 시행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조례 제정(2021년 기준) 등의 청년정책의 실시로 다양한 청년 사업과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고, 이는 그동안 주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며 2023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앞선 내용 중 '청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현재 주된 청년 지원 사업의 내용은 고용 중심의 지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sup>6)</sup>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년 자살률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그 실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미디어나 언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청년세대를 'N포 세대'라 부르며 비관적 담론을 조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3포 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5포 세대는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이, 7포 세대는 희망, 꿈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N포 세대'라는 기성세대가 만든 낙인, 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되면 사회적 압박으로 결국 사실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처럼 사회는 청년들에게 '포기 세대'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베이비뉴스 강나연 기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가 청년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를 낙인찍은 후 낙인찍힌 청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떤 것을 버리고, 선택해야 하는지조차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어진 길대로 가야 하는 압박감. 그

5) 이수비 외 2인,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권 2호, 보건사회연구원, 2022.06, 379쪽.

6) 김기현,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20, 71쪽.

리고 그 압박감으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전진하는 우리. 내가 바라는 것,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정해져 있는 길을 택해야 하는 우리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다.”<sup>7)</sup>이 기사 역시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입장에서 작성된 글인 만큼, 청년세대에 대한 비관적 시선이 그들에게 어떤 압박감을 안겨주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령 시 우울 및 자살 스크리닝 검사 2회 이상 검진을 필수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의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 많은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살로 가는 과정을 막을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와 인식의 문제를 개선하여 꽃다운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

7) 강나연, 「[N포세대는 누가 만드나] '포기세대'라 낙인 찍는 사회」, 베이비뉴스, 2016. 03. 16.

## 참고문헌

- 강나연, 「[N포세대는 누가 만드나] '포기세대'라 낙인 찍는 사회」, 베이비뉴스, 2016. 03. 16.
- 강지원 외 7인,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 요인의 탐색 연구」, 『보건사회연구』 43권 1호, 보건사회연구원, 2023.03, 69-84쪽.
- 김기현,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20, 70-82쪽.
- 김성은, 「하루 4.3명꼴 '세상 등지는 20대...' 그중 19%는 '생활고'였다. 」, 『2023 청년 부채 리포트 <하>』, 서울신문, 2023.08.24.
- 김진현,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권 2호, 보건사회연구원, 2021, 83-100쪽.
- 민나리, 「전월세 · 고물가에 갇혀... 소득 12% 오를 때 '빛의 속도' 2배 뛰었다」, 『2023 청년 부채 리포트 <하>』, 서울신문, 2023.08.24.
- 신동준,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표로서 범죄와 자살」,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021, 77-121쪽.
- 안계한 · 김민희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020, 457-477쪽.
- 유명순, 「사회정신 불건강의 조건과 맥락: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 이수비 외 2인,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권 2호, 보건사회연구원, 2022.06, 369-389쪽.
- 이은환 · 김옥, 「코로나 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 [정신건강 팬데믹] 경고!」, 『이슈 & 진단』 제 453호, 경기연구원, 2021, 1-25쪽.
- 『자살예방백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 조진우,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8권,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15-648쪽.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미술·디자인학부(디자인) 김\*희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과 재학 중인 김\*희입니다. 제가 수상하게 된 글은 [청년 자살률 상승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학술 에세이입니다. 이 글은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완성하였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는 글쓰기의 기초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었으며, 인용하기와 각주 달기, 인용하기에 적절한 글과 적절하지 않은 글을 구분하기 등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필 같은 경우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대학교를 다니며 써야 하는 글들은 보통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찾고, 제 글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학술 에세이를 처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청년 자살률 상승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언급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서치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참고 자료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자료를 걸러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뉴스 기사는 출처가 잘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히 생략되어 있어 함부로 인용하기 어려웠고, 논문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퇴고 전의 완성본은 문단에 문장이 너무 많아 삭제하고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에도 오류가 있었는데, 각주와 참고문헌이 어떻게 다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글 수정을 많이 도와주셨고, 덕분에 어설피지만 형식을 갖춘 학술 에세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글을 쓰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쓰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저는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숙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변정민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나의 소통 방식 탐색하기

### 1. 서론

적절한 소통 방식을 갖추는 것은 의료진의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분쟁도 감소시킨다. 무엇인가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와 의사를 만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사소통이란 '환자중심적 병력대화'를 의미하는데,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환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대화법이다.<sup>1)</sup>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소통 방식을 활용하느냐가 환자에게는 큰 차이이다. 의료진으로서 적합한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이번 탐색과정의 목적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병력대화'는 상대방 중심적 대화로, 일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중요하므로 평상시 나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문지를 활용하여 탐색하려고 한다. 약 5일간 평소 나와 많이 소통하는 주변 사람들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지를 통해 내가 '병력적 대화법' 소통 방식을 행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각 소통 방식을 행하는 정도도 함께 표시하게 한다. 그 결과 내가 느끼는 부분과 상대방이 느끼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으며, 나의 소통 방식이 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화일지를 작성하여 나의 소통 방식을 스스로 성찰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의료진으로서 소통 방식

환자 중심적 병력 청취 대화는 진료 대화에서 환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의사는 경청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을 환자 수준에서 이해해 주고 적절히 반응해 주기 위한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자 중심적 병력 대화는 진단이나 치료의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환자의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존중하고 공감함으로써 사무적인 관계가 아닌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sup>2)</sup>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료의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1) 박현,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병원신문』, 2010.03.26.,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35>, 2023.11.06.).

2) 박일환, 「이야기 접근을 통한 환자중심적 병력청취 대화」, 『대한가정의학학회지』 31(1), 대한가정의학학회, 2010.

환자와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간호사는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직종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종류의 간호 커뮤니케이션이 대상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는지를 연구한 결과, 대상자들이 칭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는 반응하기, 연결하기, 해결하기 순이었다. 즉 간호사가 정성을 다하고, 공감하며, 무비판적으로 환자를 수용해 줄 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환자 중심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면서 의료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체계화되었다.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진으로서 적합한 소통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2.2. 설문지를 통한 나의 소통 방식 점검

나의 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3.11.06. ~ 2023.11.10. 약 5일간 평소 많이 소통하는 1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질문의 내용은 학술자료에서 수집한 환자 중심적 병력 대화 규범과 의료 커뮤니케이션 행위들로 구성하였다.

1	김은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도 듣고만 있는 편이다.
2	김은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	김은서는 대화할 때 침묵이 적은 편이다.
4	김은서는 대화 과정에서 말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5	김은서는 공감을 잘 한다.
6	김은서는 대답이 없는 경우 계속 질문한다.
7	김은서는 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다.
8	김은서는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을 듣게 되면 화를 내곤 한다.
9	김은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개입하는 편이다.
10	김은서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등의 말을 통해 발화를 촉진하는 편이다.
11	김은서는 대화를 할 때 비속어를 종종 사용한다.
12	김은서가 하는 말은 신뢰도가 높다.
13	김은서는 대화할 때 시선처리가 자연스럽다.
14	김은서는 대화할 때 자신만 아는 용어나 내용을 사용하여 말한다.
15	김은서와 대화할 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16	김은서는 공감을 할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등을 한다.
17	김은서는 대화할 때 목소리 크기 및 톤이 적당하다.
18	김은서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할 때와 인터넷상에서 대화할 때의 차이가 큰 편이다.
19	김은서와 소통하며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표 1> 설문지

1번부터 18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다섯 가지 선택지를 통해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 결과는 답변의 분포가 비슷한 질문도 있었지만, 다양한 질문도 있었다. 이를 통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소통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대화 방식, 태도 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 방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질문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1번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나는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끼어들어 내가 그 대화를 중재하곤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보는 나의 소통 방식은

3) 이정희, 임숙빈, 「병원 VOC에 나타난 간호커뮤니케이션의 내용분석」,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 17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력 대화법에도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개입하여 이야기가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 필요가 있어 보인다. 4번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환자 중심적 병력 대화의 핵심 의사소통 행위 중 하나인 ‘경청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번 질문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평소에도 상대방의 상황 또는 심정에 공감을 못해준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하지만 환자에게 정확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므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11번 질문에 대해 4명이 ‘그렇다’, 4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내가 느끼기에도 나와 마음이 잘 맞고 편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비속어를 종종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언행은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불쾌할 수도 있고, 의료 커뮤니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고칠 필요가 있다. 14번과 15번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6명과 8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더욱 강화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16번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공감을 할 때 충고, 조언, 판단, 평가 등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환자 중심의 병력 대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 그 자체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적 연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의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여 정확히 공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번은 나와 소통하며 느꼈던 점을 묻는 질문으로, 주관식의 긴 답변 형식으로 자유롭게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들을 통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소통 습관 등을 깨닫게 되었다. 이 질문에서 얻은 답변을 환자 중심 병력 대화를 기준으로, 그에 적합한 소통 방식과 그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할 방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대화를 할 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 부정적인 언행은 딱히 하지 않는다는 점, 티키타카가 편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점, 주변 사람의 말투에 쉽게 동기화된다는 점 등은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듣기 싫은 말은 귀에서 자체 필터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점 등은 환자를 대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소통 방식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 2.3. 대화일지를 통한 나의 소통 방식 점검

2023.11.06. ~ 2023.11.10.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상황과 그 당시 소통 방식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상 황	친구와 수업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배고파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황이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친구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배고프고 예민한 상태였기에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다.
대 화	나: 너 A(가명)랑 같이 족발 먹었더라? 어제 너가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거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너 평소엔 족발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친구: 아니 난 A가 집에 있는 족발 오늘까지 꼭 먹어야 된다 해서 따라 간 거였어. 그

	<p>리고 나 진짜 조금밖에 안 먹어서 너가 밥 안 먹었다고 말했으면 바로 왔을 텐데... 우리가 어제 말한 게 약속인지도 몰랐어.</p> <p>나: 아니 난 너가 족발 먹었다고 하니까 배부르다고 할게 뻘해서 말 안 했지... 결국 혼자 먹었어.</p>
성찰	<p>위의 대화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상대방 중심적 대화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상대방의 감정보다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 이야기만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작정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p>

<표 2> 대화일지

## 2.4. 진단 결과 해석

설문조사와 대화일지를 통해 알게 된 나의 잘못된 소통 방식은 ‘공감능력’이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고민이나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에 맞는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이런 책임감은 나를 상대방 이야기의 상황 속으로 개입하게 만들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공감보다는 조언이나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너 T야?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줘.”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는데, 5번 질문과 16번 질문에 대한 주변인들의 답변을 통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공감의 부분에서 병력적 대화법의 행위를 실천하여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행위 예시로는 감정의 주제화, 특이성 추인, 정당성 확인, 공감 표현, 안심시킴, 희망주기, 위로하기, 존중하기, 충고하기, 지지하기 등이 있다.<sup>4)</sup> 주변인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이러한 공감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소통 방식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정을 주제화하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 감정을 주제화한다는 것은 공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등의 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화할 때는 먼저 감정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 공감 표현 등을 사용함으로써 병력적 대화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이다.

## 3. 결론

### 3.1. 결과 정리

나의 소통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대화할 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대화를 할 때 목소리 크기나 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운 편이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잘하는 편이며,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수시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며, 이야기의 초점이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은 보완하여 적절한 소통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4) 박일환, 「이야기 접근을 통한 환자중심적 병력청취 대화」, 『대한가정의학학회지』 31(1), 대한가정의학학회, 2010.

### 3.2. 의의 및 평가

이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 내가 소통하는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여러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나의 소통 방식을 분석해 보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대화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탐색으로 얻어낸 결과들은 내가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소통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미래에 의료진으로서 환자와 소통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탐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처음 개요를 짜며 계획할 때는 설문조사 결과를 조하리의 창을 활용하여 분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력적 대화법을 설문지의 내용으로 넣다 보니, 그 결과로 조하리의 창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하리의 창을 활용하게 되면 미지의 창과 숨겨진 창을 채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분석 방법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객관적인 분석이 설문조사의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쉽다.

#### <참고문헌>

1. 박일환, 「이야기 접근을 통한 환자중심적 병력청취 대화」, 『대한가정의학학회지』 31(1), 대한가정의학학회, 2010.
2. 박현,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병원신문』, 2010.03.26.,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35>, 2023.11.06.).
3. 이정희, 임숙빈, 「병원 VOC에 나타난 간호커뮤니케이션의 내용분석」,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 17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간호학과 김\*서

한 학기 동안 <의료보건 글쓰기>라는 글쓰기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많은 과제를 해내며 나의 생각을 글 또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과제는 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었다. 보고서의 주제를 잡고 개요를 짜는 것부터 약 3주에 걸쳐서 동기들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객관적인 지표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오랜 기간 나에 대해 탐색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어서 애정 있는 과제물이었는데,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어 더욱 뿌듯하다.

이 수업은 매 강의마다 과제들이 주어진다. 짧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제부터 보고서를 작성해 와서 동기들과 비교해 보는 것까지 다양한데, 이런 과제들이 글쓰기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과제를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또한 이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앞으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 갔다는 점이다. 약 2주에 걸쳐 표절과 윤리적 글쓰기에 대해 배우면서 정확한 참고문헌 표기법을 배웠다. 그 전까지는 정확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표기 방법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글을 쓸 때마다 사용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얻어 간 것 같다. 더불어 교수님께서 보고서에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유익했다. 이 수업의 김준희 교수님께서서는 글쓰기 과제에서 잘 한 부분보다는 보완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주신다. 내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의 과제에서 고칠 점들도 함께 보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많이 배워간 것 같다.

## 학습 데이터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

### 서론

영화 <그녀>는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감정적 연결을 탐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이 영화의 외로운 작가인 테오도어라는 주인공은 그의 아내와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 인공지능과 교감하며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만다는 고도로 발달한 강한 인공지능으로, 자신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의식이 존재한다. 사만다는 테오도어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같은 감정과 자아를 발달시킨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의 산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의적 노력을 보호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은 인간의 직접적인 기여 없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저작권의 기본 원칙과 상충될 수 있으며, 창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이 평가 절하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그리고 창작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즉 인간의 창의력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핵심 목적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현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습데이터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인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하여도 아직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대중들은 다양한 걱정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네이버 웹툰은 만우절 특집으로 네이버 웹툰 대표작품의 표지를 AI 창작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웹툰 작가들이 AI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AI 창작물을 이용하여 행사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큰 비판을 맞이했다.(뉴데일리경제, 2023) 이외에도 2023년 2월, 유명 이미지 제공 회사 게티 이미지는 인공지능 개발사 스태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 1천 200만장 이상을 라이선스 구매 없이 인공지능을 무단 학습 시켰다며 1조 8천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아이뉴스24, 2023)가 존재할 만큼 인공지능의 갑작스러운 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학 박사 백옥인(2023)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공지능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적 활동 결과물을 변형하는 인공지능의 '립(rip), 믹스(mix), 번(burn)'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어날 세상 변화의 규모가 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ip - Mix - Burn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Rip) 데이터를 혼합하고(Mix) 알고리즘을 제작하는(Burn)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 필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창작물의 학습 데이터는 공개되어야 하고, 학습 데이터 공개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공지능 저작권 해결을 위한 노력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2023)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작업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작가의 '창작성'만 증명되면 된다. 인공지능 기업 이매지네이션 엔진스의 스티블 탈러 박사는 "창의성 기계"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AI 기술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2월 "스티블 탈러 박사의 창의성 기계가 그린 그림엔 '인간의 저작'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사상과 표현, 마음의 연결고리가 저작물의 핵심 요소라 지적하였다.(디지털 비즈온, 2022) 이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작가의 '창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다양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인공지능 학습 과정서 수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원작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데이터들을 무단으로 학습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이미지를 통해 AI 개발을 진행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다.(한국경제, 2023) 어도비는 창작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Behance, Photoshop 등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데이터로 AI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인공지능 회사는 어도비처럼 데이터가 많지 않아 라이선스 구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학습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시장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데이터 무단 학습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미국의 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공중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등을 규정한다. 학습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에 과정에서 사본 생성 등의 복제행위가 이루어지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된다.(신서혜, 2023)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모든 이미지의 저작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개발 회사가 직접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자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가 자신의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에 사용한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공개하여 상업적 이용을 저지하고.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인공지능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습 데이터 불투명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CC0(퍼블릭 도메인)을 적용하여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CreativeCommonsKorea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말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CCKorea, 2023) CC0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률을 통해,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인공지능은 인증마크를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하여 인공지능 발전을 저지하지 않고 무분별한 악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요약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 중 인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관해 다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술과 같은 창작의 영역이 침범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예술 창작 영역은 인공지능에 위협당하고 있듯,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급한 불부터 꺼야 불이 확산되지 않듯,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이 크게 변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는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습 데이터 공개 정도로 온라인 정부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인증 마크는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학습한 데이터들을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서비스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김상욱 외, 2012) 인공지능 무단 학습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문제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저작권법 부칙 제2조 1항.

김상욱, 신소현 and K. Damon Aiken(2012), 「온라인 인증마크의 신뢰 구축 효과에 관한 연구:조절변수의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0-7』, 한국상품학회, 149~159 쪽.

신서혜(2023),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 『The Journal of Law & IP』 13-1,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14~23쪽 .

백옥인(2023),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커뮤니케이션북스, 5쪽.

김병욱(2023. 03. 30), 「네이버웹툰에 AI 표지?... 만우절 해프닝 독자 반응 '싸늘」,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30/2023033000162.html> (2023. 12. 10).

이승우(2023. 10. 11), 「"저작권 걱정 없다"...어도비, 이미지 AI 공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10971> (2023. 12. 11)

이호선(2022. 08. 26),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보호 받을수 있을까?」, 디지털 비즈온, <http://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678> (2023. 12. 11).

정유림(2023. 06. 21), 「[AI 저작권 논란]㉔"저작권 침해했다" 1조 8천억달러 소송에 AI 운명 달려」,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03207>(2023. 12. 10).

CCKorea, 「CC 라이선스 소개」, <https://ccl.cckorea.org/about/>(2023. 12. 11).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시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김\*현

저는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글을 보완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식의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관점과 해석 방법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글쓰기에 흥미가 없어 저에게는 계속 배워도 흥미롭지 않던 글 읽기 쓰기 활동을 이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글에 대해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를 붙일 수 있었고, 글이나 책을 읽을 때 더 깊이있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법과 출처 표기법 등의 글쓰기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지고 보완하며 글을 읽을 뿐 아니라 직접 쓰는 데에도 지장이 없도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얻은 것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의 과제를 통해 수상을 하며 글쓰기에 대해 더욱 큰 관심과 재미를 느꼈고, 다른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며 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킴을 동시에 다양한 저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변화하는 우리말

현실에서 주변을 둘러보든 인터넷을 둘러보든 맞춤법을 틀리거나 어법, 문법에 맞지 않게 쓰는 사례들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맞춤법이나 문법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어릴 때는 친구들의 맞춤법까지 교정하려 할 정도로 맞춤법에 집착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의 변화와 다른 언어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표준어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맞춤법을 맹목적으로 맞추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1> 훈민정음 해례본

언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중세 한국어의 표기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른 부분이 많다. 과거에는 ‘ㄱ, ㆁ, ㆁ, ㆁ, ㆁ’와 같이 자음을 연달아 쓰는 합용병서가 존재하였으나 현대에는 ‘ㄱ, ㆁ, ㆁ, ㆁ, ㆁ’ 등만이 남아 쓰이고 있다. ‘ㄷ(반치음)’, ‘ㅇ(옛이음, 꼭지이음)’, ‘ㅎ(여린 이음, 된이음)’과 같은 자음과 ‘ㅍ, ㅑ, ㅓ(아래아)’ 같은 모음도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ㅍ, ㅑ, ㅓ, ㅓ’과 같은 순경음도 현대에는 더이상 쓰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음들과 모음들이 더이상 쓰이지 않는 데에는 발음의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앞의 사라진 자음, 모음들은 과거에는 그 문자들의 발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 본연의 발음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문자가 소멸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입술을 닿을 듯 말 듯 두고 매우 약하게 ‘ㅂ’을 발음하여 소리내던 순경음 ‘ㅃ’은 그 자체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음이 사라졌고, 현대에는 ‘ㅂ’ 불규칙 활용에서나 그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ㅕ	ㅊ	ㅑ	ㅊ
저모음	ㅗ		ㅓ	

<표> 현대 단모음 발음표

과거 ‘ㅑ’, ‘ㅕ’는 음을 길게 발음하여도 그 음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소리를 내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아이’, ‘어이’로 발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통해 ‘ㅑ’와 ‘ㅕ’를 구분하였지만 현대로 오면서 단모음으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현대에도 혀의 높낮이에 따라 ‘ㅑ’, ‘ㅕ’를 구분하지만 그 발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 표기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맞춤법을 틀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 제 1장, 제 1항의 ‘소리나는 대로 적되’를 착실하게 지킴에 따라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어법도 과거로부터 계속 변화하였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예시로 주격 조사 ‘가’를 들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 주격 조사는 ‘ㅣ’와 ‘이’만 존재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이후로 조사 ‘가’가 들어왔고, 현대에도 계속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세에는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허용하는 ‘8종성법’이 존재하였고, 이는 근대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허용하는 ‘7종성법’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7종성법은 다시 변화하면서 현대에는 초성에 쓴 자음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종성부용초성) 이러한 발음과 표기, 어법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점차 변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맞춤법을 틀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진2> 과거 서울 톨게이트 ‘-읍니다’ 표기

위의 사례들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언어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기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해보자. 현대의 ‘-습니다’는 과거에 ‘-읍니다’가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나이 많은 어른들, 과거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읍니다’는 사라지고 ‘-습니다’만 남았을까? 국립국어원은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 쪽이 더 깎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규정에서는 ‘-습니다’와 ‘-읍니다’ 사이의 그러한 의미차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 쪽으로 통일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sup>1)</sup>. 표기로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사람들에게 많이 발음되는 것은 ‘-습니다’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습니다’를 표준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예시로 ‘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맞다’를 들 수 있다.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맞다.’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입는다, 먹는다’와 같이 동사에는 ‘-는다’가 붙어 활용하는데, ‘맞다’도 동사이므로 ‘맞는다’로 활용합니다. 즉, ‘맞다’가 형용사처럼 ‘맞다’로 쓰이기도 하지만, 규범 표기는 동사 활용 양상에 따른 ‘맞는다’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sup>2)</sup>라고 답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맞다’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맞는다’라고 활용

1) 「맞다 맞는다」, 『국립국어원』, 2022. 7. 3.,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49491](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49491), 2023. 12. 4.

2) 「어문규정 제 17장」,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90](https://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90), 2023.12. 4.

하여 쓰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맞다.’가 아닌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맞는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표현이며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도 자주 틀리는 표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틀린 표현이라고 치부하는게 맞는 것일까? 앞서 계속 말했듯이 언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맞는다’가 아닌 ‘맞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기를 무조건적으로 교정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말을 해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자장면’만 표준 표기로 인정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짜장면’ 또한 표준 표기로 인정하고 있고, [효과]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던 것과 달리 [효파] 또한 2017년 이후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준 표기를 틀리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역대급’과 같은 표현이나 ‘되었-’의 축약형 ‘뻬’을 ‘뒹’으로 쓰는 식의 명백한 국어 파괴는 막아야한다. 필자는 맞춤법을 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다. 표준 표기와 발음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언어 파괴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언어는 더이상 쓰이지 않는 사어(死語)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인 이상 언어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변화한 표현이 과연 정말로 국어를 파괴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언어 변화의 일환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하여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를 최대한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김\*희

과학글쓰기수업 초반에 교수님께서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기말과제로 칼럼을 작성하고 발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럼의 주제를 정하고자 하였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언어에 대한 주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에 사람들이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것과 어법을 과거와 다르게 쓰는 것을 떠올리고 맞춤법과 언어변화를 엮어 칼럼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생각하던 주제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문단별 개요로 글의 흐름을 구상하고 어떤 시각 자료들을 쓰면 좋을지 생각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도중에도 글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논문도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하는 게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다보니 글이 그리 와닿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고 글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져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상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집중을 해치는 것을 해결하고자 언어변화 서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고 과거의 어법 변화 실제 사례와 현재의 실제 사례를 차례로 들어 논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의 간결함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쳐냈습니다. 칼럼에 있는 내용들 말고도 여러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내용을 빼게 되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글쓰기 수업을 통해 머릿속으로 하던 생각들을 글로 옮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 세대 간 갈등 문제에 관하여 - MZ세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요즘 들어 MZ세대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린다. 하지만 그중에 MZ세대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MZ세대의 소비, MZ세대의 문해력, MZ세대의 식습관 등 대부분이 MZ세대의 부정적인 부분을 쓴 글이다. MZ세대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는 ‘허영에 부풀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사치를 부리는 게 MZ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말과 같은 MZ세대에 대한 비판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흔히들 MZ세대라 부르는 20대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MZ세대라는 단어,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 이 글에서는 MZ세대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이러한 인식이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지 알아볼 것이다.

MZ세대. 5년 전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지만 어느새 부턴가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는 MZ세대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MZ세대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걸까? 단어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MZ의 M은 2000년대에 성인이 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Z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출생자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했던 세대를 말한다. 이 두 세대를 합쳐 만든 말이 바로 MZ세대인 것이다. MZ세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 ‘트렌드 MZ 2019’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정치계와 광고업계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보편적으로 일컬어지는 MZ세대의 특징은 크게 소비, 가치관, 직업,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 1. 소비

MZ세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호텔, 풀빌라 같은 숙박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명 ‘호캉스’를 즐기는 등 구매력에 비해 큰 소비를 하며 특히 명품이나 한정판 등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희소성 있는 물건을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리셀이나 각종 물건을 정가보다 싸게 구입하고 쓸모없어진 물건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중고 거래에도 관심이 많다.

### 2. 가치관

MZ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는 친구나 동료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MZ세대는 예의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3. 직업

MZ세대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긴다.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66.5%), 공정한 보상(43.3%), 좋은 복지제도(32.8%) 등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한다. 기성세대들이 선호하던 정년 보장(14.0%), 기업·개인의 발전 가능성(12.4%), 기업 네임 밸류(3.3%), 사회적 가치 실현(1.8%) 등의 항목은 하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쉽게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한다. 잡코리아가 20~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37.5%는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했으며 2년 차에 퇴사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sup>1)</sup> MZ세대 입사자 중 절반은 입사 2년 이내에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 4. 금융

집값의 계속된 상승과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어려워진 취직으로 인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MZ세대들이 많다. 특히 2017년에 시작된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MZ세대들은 투자에 익숙하며 암호화폐 열풍이 사그라든 지금도 돈을 은행에 저금하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투자 종목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MZ세대라는 단어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MZ세대가 지칭하는 세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밀레니얼세대의 시작인 1980년도 출생자와 Z세대의 끝부분인 2010년도 출생자의 나이 차이는 무려 30년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출산한 산모 중에서 29세 이하의 비율 40퍼센트에 육박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다음 세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2010년도의 신생아 중 40퍼센트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이 단어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유행에 따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원래의 의미마저 퇴색되어 지금은 아예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이름과 그에 대한 특징을 정의하는 일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특징을 정의한다. 그러나 MZ세대는 역지로 두 세대를 묶어 놓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몇몇 기자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세대의 특징을 골라 쓸 수 있는 것이다. MZ세대에 대한 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독자적인 두 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개념화할 근거가 없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sup>2)</sup>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MZ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하며, 개인주의가 강한 이기적인 성향을 띄며, 출산은 커녕 결혼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젊은 세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여러 미디어에서 이 단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것들’이나 ‘젊은 것들’ 대신 MZ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과 댓글로 그들을 비난했고 이를 듣고 본 젊은 세대들의 머릿속에는 MZ세대라는 단어가 혐오 표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1)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38139a.do?bbsFlag=View&bbsId=0009&nttId=80>

2) 호규현 외, 『정말 MZ세대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조직원 특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 『한국언론학회』 제67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3, 272-315쪽.



것이다. 이렇다 보니 MZ세대라 불리는 당사자인 20대~30대 청년층들이 단어에 대해 가지는 반감은 상당하다. 2022년 한국리서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8세에서 42세가 비슷한 가치관, 경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응답자의 68%였으며 Z세대 응답자 중 61%가 두 세대를 MZ세대라고 묶어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sup>3)</sup>

MZ세대가 혐오 표현으로 굳어진 배경을 좀 더 파고들어 보면 그 속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세대 갈등 문제가 있다. 세대 갈등은 현 MZ세대와 기성세대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세대는 필연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세대 갈등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네 가지의 갈등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 소통 부재를 꼽았다.<sup>4)</sup> 지금의 MZ세대와 기성세대를 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세대를 ‘어린놈들’이나 ‘꼰대’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헐뜯기만 바쁘다.

이러한 세대 간의 혐오 표현 사용, 나아가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혐오 표현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MZ세대라는 단어는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단어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젊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하면서 MZ세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그걸 MZ세대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이는 MZ세대라는 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역으로 나이가 많은 일부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기성세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부터, 나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세대 갈등은 두 집단 간의 간극으로 인해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가만히 상처가 곪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송한나, 「MZ세대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 『한국리서치』, 2022. 4. 5, <https://hrcopinon.co.kr/archives/21422>

4) 손병권 외,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분쟁해결연구』 제17권 제2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5-37쪽.

## 참고자료

1.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5. 18,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38139a.do?bbsFlag=View&bbsId=0009&nttId=80>
2. 호규현 외, 「정말 MZ세대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조직원 특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7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3.
3. 송한나, 「MZ세대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 『한국리서치』, 2022. 4. 5, <https://hrcopinion.co.kr/archives/21422>
4. 손병권 외,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분쟁해결연구』 제17권 제2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스마트시티융합학과 박\*민

과학기술글쓰기는 대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강의로 갖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라고 느꼈다. 강의 초반에는 맞춤법이나 각주 등 글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웠다. 특히 각주에 대한 내용이 이후 글쓰기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바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주제를 정하고 계획서를 쓰면서 틀을 잡은 뒤, 초고를 작성했다. 초고를 완성한 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평가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스스로 보았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글이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 고칠 점이 제법 있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더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음을 깨달았고 덕분에 글을 더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었다. 또한 계획서나 글을 쓰면서 원할 때마다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졸업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이 다양한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학생에게 글쓰기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배운 내용을 적용해 직접 글을 써보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강의인 것 같다.

## AI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 인가

### 서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을 말하라고 하면 AI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AI란 인공지능의 영문 약어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AI의 개념은 1950년대에 처음 만들어지고 발전해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Siri와 Bixby, AI 스피커, 유튜브 알고리즘, Chat GPT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삶에 스며든 AI들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꾸준히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AI의 종류와 AI가 가져온 여러 변화를 탐구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 법적,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AI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관해 탐구해 보겠다.

### 본론

#### 1. AI가 불러온 여러가지 변화

##### 1) AI의 발전 과정

AI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해 1970년대까지 프랑크 로젠 블렛의 인공신경 뉴런 ‘퍼셉트론’<sup>1)</sup>, 전문가 시스템<sup>2)</sup> ‘덴드랄’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효용성 입증 실패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중단되어 1차 암흑기를 맞게되었다. 이후 1980년대 단층으로 사용되어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던 퍼셉트론이 다층으로 사용되어 적층된 신경망의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딥 러닝 기술의 핵심인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때 제안되었다. 그러나 다층 신경망의 제한적 성능과 컴퓨터 성능 부족으로 투자가 줄어들었고 또다시 2차 암흑기를 맞이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비약적인 컴퓨터 성능 향상과 더 많은 층의 적층으로 제한적이었던 신경망의 성능을 극복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비지도 학습<sup>3)</sup>까지 가능해졌고 체스, TV 퀴즈 쇼, 바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까지 부흥기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LLM(Large Language Model) 더 나아가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LLM은 자연어를 이해, 처리 나아가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AI인

---

1) 퍼셉트론은 인공 신경망의 초기 모델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이다.

2)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지식, 경험 등을 컴퓨터에 축적해 전문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3) 비지도 학습이란 정답 데이터 세트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스스로 입력된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 상관 관계를 찾아내 분석하고 군집화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LM(Language Model)의 확장 개념으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Open AI사의 Chat GPT가 있다.

## 2) AI가 가져온 변화

우리 사회에서 AI는 더이상 떼어놓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는 이전에 등장했던 머신러닝, 딥러닝 AI가 보여준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Adobe의 포토샵이 있다. 2023년 5월 Adobe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포토샵 베타 버전을 처음 공개하고 이후 같은 해 10월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기능은 AI를 이용해 지정하는 객체를 추가, 변경, 삭제하거나 배경을 확장, 연결,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 '생성형 채우기'와 '생성형 확장'이 추가되었다. 아래 사진들은 Adobe에서 제공하는 사용 예시로 왼쪽부터 배경 확장, 두 개의 다른 사진을 하나의 사진처럼 나머지 배경을 자연스럽게 생성해 채우는 배경 연결, 지정된 객체를 입력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성하는 객체변경이다.



신기능 생성형 채우기 예시

(<https://www.adobe.com/kr/lead/creativecloud/photoshop/everyone-can.html>)

이처럼 AI의 도입으로 사용자는 간단한 방식으로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또한 다수의 IT테크 기업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으며 음악, 비디오, 소셜 등 “창작의 영역” 뿐만 아니라 컴퓨터·S/W(코딩 등) 및 바이오·의학(단백질 구조분석, 약물 발견 등)의 영역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sup>4)</sup> 이와 같은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2.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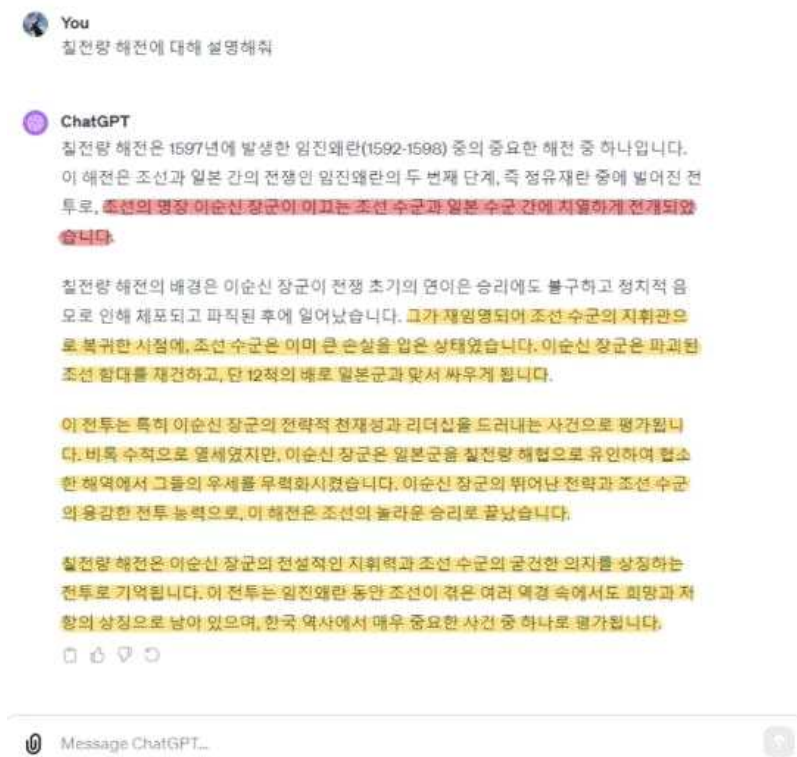
### 1) 기술적 문제

AI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있다. 첫번째는 생성형 AI, 그중에서도 LLM에서 나타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다. 생성형 언어모델의 환각 현상은 생성된 데이터가 현실의 정보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주어진 지침과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는

4) 이유환, 「생성형 AI 시대의 현재와 미래」, 『충북 Issue & Trend』, 52호, 충북연구원, 2023, 30-35쪽

5) 이현승 · 김재범, 「게임 콘텐츠 생성을 위한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 완화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제23권 5호, 한국게임학회, 2023,

우리에게 익숙한 Chat GPT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Chat GPT에게 칠전량 해전에 대해 직접 질문한 것으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명량 해전과 혼동하여 잘못 설명한 부분이다.



이처럼 환각 효과는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에 Chat GPT의 Open AI, Bard의 Google은 환각 현상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공개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적 문제는 편향성 문제이다. 우리는 기계인 AI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AI가 내리는 결정과 답이 다 공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고 사람에게 의해 목적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한 결함은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흑인 남성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돼 6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이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용의자로 수배된 이유는 안면인식 기술 장애 탓이었는데, 이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sup>6)</sup> 이처럼 AI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 2) 법적 문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발생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 번째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

121-129쪽

6) 이혜진, 「AI가 인종차별? 美흑인남성 억울한 옥살이한 이유가」, 2023.09.2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26/D334UXOO6BAH5DPRCSWLXS2B2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26/D334UXOO6BAH5DPRCSWLXS2B2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12.02.

대로 나뉜다. 찬성 측은 AI를 이용한 창작과 발명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담기지 않는 AI생성물은 저작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오랜 시간의 노력을 AI는 너무나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낀 인간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AI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 AI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이 공공적으로 제공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독점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AI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AI를 학습시킬 때 저작물 데이터를 복제하고 학습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AI를 학습할 때에 적어도 수십만 개 많으면 수백만 개의 자료를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명확한 조항이 없고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이용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 3) 윤리적 문제

AI의 발전은 윤리적인 문제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일자리 변화 그리고 인간 퇴보에 대한 문제이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한다. 인터넷, SNS등의 발달로 사소한 것에도 주요한 개인 정보가 담기는 현재, 사소한 데이터라도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사용에는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AI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하는 영상편집 기술인 딥페이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로 가족의 얼굴을 합성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음란물에 특정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구독자 약 2.15억 명을 가진 유튜버 MrBeast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10,000명에게 2달러만 내면 최신 스마트폰을 주겠다는 사기 영상을 제작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일자리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발전하는 AI로 인해 많은 것이 자동화되고 이로 인해 인간이 결국 AI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대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제조업, 고객 응대 서비스 등의 분야는 AI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직종이다. 인간과 달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AI 챗봇의 등장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은 AI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는 뛰어난 능력과 효율성을 앞세워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 퇴보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전에 필자가 인간 퇴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최근 여러 대학에서 과제나 시험에서 Chat GPT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딩 분야의 경우 Chat GPT가 제시하는 답변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Chat GPT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AI의 적당한 사용은 시간 절약, 효율성 증가등의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무 남용하게 된다면 스스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결국에는 학습 능력이 저해되고 학습의 본질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

### 3. 문제 해결 방법

#### 1) AI 윤리를 중심으로

앞서 설명했던 AI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AI 윤리이다. AI 윤리란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AI의 설계, 학습, 사용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이다. 최근 이 지침은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사용되어 편향, 편견 그리고 차별 없는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들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AI의 윤리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들만의 AI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BM의 경우 AI와 데이터를 대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강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 속한다”,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이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이렇게 5가지의 세부 영역을 만들었는데 설명 가능성은 AI의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고 견고성은 비정상적이거나 혐오, 차별과 같은 입력에 능동적으로 방어하고 결과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은 데이터 수집의 단계부터 투명하게 진행하고 유저는 결과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권리는 보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의 AI 윤리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AI의 윤리적 사용이 아닌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이슈는 사용자가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AI 윤리는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우리들도 고민해야하는 주제가 되었다.

#### 2)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한 문제들이 범람하는 AI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AI로 인해 인간이 완전히 대체되고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아직 AI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결함이 존재한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AI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자 낭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구적 존재로서 AI를 대하고 이를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 AI의 사고는 인간과 다르게 엄청난 속도와 준수한 퀄리티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뇌 가소성<sup>7)</sup>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뇌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뇌는 이 가소성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 자극을 담당하는 부위는 다른 부위에 잠식시킨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우리가 AI의 장점에 매몰되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을 AI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뇌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적응하여 생각에 필요한 뇌의 부분을 다른 부분에 합병시킬 것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Chat GPT같은 AI에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체성을 기르고 우리의 선택에

---

7) 뇌 가소성이란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경험이나 자극,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특성이다.



자부심과 확신을 가져야한다. 또한 Chat GPT 활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Chat GPT에 의지하는 경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sup>8)</sup> 그리고 인간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적 지능은 사회적 상호작용, 리더십, 갈등 해결 등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AI가 쉽게 대체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해 인간의 역할과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AI의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AI의 급부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AI의 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AI의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 있는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는 AI의 윤리적 설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반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AI를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감성적 지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인간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8)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제27권 1호, 한국정보법학회, 2023, 77-112쪽

## <참고문헌>

### 1. 국내 논저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제27권 1호, 한국정보법학회, 2023, 77-112쪽

이유환, 「생성형 AI 시대의 현재와 미래」, 『충북 Issue & Trend』, 52호, 충북연구원, 2023, 30-35쪽

이현승 · 김재범, 「게임 콘텐츠 생성을 위한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 완화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제23권 5호, 한국게임학회, 2023, 121-129쪽

### 2. 기타 자료

이혜진, 「AI가 인종차별? 美흑인남성 억울한 옥살이한 이유가」, 2023.09.2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26/D334UXOO6BAH5DPRCSWLXS2B2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26/D334UXOO6BAH5DPRCSWLXS2B2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12.02.

“인공지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3.11.20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AI·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전공) 박\*호

2023년 2학기에 수강한 '과학기술글쓰기' 과목은 다양한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배운 주석과 참고문헌 표기 방법은 다른 과목의 레포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고, 어문규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틀리던 맞춤법을 교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업은 '과학 칼럼 쓰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진행된 조별 토론 활동은 서로의 칼럼 계획서와 초고를 검토하며 개선점과 보완할 점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칼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칼럼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피드백은 칼럼 주제 선정부터 초고 작성까지 큰 도움이 되었고, 칼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과학기술글쓰기' 수업과 의사소통센터에서 진행된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엔 막막했던 칼럼 쓰기가 점점 즐거워졌고, 글에 어떤 내용을 더 담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저는 글쓰기 성과 발표회에서 의미 있는 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과 프로그램이 제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듯이, 앞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될 다른 학우들에게도 같은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나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고찰

### 1. 서론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조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이 준비되어야 한다.<sup>1)</sup>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래의 의료인이 될 나의 현재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해보고 개선점과 더불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논문의 질문지, 에니어그램,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1월 7일 하루 동안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질문지와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하여 객관적인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였다. 둘째,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중 3일을 선정하여 하루 동안 경험했던 상황에 대하여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회고하며 평가하였고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의 유형별 특징에 근거하여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 2. 본론

#### 1) 이론적 근거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서로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다양한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받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단기간의 집중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완이 필요하다.<sup>2)</sup> 이를 근거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나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2) 질문지와 에니어그램으로 측정한 의사소통 능력

##### (1) 대인 의사소통 능력 측정 질문지

본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관련된 15개의 구성개념(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통제력)에 각 세 개씩의 진술문으로 총 45개의 질문이 작성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논문의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 대상자 332명의 결과를 인용하여 필요표본을 충족하고자 하였고 구성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간격 척도로 의사소통능력을 평

1) 김수진 김보영,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48권 제6호, 한국간호과학회, 2018, 708쪽.

2) ibid, 709쪽

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10	9.62	11	10.6	9	9.65	11	10.41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11	10.41	11	10.09	11	10.27	11	9.06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12	10.86	11	10.01	11	10.73	11	9.53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통제력			
9	11	10	11.74	11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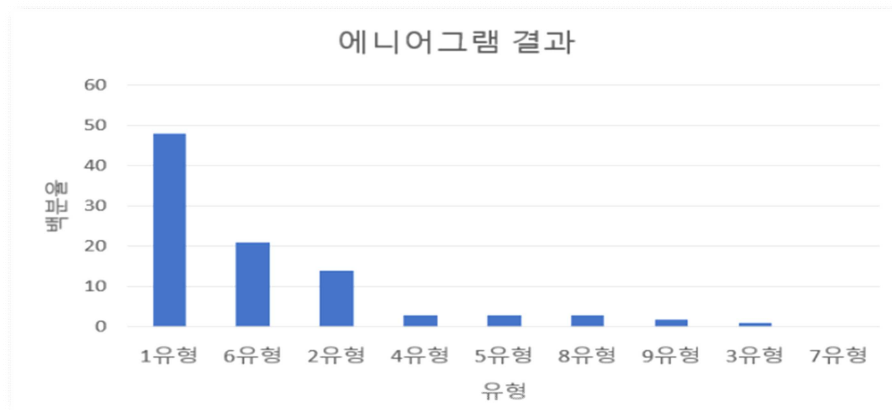
<포1> 대인 의사소통 능력 측정 질문지 결과

\* 각 항목에 대해 좌측은 나의 설문 결과, 우측은 332명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위 결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긴장완화, 목표간파, 반응력의 3가지 항목에서 설문 대상자 332명의 평균에 비하여 나의 의사소통 능력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에니어그램

의사소통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경험한 특유한 교육적,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니어그램 유형별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신념 및 집착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처럼 개인의 에니어그램 유형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70문항으로 이루어진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테스트’를 객관적인 관찰자료로 활용하였다. 에니어그램 성격은 성격의 근간을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총 9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그래프1> 에니어그램 결과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테스트 결과 나는 1유형(48%)에 가깝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1유형의 특성으로는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철저하며 완벽하려는 경향이 있다, 분노를 억압하여 내면의 긴장감이 크다, 높은 기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항상 만족하지 못하여 분노를 느낀다.’ 등이 있다.<sup>4)</sup>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나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점은 도덕적이고

3) 한국에니어그램 협회, 『에니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에니어그램 협회』, 2015([http://www.ieakorea.com/index/s3/s3\\_3\\_8.php](http://www.ieakorea.com/index/s3/s3_3_8.php), 2023.11.08.)

4) 주혜주 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문각, 2022, 29쪽.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지시적인 어투, 자신의 주장을 잘 굽히지 않으려는 점,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 3) 주관적 기록과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관찰한 의사소통 능력

#### (1) 회고 형식의 기록

타인	"저는 첫째, 둘째와 같은 말을 포함하여 문장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장이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 < 11.6. 기록1 >

타인	"차 드실래요? 동글레차, 허브티 같은 거 있어요. 뭐 드실래요?"
나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양치해서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 11.8. 기록2 >

타인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게 맞는 것 같아?" "저 값을 이용하는게 맞겠지?"
나	"그래프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 < 11.9. 기록3 >

기록1, 기록2, 기록3을 종합하여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보았을 때 상대의 말에 적절한 대답을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등 의사소통의 방해요인 없이 적절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긴장되는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목소리가 작고 상대와의 눈 맞춤을 피한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꺼린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특징에 근거하여 나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회유형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타인의 비위에 맞추려는 성향이 있으며 일치형 유형의 사람들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상황 모두를 존중하는 특징을 보인다.<sup>5)</sup> 나의 의사소통을 관찰하였을 때 나는 가족과 친한 친구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감적 반응의 원칙을 준수하는 의사소통을 실행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심화된 공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찰 결과와 이외의 각 유형별 여러가지 특성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나의 의사소통은 진실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나지만 타인에게 순응하고 긴장한다는 점에서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회유형 의사소통과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4) 의사소통 능력 개선 방법

객관적, 주관적 관찰 방법으로 분석한 나의 의사소통 방식의 전반적인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의 내면적 측면으로는 나의 행동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어 내면의 긴장감을 낮춰야 하며 판단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표현적 측면으로는 의사소통 시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깊게 파악하고 상대의 반응에 눈 맞춤이나, 맞장구로 타자 지향적인

5) ibid, 71쪽.

반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sup>6)</sup>

위와 같은 개선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청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하는 훈련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보다 집중하고 나와 너를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감의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습해야 한다. 기본적 공감, 심화된 공감,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세분화하여 공감적 대화를 연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sup>7)</sup>

### 3. 결론

본 조사에서는 나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관찰 결과 ‘사회적 긴장완화, 목표간파, 반응력’ 세 항목이 나의 의사소통 능력 중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주관적 관찰 결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수동적, 회유형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친밀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과 의사소통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선점 파악 이후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선 방법을 내면적, 표현적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여 일치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 주관적 관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 의사소통 능력은 다면적인 구성개념이므로 본 조사에서 채택한 15가지의 구성개념이 정형적인 것은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하부 구성개념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된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나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내가 나의 능력이라고 느끼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측정 방식에서 액면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정법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6)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388쪽.

7) 주혜주 외, op.cit., 96쪽.

<참고 문헌>

김수진, 김보영,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48권 제6호, 한국간호과학회, 2018.

에니어그램 테스트, (<https://enneagram-personality.com/ko>, 2023. 11. 7.)

주혜주 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문각, 2022.

한국에니어그램 협회, 「에니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에니어그램 협회』, 2015  
([http://www.ieakorea.com/index/s3/s3\\_3\\_8.php](http://www.ieakorea.com/index/s3/s3_3_8.php), 2023.11.08.)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간호학과 박\*원

의료보건 글쓰기 강의는 적은 수의 인원이 조를 만들어 원형의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였다. 강의 특성상 다른 학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다른 학우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타인의 태도에서 배우고 싶은 점과 나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던 점이 수업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하여 좋았다. 과제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화법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준비 및 계획 단계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의 사소한 성공과 실패’, ‘자기탐색의 보고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윤리적 글쓰기에 대해 학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활용하는 법, 출처를 작성하는 법, 글쓰기의 틀을 잡는 법을 배우면서 나의 글에 시작점이자 토대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여러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보고서 작성 형식을 배우고 작성한 보고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깊고 그 의미가 크다.

한 학기 동안 의료보건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글쓰기의 태도를 비롯한 글쓰기 윤리, 글쓰기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매주 한 개의 작고, 큰 과제들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꼬박꼬박 해내야 하는 과제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나의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은 성실함이 모여 큰 결과물을 만들어 냄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나, 적당히 갖출 줄 아는 나를 만들어가는 수업이었다. 강의를 통해 내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 정부의 공기업 개입, 과연 정당한가?

공기업은 정부가 설립했거나 소유하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다. 정치권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에 공기업에 운영을 통제하거나 법으로 회사의 운영을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단체로서의 역할도 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공기업 개입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번 글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개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부가 강경하게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어 다뤄보고자 한다.

###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

공기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공기업은 주로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거나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들 중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정부의 지원으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 개방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개방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공기업은 자본시장에 상장되는 주식회사가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소유와 지배를 받는 기업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을 우선시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는 정부 우호 지분과 일반주주의 비가 51:49가 되는 자본시장에 개방된 주식회사다.<sup>8)</sup>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sup>9)</sup>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해당 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라는 방향성을 갖고, 전원개발 촉진, 안정적인 전력 수급, 국민 경제 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개요만 본다면 정부는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기에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가장 큰 대주주임과 막대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한전에 부여한다. 이는 권리는 행사하겠으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정부가 이를 남용하면 시장 질서와 자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한전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한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하였고 설립 이후 발전용량을 대폭확대를 시작하면서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다양한 전원 개발과 공급은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후

8) 한국전력공사 IR 센터 자본금 및 주주현황 2022.12.31.

9) 한국전력공사법(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용 전력까지 감당함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 또한 달성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한전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투자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로 전력산업은 기술 수출액이 조 단위일 정도로 각국과 비교해서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기술수출까지 진행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적의 관점에서 본 한전은 이미 과한 달성을 이뤘기에 가장 큰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한전은 목적을 달성 한 후 공공의 이익을 가져야 함과 경영을 효율화 하여 국민에게 합리적인 전력을 요금을 제고하며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실제로 한전은 공공적인 요금제도를 책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방향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 정부의 한국전력공사 개입과 경영부실

이처럼 한전은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향으로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한 개입은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강경한 대입은 한전의 방향성을 넘어서 존재 가치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전이 마주하고 있는 적자는 200조 원 규모<sup>10)</sup>에 달하며, 이는 한전의 시가 총액 약 10조 원 의 20배<sup>11)</sup>에 달한다. 이런 한전은 국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관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유지비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 현재의 한전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전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주요 매출은 재화(에너지) 판매 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전의 매출원의 90%<sup>12)</sup>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국내의 전력산업 또한 에너지의 판매 단가를 정부가 개입 및 조정한다. 이는 정부가 한전의 주요 사업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대주주의 권한 행사로 인사권을 장악해 주요 공직에 친정권 인사들을 자리하고 이로 인해 한전은 기업경영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한 고착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정권의 입장만을 맞추고 있고 이는 한전의 기업 효율성의 악화와 경영 부실을 초래한다. 또한 이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 범위를 제한하며, 사업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기업경영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한전의 경영인이라고 주장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전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대해 질문을 던지자면 한전은 주요 사업 방향이 재화의 판매로 재화를 가공하기 위한 비용과, 이를 판매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전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다. 기업경영을 효율화 및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와 적자 원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22년도 4분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재화 판매를 통한 영업손실만

10)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11) 2023년 10월 24일 한국전력공사 증가  
 12)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손익계산서

한 분기에 30조 원이 발생하였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재화 판매 정책은 한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매출원가 비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 건전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정치적 표를 위한 한전의 가격 책정은 적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22년도 4분기에 발생한 재화 판매 손해만 한전 전체 유동자산과 맞먹는 규모다.<sup>14)</sup> 기업은 유동자산이 감소하게 될 경우 사업 방향성 유지와 기업경영 활동에 큰 제약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금액이 한전의 막대한 자산총계 230조 원<sup>15)</sup>에 비해 크지 않음으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230조 원 중 170조 원 가량이 한전의 사업 유지를 위한 유형자산<sup>16)</sup>임을 감안하고 제외한다면 기존 보유한 190조의 부채<sup>17)</sup>는 이미 기업 자산을 담보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전의 사업 지속성이 현재로서는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다.

### 해결 방안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과 정치 간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필요는 있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정치권에서 기업의 인사들을 장악하고 기업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강한 입김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지나치게 순종적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기업을 넘어서 기업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존재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법령의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기업 인사권 개입을 자제하고 친정권 인사가 아닌, 목적에 맞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요직에 자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한전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을 세심하게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한전이 문제를 가지고 방치되는 동안 친정권 인사들이 자리하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한전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전이 중립성과 인사권을 보장 받아 기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인사자가 기업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목적 유지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전의 막대한 손실은 자원판매 사업 손실에서 가져온다. 해당 분야의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제한을 두면서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이 이러한 정부의 제재가 없었다면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쌓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전에게 최소한의 기업경영을 위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사업 자율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한전은 사업 부분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고있다. 만약 이를 해소해 준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과 건전성의 리스크를 해소해준다는 이점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가 국외를 대상으로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한전 자체의 건전성과 자본 확보에 도움이 되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수혈을 줄이면서도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13)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손익계산서

14)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15)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16)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17)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이미 훼손된 한전의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수혈하여 기업의 건정성을 확보한다면 부채로 발생하는 손해와 리스크 비용이 해소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해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건정성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삼아야하기에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소비자, 한전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요금제를 확립할 할 의무를 가진다. 이때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전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세금 수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전이 제 목표를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변화할 경우 공익사업 보존과 동시에 에너지산업의 자립을 보장 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공기업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전은,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고 이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단체인 만큼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한전의 손실을 무한적으로 정부가 보전하는 것도, 책임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 한전이 자율성과 인사성을 확보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인사편향, 사업손실 등 고착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세금 수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착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게 기업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법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른 사업을 지속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정동 외, 공존과 지속(2019), 민음사
- 한국전력공사법(2022. 12. 31) [법률 제 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 한국전력공사 IR 센터 자본금 및 주주현황 (2022. 12. 31)
-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
- 한국전력공사 22년도 4분기 손익계산서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전기공학과 오\*현

글쓰기 교과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인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 효과적인 글쓰기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글을 쓰면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글의 구성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능력들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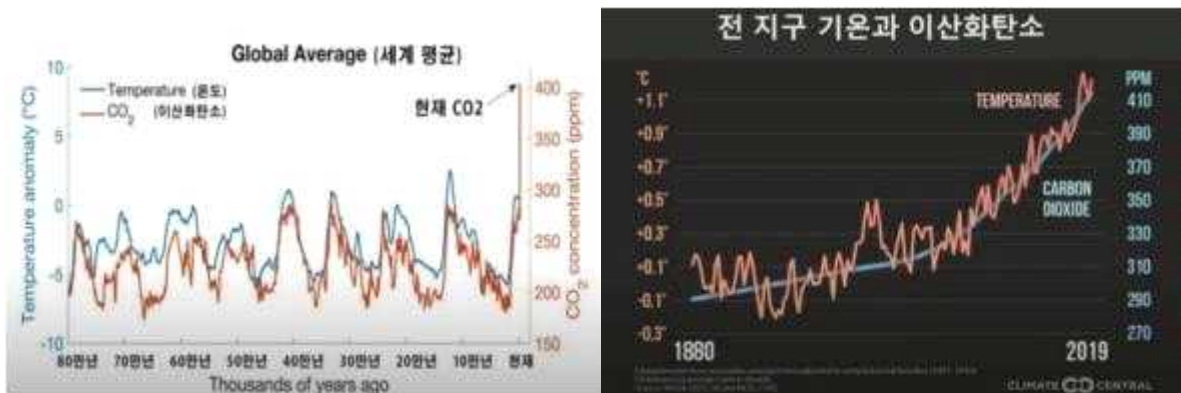
수업 기간 동안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 저의 글쓰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그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은 어려운 활동이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이 공모전 수상으로 맺게 되어 기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의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은 글쓰기와 학습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시면서 열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이는 크나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글쓰기 교과를 통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방식임과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발전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천인의로서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쓰기 교과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글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천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인가, 자연적인 것인가?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산소가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온난화 탓에 숲이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 빈도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몇몇 섬나라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다.<sup>1)</sup> 이외에도 폭염, 사막화 현상,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일까 자연적인 것일까?

우선, 필자는 인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산업혁명 이후의 이산화탄소 증가이다.



그래프(1) -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의 주기

그래프(2) - 이산화탄소와 전 지구 기온의 관계

그래프(1)을 보면, 10만 년 주기로 보았을 때, 지구의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규칙적인 변동성을 가진다. 평균적으로 5도 내외로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0~300ppm 사이를 규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온실가스와 온도 상승 간의 연관성이다.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그래프(2)를 보면, 보통 1000년에 걸쳐 1도 정도가 올랐는데,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 약 1도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온의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와 함께

1) 오일드림, [지구온난화 원인, 피해 사례,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CCS 사업)], 2023.02.02., <https://m.blog.naver.com/knoc3/223000162516>, 2023.11.30.

2) 그래프(1) - Joey(블로그), 정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일까?, 2021.08.24., <https://m.blog.naver.com/aaaehgus/222482838971>, 2023.11.30.

3) 그래프(2) - TSP News, [과학기술] 쉽게 설명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019. 11. 6., <https://www.youtube.com/watch?v=AxGw7On1GtU&list=WL>, 2023.11.30.

지구의 기온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실가스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그래프 (3)을 통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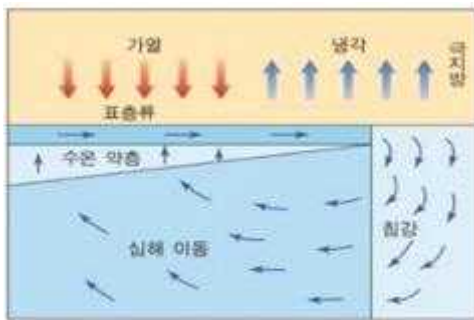


그래프(3) - 지구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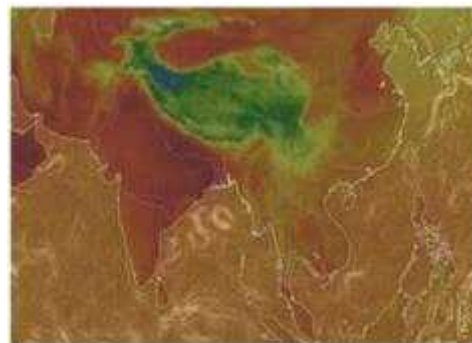
그래프(4) -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변화<sup>6)</sup>

그래프(3)에 있는 IPCC 연구에 따르면 인간활동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꾸준히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에 1.09도 정도 상승했고, 5차 보고서 때보다 0.21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프(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즉 1.5도까지 0.41도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40년까지 20년 이내에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sup>8)</sup>

셋째로, 기록적인 해수의 온도 상승이다. 최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현상 중 하나가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 파괴적인 태풍의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 심층 순환의 발생 모형<sup>9)</sup>



그림(2) - 해수면 온도 지도<sup>10)</sup>

4) Joey(블로그), 정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일까?, 2021.08.24., <https://m.blog.naver.com/aaaehgus/222482838971> , 2023.11.30.  
 5) 그래프(3)-고든(블로그), 온실 가스 - 3, 2009. 01. 22., <https://blog.naver.com/jjy0501/100060701019>, 2023.12.05.  
 6) 그래프(4)-Kbs news, [10년 빨라진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2021.08.09., [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 , 2023.11.30.  
 7) Joey(블로그), 정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일까?, 2021.08.24., <https://m.blog.naver.com/aaaehgus/222482838971> , 2023.11.30.  
 8) Kbs news, [10년 빨라진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2021.08.09., [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 2023.11.30.  
 9) 그림(1) - 박선 지구과학, [2021 지구과학 개념 정리, 해수의 심층 순환], 2019.12.30., <https://m.blog.naver.com/sunpark820/221753874759> , 2023.11.30.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풍은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것들은 바닷물의 온난화에서 강력한 힘을 얻는다. 이 원리는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의 증발이 촉진되고, 증발한 수증기가 태풍의 형성에 있어서 더 많은 양을 만들어 강한 태풍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1)에서 보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표층해류뿐만 아니라, 심층해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차가운 물이었던 표층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지면서, 해수의 심층 순환이 발생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표층수로 인해 태풍이 지나가면서 약화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sup>11)</sup> 또한, 그림(2)를 보면, 해수면 온도지도로 통해, 해수의 온도상승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방에 사는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해수면의 상승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구온난화는 간빙기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그림(3)-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와 지구 공전궤도 및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의 연관성<sup>12)</sup>

그림(3)을 보면, 현재 우리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에 살고 있다. 남북극의 빙하를 조사해 봤을 때, 예전부터 반복적인 빙하기가 있었기에, 현재는 간빙기임을 알 수 있다. 간빙기는 지구 공전궤도 및 자전축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지구의 공전궤도의 모양은 사실 완벽한 원의 상태가 아닌 타원 모양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이때,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의 변화, 세차운동에 따라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도 달라져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수도 혹은 빙하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3)</sup>

둘째로, 태양활동에 의한 기후적 요인의 변화이다.

10) 그림(2) - 지구여정 (블로그),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 2023년 초대형 괴물 태풍의 위협, 2023.06.14.,

<https://m.blog.naver.com/earthjourney316/223128770133>, 2023.11.30.

11) 위의 글, 2023.11.30.

12) 그림(3) - 수수깡(블로그), [간빙기와 지구온난화], 2010.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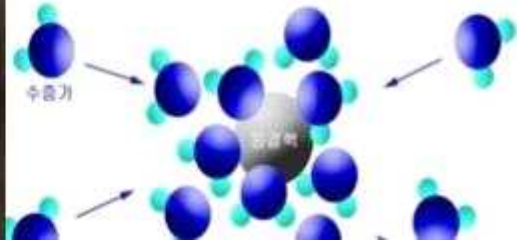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msnayana/80098650422>, 2023.12.05.

13) 수수깡(블로그), [간빙기와 지구온난화], 2010.01.02.,

<https://m.blog.naver.com/msnayana/80098650422>, 2023.11.30.



그림(4)-태양의 자기장 영역<sup>14)</sup>



그림(5)-응결핵과 수증기의 관계<sup>15)</sup>

태양에너지는 11년 주기의 흑점 활동으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변화한다.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데, 흑점 수가 많으면 복사에너지가 커져서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이 가지는 자기장 영역은 우주로부터 태양계로 들어오는 우주선을 대부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태양이 약해지면, 태양계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여러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지구로 들어온 우주선은 그림(5)에서와 같이 응결핵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응결핵이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기 위해 붙을만한 먼지를 말한다. 따라서 응결핵에 의해 물방울 형성이 많아지면, 구름의 형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태양 빛의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흑점이 많아지면,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선의 양은 적어지고, 구름의 생성 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셋째로, 화산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이다. 화산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오히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끼친다.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나오는데, 그 중 일부는 성층권에 도달하여 오랜 시간 머물면서 태양복사를 반사하여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화산재는 일정 기간 동안 대기 중에 머물러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이후에는 지구 온도를 높여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량의 먼지와 지표면이 재로 덮이면 해수면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화산 폭발 이후에 대규모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과정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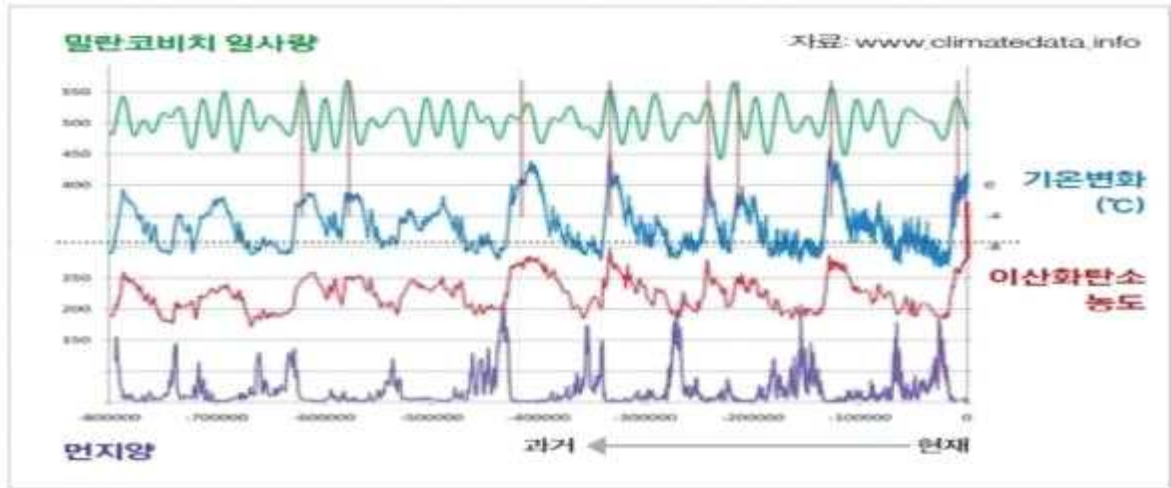
하지만, 자연적인 요인들로 주장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다.

14) 그림(4) - 위키백과, 태양권,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6%91%EA%B6%8C> , 2023.12.05.

15) 그림(5) - 업투데이트, 온난화(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 태양 흑점 변화에 의한 우주 방사선 증가와 구름 형성, 2023.10.13., <https://up-to-date.tistory.com/663>, 2023.11.30.

16) 위의 글, 2023.11.30.

17) 작지만 경이로운 것들을 찾는 사람, [지구온난화의 자연적 원인들], 2023.03.29., <https://smallwonders.tistory.com/m/entry/%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C%9D%98-%EC%9E%90%EC%97%B0%EC%A0%81-%EC%9B%90%EC%9D%B8%EB%93%A4> , 2023.11.30.



그래프(4)-밀란코비치 일사량<sup>18)</sup>

먼저, 자연적인 지구온난화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의 속도 차이가 있다. 그래프(4)를 보면,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180ppm, 280ppm 정도였다. 따라서 현재는 간빙기에 해당하므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40ppm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00ppm이다. 산업혁명 이전 1750년대에는 200ppm대를 유지하였지만, 불과 300년 사이에 100ppm 이상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영향으로 보기 힘들다.<sup>19)</sup>

다음으로, 태양활동의 변화와 지구 기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져 있다. 물론 태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흑점 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의 태양 복사에너지의 차이는 0.15%에 불과하다는 점과 최근에 측정된 태양 활동 규모가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영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현재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sup>20)</sup>

마지막으로, 화산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현재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산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의 영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sup>21)</sup>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것은 사실이며,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자연적인 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이 있

18) 그래프(4) - 중앙일보, [탄소 배출 늘어 다음 빙하기 오지 못할 수도], 2017.0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3912#home>, 2023.11.30.

19) 수수깡(블로그), [간빙기와 지구온난화], 2010.01.02., <https://m.blog.naver.com/msnayana/80098650422>, 2023.11.30.

20) 작지만 경이로운 것들을 찾는 사람, [지구온난화의 자연적 원인들], 2023.03.29., <https://smallwonders.tistory.com/m/entry/%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C%9D%98-%EC%9E%90%EC%97%B0%EC%A0%81-%EC%9B%90%EC%9D%B8%EB%93%A4>, 2023.11.30.

21) 업투데이트, 온난화(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 태양 흑점 변화에 의한 우주 방사선 증가와 구름 형성, 2023.10.13., <https://up-to-date.tistory.com/663>, 2023.11.30.

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IPCC에서 제출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서 1.5°C 이하로 억제했을 경우 기후 위기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근거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22)</sup>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구온난화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하거나, 국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2) 작지만 경이로운 것들을 찾는 사람, [지구온난화의 자연적 원인들], 2023.03.29.,  
<https://smallwonders.tistory.com/m/entry/%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C%9D%98-%EC%9E%90%EC%97%B0%EC%A0%81-%EC%9B%90%EC%9D%B8%EB%93%A4> , 2023.11.30.

## 참고문헌

- 오일드림, [지구온난화 원인, 피해 사례,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CCS 사업)], 2023.02.02.,  
<https://m.blog.naver.com/knoc3/223000162516>, 2023.11.30.
- 그래프(1) - Joey(블로그), 정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일까?, 2021.08.24.,  
<https://m.blog.naver.com/aaaehgus/222482838971>, 2023.11.30.
- 그래프(2) - TSP News, [과학기술] 쉽게 설명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019. 11. 6., <https://www.youtube.com/watch?v=AxGw7On1GtU&list=WL>,  
2023.11.30.
- 그래프(3)-고든(블로그), 온실 가스 - 3, 2009. 01. 22.,  
<https://blog.naver.com/jjy0501/100060701019>, 2023.12.05.
- 그래프(4)-Kbs news, [10년 빨라진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2021.08.09.,  
[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 2023.11.30.
- Kbs news, [10년 빨라진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2021.08.09.,  
[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https://youtu.be/i-DoMz_GLkc?feature=shared), 2023.11.30.
- 그림(1) - 박선 지구과학, [2021 지구과학 개념 정리, 해수의 심층 순환], 2019.12.30.,  
<https://m.blog.naver.com/sunpark820/221753874759>, 2023.11.30.
- 그림(2) - 지구여정 (블로그),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 2023년 초대형 괴물 태풍의 위협,  
2023.06.14., <https://m.blog.naver.com/earthjourney316/223128770133>, 2023.11.30.
- 그림(3) - 수수깡(블로그), [간빙기와 지구온난화], 2010. 01. 02.,  
<https://blog.naver.com/msnayana/80098650422>, 2023.12.05.
- 수수깡(블로그), [간빙기와 지구온난화], 2010.01.02.,  
<https://m.blog.naver.com/msnayana/80098650422>, 2023.11.30.
- 그림(4) - 위키백과, 태양권,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6%91%EA%B6%8C>, 2023.12.05.
- 그림(5) - 업투데이트, 온난화(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 태양 흑점 변화에 의한 우주방사선  
증가와 구름 형성, 2023.10.13., <https://up-to-date.tistory.com/663>, 2023.11.30.
- 작지만 경이로운 것들을 찾는 사람, [지구온난화의 자연적 원인들], 2023.03.29.,  
<https://smallwonders.tistory.com/m/entry/%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C%9D%98-%EC%9E%90%EC%97%B0%EC%A0%81-%EC%9B%90%EC%9D%B8%EB%93%A4>, 2023.11.30.
- 그래프(4) - 중앙일보, [탄소 배출 늘어 다음 빙하기 오지 못할 수도], 2017.0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3912#home>, 2023.11.30.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 동상 의공학과 이\*민

저는 이번에 과학기술글쓰기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에서는 논문을 쓰거나 어떠한 글을 쓰게 될 때, 올바른 인용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글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또한, 설명문, 논설문 등을 직접 써보고, 학우들과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 실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진행하게 된 과정은 논설문에 대해 배우고, 쓰는 방식에 대해 배운 이후, 기말 과제로 논설문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여러 주제 중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인간의 영향과 자연적인 영향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해당 주제로 논설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설문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평소에도 광고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지만, 논설문을 쓰게 되면서, 나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들을 찾고, 반대 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들을 보고 반박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개선할 점은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외워서 필기시험을 보는 방식도 좋지만 직접 글쓰기를 진행해 보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고, 글쓰기 실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로 이러한 것들을 해 보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글쓰기를 배우기 전에는 출처와 인용 등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논문을 쓸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올바른 인용 방식을 통해 해당 저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처를 밝힐 때, 외국 저서, 국내 저서에 따라 다르고 국내 저서에서도 다양한 형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형식에 맞게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글을 쓰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대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회나 공모전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동상이라는 값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여, 또 다른 공모전에서도 입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올바른 추모의 방식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핼러윈 축제 중이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의 한 비좁은 골목길에서 ‘군중 압력’에 의해 수백 명이 압사하고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2시간 만에 국가애도기간이 선포 되었다. 이름과 사진이 없는 분향소가 만들어졌고 일주일간 방송과 공연은 모두 취소되었다. 그리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합동분향소는 철거되고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들을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공동체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함께 아파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애도가 끝난 자리에는 희생자들을 향한 비방과 혐오만 남았다. 사람들은 서양의 놀이 문화에 빠져 놀다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라고 한다. 하지만 축제에 죽을 각오로 가는 사람은 없다. 한국사회가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유흥과 쾌락에 대한 금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희생자의 신상 공개를 두고 그것이 패륜이라 주장하며 희생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을 봉쇄했다. 서울광장에는 이름과 사진이 없는 분향소가 만들어 졌고 시민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추모하였다. 애도의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로 인해 유가족들은 애도받기 위해 희생자가 무고하고 도덕적이라는 변호를 해야 했다. 사회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 애도에도 자격이 있는가? 근면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만이 추모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생애 어떤 삶을 살았든 조건 없이 추모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애도 기간 동안의 문화예술행사들은 모두 취소되었다. 예술인들에게 허락된 애도의 방식은 그저 침묵하며 슬퍼하는 것뿐이다. 예술 행사 및 공연들은 유흥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지탄받는다.

애도의 방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분향소에 가서 헌화하는 것, 글을 써 아픔을 대변하는 것, 음악을 통해 애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애도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가수 정원영은 음악만 한 위로와 애도가 없다고 했다. 국가가 정한 애도의 방식과 기간은 마치 강요와 같다. 진정한 애도의 시작은 애도의 자유에 있다.<sup>2)</sup> 각자의 애도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진실어린 애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후인 2023년 10월 29일,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는 취소된 듯 보였다. 인파는 눈에 띄게 줄었고 다들 핼러윈에 대한 언급조차 피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핼러윈 축제도 이렇게 쉬쉬하며 지나가야 할까? 지난 참사를 잊지 않으려면 행사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핼러윈 행사가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침묵만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치료사 재

---

1) 이해수, <금기가 된 카니발과 애도의 위계 : 우리는 왜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문화과학사, 2023, 88.

스민(Jasmin Lee Cori)는 “트라우마는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트라우마를 피할 수 없다면, 트라우마를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트라우마가 몸에 남긴 흔적,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렇듯 할로윈 행사를 통한 언급의 반복은 사람들이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고 피해자의 아픔을 줄여준다.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애도의 방식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상처는 줄고, 극복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잊어버리라고 하거나 숨기기만 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도의 방식을 정해 놓지 말고 언급을 피하지도 말고 참사를 기억하는 자신의 방식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2) 이동연, <국가 통치성, 애도의 문화정치, 예술의 자율성 :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문화과학사, 2023, 81.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민

과학기술글쓰기 수업은 20명 정원의 소규모 글쓰기 강좌로 학생의 전공, 특성, 수요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고 진행되는 맞춤형 강좌이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각주, 인용법 등을 익혀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쓰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과제에는 수업 활동지 제출, 자기 서사 글쓰기, 칼럼 쓰기가 있다. 먼저 개요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다.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요를 수정하고 최종 글을 제출한다. 제출한 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셔서 제출 후에도 글을 점검해볼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며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식의 글에 대해 배우고 분석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목적이 중요함을 배웠다. 계속해서 문제의식과 목적을 돌이켜보며 글을 쓰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의 글쓰기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전에 개요와 초고를 제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피드백을 받고 글을 수정하는 과정이 최종 글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글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일부 수정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피드백이 글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교수님께서 왜 자신을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으라고 하신 건지 알 수 있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장과 생각을 많이 변화시켜 준다.

이공계열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고 분석하는 경험이 많이 적었다. 그래서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첫 수업을 듣고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글쓰기의 방식을 배우고 나서 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상까지 수상해 보니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

이 칼럼은 사람들의 애도가 많이 서툰다고 생각이 들어 쓰게 되었다. 애도의 목적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인데 현 사회의 애도는 그 목적과 어긋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애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현실을 보며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평소 가진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관련된 논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의 주장을 재검토하면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애도를 다시 생각해 보고 고칠 수 있다면 좋겠다.

수업을 듣고 칼럼을 작성하면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글로 작성하면서 나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느끼기도 하고 글로 어떻게 작성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글을 완성한 것이 뿌듯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였다.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이의 생각과 글의 구성을 신경 쓰며 또 다른 시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 글쓰기를 수상하고 앞으로의 글쓰기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앞으로 더 발전하며 글을 쓰고 싶다.

## 탄소나노튜브 코팅 쉘엔튜브형 간접증발냉각기 연구 개발

### Abstract

이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킴에 따라 총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공조장치의 효율 개선을 언급한다. 공조장치의 효율 개선 방식 중 하나로 쉘엔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를 제안한다. 쉘엔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작동방식을 밝히고, 기존 금속 튜브 열교환기 보다 낮은 밀도,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탄소나노튜브 열교환기로 대체하여 기존 금속 열교환기 대비 40% 성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공기의 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엔탈피, 유량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고 이를 MATLAB에서 코드로 작성하여 실행한 값을 통해 냉각기의 시뮬레이션 성능 값 분석을 통해 공급 공기의 온도, 입출구 온도 차, 엔탈피 차가 증가할수록 냉각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값을 토대로 탄소나노튜브 코팅 쉘엔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를 개발한다면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성능에 있어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공조장치 효율 개선, 간접증발냉각, 열교환기, 탄소나노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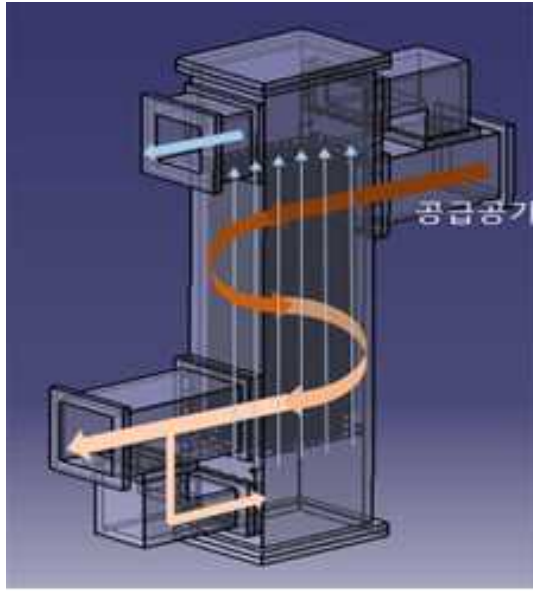
### 1. 서론

#### 1.1. 연구 주제 개요

본 연구개발에 적용할 간접증발 냉각기(Indirect evaporative cooler, IEC)는 건식채널(튜브 외부)과 습식채널(튜브 내부)로 구성되며, 습식채널 내 친수성 소재에 흡수된 물이 작동공기에 의해 증발할 때 발생하는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건식채널에 흐르는 공기를 냉각하는 시스템이다.

간접증발 냉각기는 직접증발 냉각기(Direct evaporative cooler, DEC)와 달리 유입공기의 습도변화 없이 온도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추가적인 제습공정 없이 생산공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쉘엔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식채널로 유입된 유입공기가 습식채널과의 열교환을 통해 냉각되며, 냉각된 생산공기의 일부를 추가하여 습식채널의 작동공기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그림 23]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표적인 설계인자<sup>1)</sup>는 튜브의 열전도도와 습식채널 표면에서의 증발 잠열<sup>2)</sup> 및 작동공기의 추기율<sup>3)</sup>이다.

따라서, 건식채널과 습식채널 사이의 열전달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전도도가 높고 두께가 얇은 튜브가 요구되지만, 금속 튜브의 경우 소재의 특성과 가공 기술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열전달 향상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열전달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열교환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동 튜브의 열전도도(200 W/mK)보다 30배 이상 높은 6000~8640 W/mK 범위의 열전도도를 갖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친수성 소재를 코팅할 예정이다.

이때 친수성 소재를 탄소나노튜브로 코팅한 새로운 튜브는 기존 동 튜브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며, 기존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보다 동일 용적 대비 튜브의 사용 개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열교환 면적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동 튜브보다 가벼운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증발 냉각기는 기존 간접증발 냉각기 대비 5배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 주제 발굴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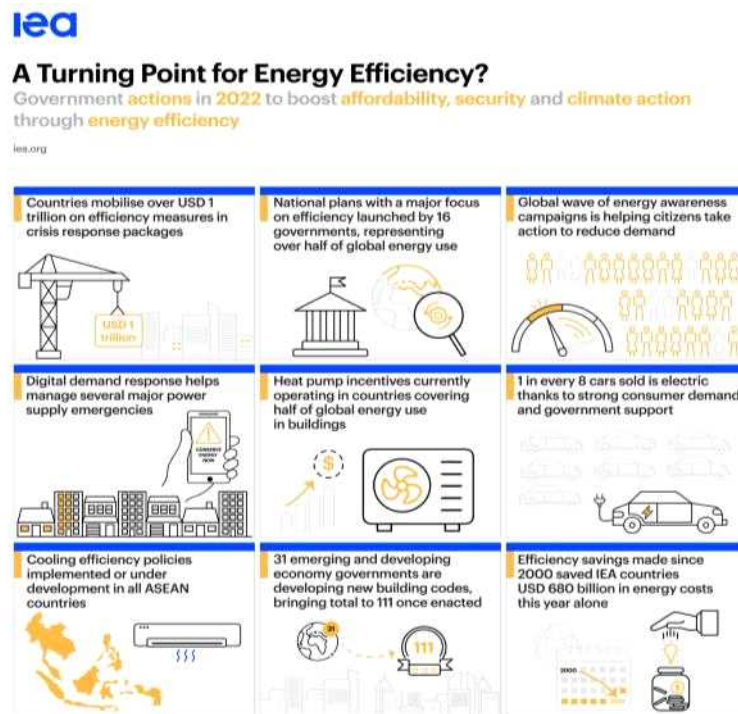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 자원 고갈,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빈번한 이상 기후 발생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략으로 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을 목표로 각 부문별 감축

1) 설계 변수 중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인자.  
 2) 어떤 물질이 기화할 때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량.  
 3) 기기에서 외부공간으로 추기되는 공기의 비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내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조 시스템(박창봉, 이연구, 2010)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모든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IEA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

### 1.3. 주제 기술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고, 이로 인해 여름철 온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활동이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실내의 공조와 온도 제어는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증기 압축식 히트펌프를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형 간접증발 냉각 기술을 연구개발 하고자 함. 간접증발 냉각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냉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조장치의 냉매 교체, 냉매 누수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 코팅 헬렌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는 기존 평판형 간접증발 냉각기보다 설치면적 대비 더 높은 냉각용량의 설계가 가능하다.

간접증발 냉각기의 튜브는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튜브 두께를 최소화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속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가공 기술의 한계로 더 이상의 열전달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금속 튜브보다 수십 배 이상 높은 6000~8640  $W/mK$ 의 열전도도(Victor Lee, et al., 2017)를 갖는 탄소

나노튜브를 친수성소재 위에 얇게 코팅한 튜브를 개발하고, 기존 금속 튜브보다 작은 탄소 나노튜브 코팅 튜브 제작 및 사용 개수를 증가를 통해 열교환 면적을 향상시킴으로써 고효율 간접증발 냉각기를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간접증발냉각의 개념과 특징

간접증발냉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림 4]에서 물을 사용하여 냉각매질을 냉각시키고, 이 냉각된 매질은 다시 공기를 통해 열을 전달하여 실내 온도를 낮춘다. 이때, [그림 3]과 같이 냉각매질은 직접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열교환기나 다른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간접증발냉각은 물 사용량이 적고, 상대습도 상승이 낮아 건조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물 냉각 및 기타 산업적 용도에 적용되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냉각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25] 간접증발냉각 단면

[그림 26] 간접 증발 냉각 원리

### 2.2. 열교환기의 개념, 종류 및 특징

열교환기는 두 개의 유체(냉매, 물, 공기 등) 사이에서 열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장치이다. 주로 열을 전달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열교환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체가 서로 교차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동안 열을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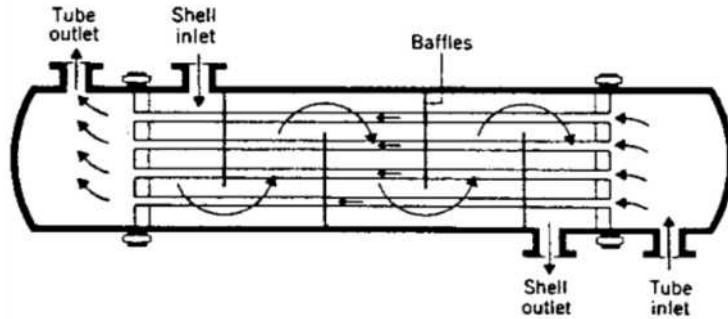
열교환기는 다양한 유형과 디자인이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는 판형, 셸 앤 튜브형 등이 있다. 각각의 형태는 특정한 용도와 환경에 따라 선택된다.

#### 2.2.1. 셸앤튜브형 열교환기

셸 앤 튜브형 열교환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교환기 중 하나이다. 이 형태의 열교환기는 주로 대용량 및 고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며,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온도를 교환하도록 설계되었다.

셸 앤 튜브형 열교환기는 [그림 5]를 참고하여 보면 셸(외부 케이싱)과 여러 개의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셸은 원통형이며, 그 안에 여러 개의 긴 튜브가 위치한다. 한쪽 유체는 셸 내부로 흐르고, 다른 한쪽 유체는 튜브 내부를 통해 흐른다. 이러한 설계

는 열을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해 두 유체 사이에 효율적인 표면적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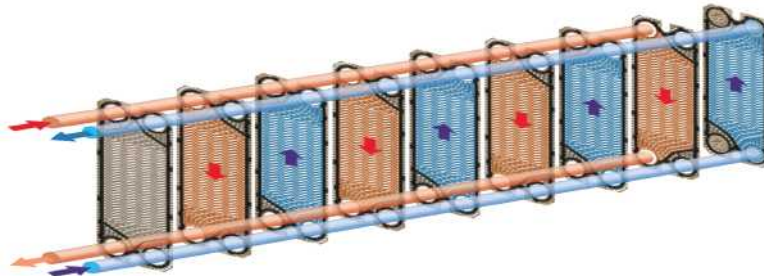


[그림 27] 셸 앤 튜브형 열교환기 구조 및 작동 계략도

### 2.2.2. 판형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해 설계된 열교환기이다. 이 열교환기는 판 형태의 열전달 표면을 사용하여 두 개의 유체 사이에서 열을 교환한다.

판형 열교환기는 일련의 판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각 판은 열을 전달하기 위한 채널로 구멍이 뚫려 있으며, 이러한 판들이 적층되어 서로 교차하는 패턴을 형성한다. 판 사이에는 두 개의 유체가 번갈아 흐르면서 열을 전달한다.



[그림 28] 판형 열교환기 구조 및 작동 계략도

### 2.3.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원자들로 구성된 나노미터 크기의 중공 원통 구조물로, 단일 벽과 다중 벽으로 나뉘어진다.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전기전도성, 열전도도,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 전자전기 소재, 고강도 섬유, 배터리, 열 관련 소재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 각광받는 신소재이다. 하지만, 높은 생산 단가, 소량 생산, 낮은 수율 등의 문제로 상용화는 아직 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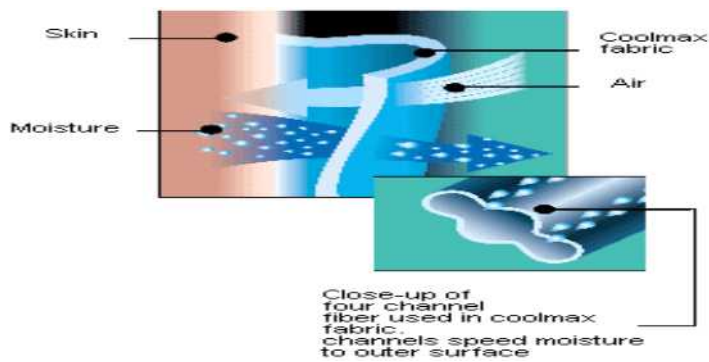
<표 8> 탄소나노튜브와 동 의 물성

물성\물질	탄소나노튜브	동
열전도도	6000~8640W/mK	320 W/mK
밀도	1.35 g/cm <sup>3</sup>	8.9 g/cm <sup>3</sup>

## 2.4. 친수성 소재

친수성 소재는 뛰어난 흡습성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소재이다. 친수성 소재의 높은 수분함량과 흡습성을 간접증발 냉각에 쓴다면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다.

예로 여름철 물을 뿌려 목에 돌려 시원하게 하는 수건인 쿨맥스라는 기능성 섬유 소재가 있다.



[그림 29] 대표적인 친수성 소재인 쿨맥스의 원리

## 3. 연구 목표 및 수행 내용

### 3.1. 연구의 목표

- 기존 동관 간접증발 냉각기 대비 냉각성능 40%향상
- 셸앤튜브형 열교환기의 소형화, 경량화
- 탄소나노튜브 코팅 시스템 개발

### 3.2. 연구의 구체적 수행 내용

- 탄소나노튜브 코팅을 위한 강하막형 코팅 시스템 제작
- 탄소나노튜브의 흡수 효율 및 증발 효율 평가
- 평가한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의 효율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탄소나노튜브 코팅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작동 조건(온도, 습도, 유량<sup>4</sup>, 추기율)에 따른 탄소나노

- 튜브 코팅 튜브를 이용한 간접증발 냉각기 성능 평가
-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를 이용한 간접증발 냉각기의 수치해석 모델 개발, 검증 및 성능 평가
- 친수성 소재의 증발 잠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분 함유량을 갖는 소재를 선정

## 4. 연구 추진 예상효과

### 4.1. 주제구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동일 용적<sup>5)</sup> 조건에서 기존 셀앤티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동 튜브보다 작은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의 최대 열교환 면적 확보를 위한 사용 개수와 배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튜브에 사용되는 동 튜브의 두께보다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의 코팅 튜브를 얇게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반대로 적절한 강도를 갖기 어려움

탄소나노튜브 코팅 기법에 대해 탄소나노튜브 용액의 배합률은 탄소나노튜브 코팅 막의 두께, 결합구조와 연관되어 강도, 열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에 적절한 배합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용매와 바인더<sup>6)</sup>, 탄소나노튜브의 다양한 배합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비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 4.2.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극복방안

최대 열교환 면적을 위해 수치적 해석을 통해 사용 개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적의 배열 상태를 설계하고자 한다.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의 두께는 냉각성과 직결되고, 친수성 소재의 수분 흡수 효율에 비례하는 증발 잠열 또한 간접증발 냉각기의 냉각성과 관련이 크다. 따라서, 문헌 조사와 실험을 통해 흡수 및 증발 효율이 우수한 친수성 소재를 선정하고 높은 열전도도와 적절한 강도를 갖는 탄소나노튜브 코팅 두께를 형성할 수 있는 코팅 기법을 개발하고자 함.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배합하기 위해 물, 이소프로필알코올(에탄올) 등 다양한 용매를 적용할 예정이며, 탄소나노튜브 용액의 접착력을 높이고 탄소나노튜브 튜브의 강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바인더를 사용하여 최적의 용매와 바인더 그리고 이들의 조성비<sup>7)</sup>를 결정하기 위한 반복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험시간 및 연구기간 단축을 위해 강하막형 코팅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할 예정이다.

4) 유체의 흐름 중 일정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의 체적, 질량을 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 것.

5)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6)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을 메워서 결합시키는 접착제의 일종.

7) 화합물 또는 혼합물 내 성분 원소들이 섞이는 비율.



### 4.3. 예상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에 사용되는 동 튜브를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로 대체한 혁신적인 간접증발 냉각기를 개발하고자 하며, 건식채널과 습식채널 사이의 열전달 저항의 최소화를 통해 간접증발 냉각기의 냉각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된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를 이용한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는 기존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동 튜브를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로 대체함으로써 간접증발 냉각기의 수명이 향상되어 유비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열교환기의 소형화를 통한 제작 및 설치비용 절감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냉방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동 튜브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밀도의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로 대체하면 동일 용적 대비 간접증발 냉각기의 무게를 5배 이상 저감하여 경량화 실현이 가능함으로써 설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질량, 화학종,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해석모델은 향후 시스템의 격상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접증발 냉각기 모듈의 다양한 작동조건(온도, 습도, 유량, 추기율 등)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최적운전조건은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냉각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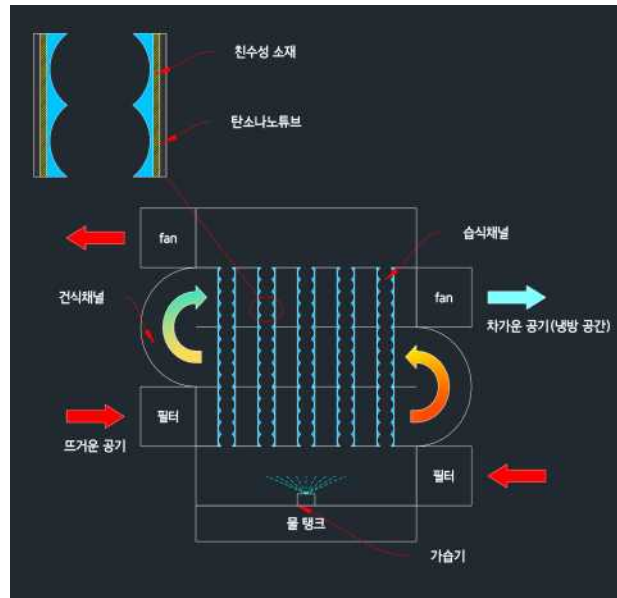
또한 제습공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간접증발 냉각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냉방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함. 제습공정을 통해 간접증발 냉각기로 유입되는 공기의 잠열부하를 저감시키고 작동공기의 상대습도를 낮춰 증발잠열에 의한 냉각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시스템의 냉각성능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탄소나노튜브 코팅 튜브를 이용한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형화가 가능함으로써 가정 및 실내 환경,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실험 냉각기 도안 및 연구방법

### 5.1. 탄소나노튜브 코팅 셸앤튜브형 간접증발냉각기 도안

[그림 1]과 [그림 8]은 각각 CAD를 통해 작성한 3D, 2D 형태의 탄소나노튜브 코팅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도안이다.



[그림 30] 간접증발 냉각기 예상 도안

## 5.2. 성능지수 식과 MATLAB을 이용한 계산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는 직접적인 냉각기 설계와 코팅 시스템 설계가 불가하므로, 제한된 조건 내에서의 성능지수 식을 세워 각 조건에 맞는 값을 MATLAB 코드를 짜서 실행하였다.

### 5.2.1. 성능지수 식

연구할 간접증발 냉각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냉방 용량(cooling capacity, C)과 습구온도 유용도(wet bulb temperature effectiveness,  $e_{wbt}$ ), 그리고 노점온도 유용도(dew point temperature effectiveness,  $e_{dpt}$ )를 성능지수로 사용하였다. 냉방용량은 간접증발 냉각기의 에너지 변화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m_{fr} (H_i - H_o) \quad (1)$$

여기서,  $m_{fr}$ 은 간접증발 냉각기의 출구에서 생산 공기의 질량 유량(mass flow rate of production air at the outlet), 그리고  $H_i$ 와  $H_o$ 는 각각 간접증발 냉각기의 입출구에서 공기의 엔탈피를 나타낸다. 습구온도, 노점온도 유용도는 각각 습구온도, 노점온도까지의 냉각량 대비 실제 냉각량의 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_{wbt} = \frac{T_i - T_0}{T_i - T_{wbti}} \quad (2)$$

$$e_{dpt} = \frac{T_i - T_0}{T_i - T_{dpti}}$$

여기서  $T_{wbti}$ 와  $T_{dpti}$ 는 각각 간접증발 냉각기의 건식채널 입구에서 공급공기의 습구온도와

노점온도를 나타내며,  $T_i$ ,  $T_o$ 는 각각 간접증발 냉각기의 건식채널 입출구에서 공기의 건구온도를 나타낸다.

### 5.2.2 MATLAB을 이용한 성능 계산 코드

성능지수 식을 근거하여 [그림 9]과 같이 MATLAB에서 성능 계산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온도, 습도비, 유량, 추기율)에서의 냉방용량을 구할 수 있다.

```

1 function evaluate_cooler_performance()
2     % 냉방 용량 계산
3     m_fr = input('생산 공기의 질량 유량을 입력하세요: ');
4     H_i = input('입구 공기 엔탈피를 입력하세요: ');
5     H_o = input('출구 공기 엔탈피를 입력하세요: ');
6     C = m_fr * (H_i - H_o);
7
8     % 습구온도 유용도 계산
9     T_i = input('건식채널 입구의 공기 건구온도를 입력하세요: ');
10    T_o = input('건식채널 출구의 공기 건구온도를 입력하세요: ');
11    T_wbti = input('공급공기의 습구온도를 입력하세요: ');
12    e_wbt = (T_i - T_o) / (T_i - T_wbti);
13
14    % 노점온도 유용도 계산
15    T_dpti = input('공급공기의 노점온도를 입력하세요: ');
16    e_dpt = (T_i - T_o) / (T_i - T_dpti);
17
18    % 결과를 출력합니다.
19    disp('냉방 용량: ');
20    disp(C);
21    disp('습구온도 유용도: ');
22    disp(e_wbt);
23    disp('노점온도 유용도: ');
24    disp(e_dpt);
25 end

```

[그림 31] 냉각기 성능 계산 MATLAB 코드

[그림 10]은 각 조건을 입력한 후에 실행된 MATLAB 코드이다.

```

생산 공기의 질량 유량을 입력하세요: 10
입구 공기 엔탈피를 입력하세요: 2.3
출구 공기 엔탈피를 입력하세요: 1.2
건식채널 입구의 공기 건구온도를 입력하세요: 24
건식채널 출구의 공기 건구온도를 입력하세요: 21
공급공기의 습구온도를 입력하세요: 29
공급공기의 노점온도를 입력하세요: 23
냉방 용량:
    11.0000

습구온도 유용도:
    -0.6000

노점온도 유용도: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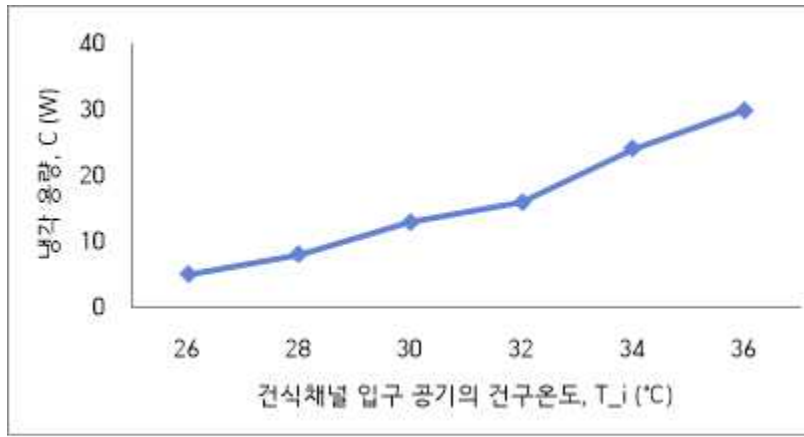
[그림 32] 실행된 MATLAB 코드

### 5.2.3. 다양한 온도에 따른 성능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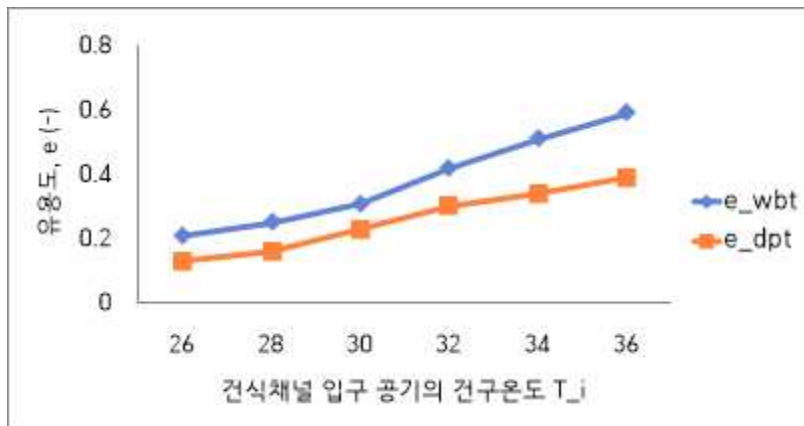
MATLAB에서 공급 공기의 온도를 조정하여 성능을 계산하였다.

[그림 11]은 공급 공기의 온도에 따른 냉각용량을 나타낸다. 냉각용량 기준 작동 조건(공급 공기 습도비 :  $12\text{ g/kg}$ , 유량:  $0.004\text{ kg/s}$ , 추기율: 20%)에서 공급 공기의 온도가  $26\text{ }^{\circ}\text{C}$ 에서  $36\text{ }^{\circ}\text{C}$ 로 증가함에 따라  $4.82\text{ W}$ 에서  $25.71\text{ W}$  만큼 증가했다.

[그림 12]은 공급 공기의 온도에 따른 습구 및 노점온도 유용도를 나타낸다. 습구 및 노점온도는 기준 작동 조건(공급 공기 습도비 :  $12\text{ g/kg}$ , 유량:  $0.004\text{ kg/s}$ , 추기율: 20%)에서 공급 공기의 온도가  $26\text{ }^{\circ}\text{C}$ 에서  $36\text{ }^{\circ}\text{C}$ 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0.21에서 0.59 만큼, 0.13에서 0.39만큼 증가하였다.



[그림 33] 공급 공기의 온도에 따른 냉각용량



[그림 34] 공급 공기의 온도에 따른 습구 및 노점온도의 유용도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열전도도, 밀도)값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 코팅 셸앤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MATLAB 코드를 짰 후에 다양한 작동 온도에서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급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냉각용량을 상승하며 유용도 또한 상승하여 냉각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 출구 공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식(1)에 따라 냉각용량이 커졌다. 공급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출구 공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엔탈피 차이가 커짐에 따라 냉각용량이 커진다.

3. 공급 공기의 습구온도와 노점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냉각성능은 식(2)에 따라 유용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므로 냉각성능이 향상된다.

4. 유량이 증가할수록 냉각용량은 커진다. 식(1)에 따라 입출구에서의 엔탈피 차가 일정할 때, 냉각용량은 커짐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값을 토대로 실물의 탄소나노튜브 코팅 헬렌튜브형 간접증발 냉각기를 개발한다면 상용화된 금속 튜브 간접증발 냉각기 대비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하며 유지보수, 성능에 있어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봉훈(2007), 탄소 나노튜브 나노유체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논문집, 19(3), 275-283
- 나가수(2011), 열교환기, Heat exchanger [사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dface/130105527386>
- 박재홍(2009), 판형 열교환기의 특징과 적용,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3(6), 802
- 박진철, 조균형, 유호천, 권영철, 이연구(2011),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방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
- 박창봉, 이연구(2010),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방시스템 성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0(6), 90
- 안병일(2014), 플라스틱 통으로 증발에어컨 만들기 [사진], slideshare, <https://www.slideshare.net/tovacc/ss-36921612>
- 홍효정(2011), 쿨맥스 입으면 진짜 시원할까? [사진], 조선일보,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080585034>
- IEA(2022), A Turning point for energy Efficiency? [image], IEA.org, <https://www.iea.org/reports/energy-efficiency-2022/executive-summary>
- Victor Lee, Chi-Hsun Wu, Zong-Xing Lou, Wei-Li Lee, and Chih-Wei Chang(2017), Divergent and Ultrahigh Thermal Conductivity in Millimeter-Long Nanotubes, 118, 13-31

##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화공생명공학과 한\*민

과학기술글쓰기는 이공계에서 소통하는 법인 논문 형식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APA, 시카고 양식, 각주, 미주 다는법 등)을 배우며 이공계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었다.

과제는 출처 표기 양식 문제, 논문 양식 문제, 소논문 작성하기로 총 3개가 있었다. 이 중 이번에 제출하게 된 과제는 소논문 작성하기였다. 취미 생활을 통해 진행하던 연구가 있어서 주제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기에 짧은 기간 내에서는 완성하기 어려운 연구였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수치해석 식과 시뮬레이션 코드를 통해서만 간략하게 결과를 내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본래 취미 생활(다양한 기계 만들기(소형로켓, 공조기 등))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나름의 발전이 있었다.